



온라인에서도
<KTX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KTX 2023.07

함안



모두에게 평안을, 함안

02-799-9175
광안고령



온라인에서도
<KTX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여름 생활, 대전

대전 0시 축제



슬기로운 여름 생활, 대전 | 거제에서 인생 사진 찍는 방법 | 문화로 충전하기, 광양 전남도립미술관

CONTENTS

2023.07

여름방학의 아련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대전 소재동에서 기차 이야기를 들었다. 마을을 맴돌던 바람이 어느새 한밭수목원을 지나 대동하늘공원에서 여행자를 부르고 있었다. 지금, 대전은 여름 향기로 한층 청량하다.



036
테마 여행
대전

“역시 서울우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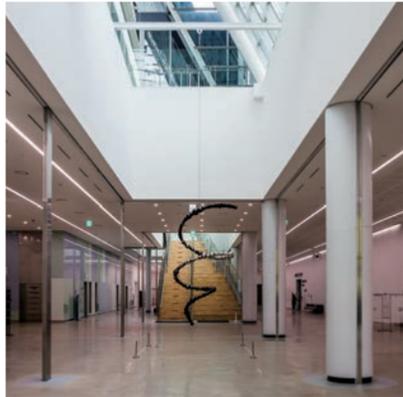


제조일자
신선함의
기준입니다

우유는 목장에서 갓 나와야 신선합니다
갓 나온 우유인지는 제조일자로 확인하세요!



2023.07



008

세계 도시 이야기

겨울이 한창인 뉴질랜드 남섬 매켄지 분지, 우윳빛 테카포 호수에 은하수가 흐른다.

010

꼭꼭 스탬프 여행

강원도 춘천의 숨은 명소만 골라 모은 스탬프 투어로 나만의 여행을 시작한다.

012

생활의 지혜

낮은 길고 밤은 시원하니, 제대로 축제를 즐기 좋은 계절이다.

016

주방 속 여행

레벨제로의 데니 한 셰프는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며 지속 가능성을 향해 나아간다.

018

맛집 탐방

건강하고 재미진 맛의 고장, 전남 강진으로 보양식 맛보러 떠난다.

054

기차 타고

경남 함안에서 자연이 무르익은 공원을 걷고, 드넓은 저수지 위를 시원하게 내달렸다.

066

이 계절 이 여행

온통 푸른 경남 거제의 풍광을 배경으로 오래도록 추억할 여행 사진을 남긴다.

072

이달의 공간

전남을 넘어 세계 미술과 만나는 공간,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충만한 휴가를 보냈다.



KORAIL INFORMATION

091

한국철도 소식

098

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100

열차 이용 안내

102

비상시 행동 매뉴얼

<KTX매거진>은 시각장애인과 외국인들을 위한 '보이스아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글을 읽어서 들려주며, 60여 개 언어로 번역도 지원합니다. 자동 번역기를 사용하기에 번역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2023 대전 0시축제

2023.8.11.(금)-17.(목)

중양로 일원(대전역 - 옛 충남도청)

행사구간 차 없는 거리 운영 ※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들어가는 글



내가 사는 곳의 지명은 왜 그렇게 지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새로운 고장을 방문하기에 앞서, 그곳 지명을 찬찬히 뜯어봅니다. 어떤 지명은 땅의 생김새와 성격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다녀온 경남 함안이 그랬습니다. 산등성이가 둥글게 땅을 감싸고, 너른 대지가 목가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지요. 그제야 함안의 뜻을 풀이해 본 기억이 났습니다. '모두 다 편안하다'라는 의미 그대로 넉넉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함안에 머무는 내내 포근했답니다. 여러분의 동네는 어떠할까요? 무심코 지나쳤던 지명과 마을을 유심히 눈에 담아 보세요. 이토록 물 맑은, 산과 들이 수려한 땅의 기세가 좋은, 옛 도읍이었던 눈부신 고장에 살고 있었던 사실을 새삼 깨달을 거예요. 아름다운 곳에서 살아가는 당신의 행복과 평안을 바랍니다.

<KTX매거진> 기자 옥송이

KTX

바로 지금, 여행
JULY 2023

2023년 7월호 제20권 제7호 통권 제229호
2023년 7월 1일 발행

발행인 고준영(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

편집 (주)서울문화사 02-3785-0900
서울시 용산구 새창로 221-19

편집인 심정섭

편집장 김현정 kimhj@seoulmedia.co.kr
수석 기자 강은주 unddu@seoulmedia.co.kr
기자 옥송이 ocksong@seoulmedia.co.kr
남혜림 nhr@seoulmedia.co.kr

교열 오미경 변역 박경리

디자인 아트 디렉터 권영주 kyj@seoulmedia.co.kr
디자이너 임보영 lby@seoulmedia.co.kr
객원 디자이너 엄정윤

사진 라이트팩토리(LIGHT FACTORY)
070-4119-3014
디렉터 신규철
실장 이규열 조지영 이철 박정우

광고 팀장 조현익 jony2@seoulmedia.co.kr
부장 심재우 jwshim22@seoulmedia.co.kr
사원 김수연 ktxad@seoulmedia.co.kr

배포 소장 이재우

경영지원실 본부장 정영기

제작팀 팀장 이수행
차장 정승현 과장 정수호

기획팀 팀장 임용욱 차장 박선주 사원 조소연

인쇄 (주)타라티피에스

<KTX매거진>은 KTX와 ITX-새마을, ITX-청춘 열차 내 전 좌석에 비치하는 월간지입니다. 보신 뒤에는 다음 승객을 위해 제 자리에 꽂아 주시기 바랍니다. <KTX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 편집 02-799-9338 광고 02-799-9175

보상은 크게! 가치는 오래! 쓰시던 안마의자를 바꾸세요

1년에 한번 뿐인 특별한 보상기회를 잡으세요

지금 쓰시던 안마의자를 교체하시면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9 US 여자오픈 우승
이정은6 프로



2011 US 여자오픈 우승
2017 ANA인스퍼레이션 우승
유소연 프로



파나소닉 안마의자 보상판매

- 기간 : 2023.06.23 ~ 2023.07.31

- 행사내용 : 사용중인 안마의자 교체 시(타사제품 포함) 파나소닉 안마의자 MAK1 • MAF1 • MA32 • MAC9 • MA05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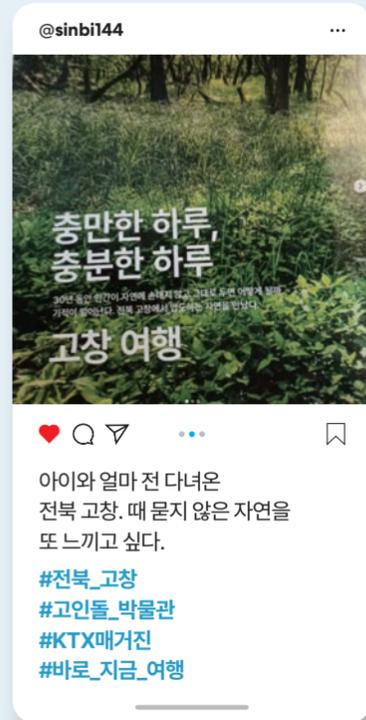
판매점 전국 파나소닉 공식 대리점 / 전국 유명백화점 및 대형 전자제품 전문점에서 철찬 판매중 • 파나소닉 코리아 고객센터 1588-8452 • 파나소닉 코리아 홈페이지 http://panasonic.kr

파나소닉 프라자 서초 본점 (02)542-8452 서울시 서초구 | 파나소닉 HM프라자 (02)755-8452 서울시 중구 | 파나소닉 광안프라자 (051)755-8452 부산시 수영구 | 파나소닉 동아프라자 (053)427-3794 대구시 북구 | 파나소닉 대전프라자 (042)223-8452 대전시 서구 | 파나소닉 수성프라자 (053)424-8452 대구시 중구 | 파나소닉 중원프라자 (051)255-0300 부산시 중구 | 파나소닉 명성프라자 (051)633-8452 부산시 동구 | 파나소닉 HD프라자 (062)522-2000 광주시 북구 | 파나소닉 제주프라자 (064)757-8452 제주시 구남동 | 파나소닉 천안프라자 (041)522-8452 천안시 동남구 | 롯데 백화점 본점 9층 (02)726-4545 서울시 중구 | 롯데 백화점 잠실 10층 (02)2143-7793 서울시 송파구 | 롯데 백화점 강남 8층 (02)531-2045 서울시 강남구 | 롯데 백화점 일산 8층 (031)909-3091 경기도 고양시 | 롯데 백화점 센텀 7층 (051)730-3330 부산시 해운대구 | 롯데 백화점 대전 B1층 (042)523-5322 대전시 서구 | 롯데 백화점 광주 9층 (062)-221-1932 광주시 동구 | 롯데 백화점 인천 미추홀구 | 현대 백화점 본점 B1층 (02)3449-5461 서울시 강남구 | 현대 백화점 무역센터 4층 (02)3467-8348 서울시 강남구 | 현대 백화점 목동 B1층 (02)2163-1843 서울시 양천구 | 현대 백화점 판교 7층 (031)5170-1835 경기도 성남시 | 현대 백화점 여의도 5층 (02)3277-0581 서울시 영등포구 | 현대 백화점 갤러리아 백화점 타임월드 10층 (042)720-6050 대전시 서구 | 신세계 백화점 본점 신관 2층 (02)310-1678 서울시 중구 | 신세계 백화점 강남 B1층 (02)3479-1628 서울시 서초구 | 신세계 백화점 의정부 8층 (031)8082-0854 경기도 의정부시 | 신세계 백화점 대구 7층 (053)245-2730 대구시 중구 | 대구시 동구 | 신세계 백화점 센텀 7층 (051)745-2389 부산시 해운대구 | 신세계 백화점 경기 6층 (010)8890-7512 경기도 용인시



내 손안에 펼쳐지는 KTX매거진

SNS에 #KTX매거진을 태그해 올려 주세요.



@ktxmagine

선물 받아 가세요!

기차 안 SNS에 선정된 분께는 고농축 풀빅산을 함유해 두피 및 모공 관리에 도움을 주는 탈모 예방 샴푸 '풀빅 헤어 샴푸 & 토닉 세트'를 선물로 보내 드립니다. 두피와 모발 케어에 적합한 약산성 샴푸로 온 가족이 사용하기 좋습니다.

제품 문의 1522-9158

손안에 펼쳐지는 <KTX매거진>

QR코드를 스캔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로 <KTX매거진>을 만나 보세요!

*당첨자에게는 인스타그램으로 메시지를 드립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아라가야의 왕도

함안, 다시 만나다



별이 일렁이는 호수 곁에서

겨울이 한창인 뉴질랜드 남섬 매켄지 분지 북쪽, 빙하가 녹아 생성된 우윳빛 테카포 호수에는 은하수가 흐른다.

TEKAPO



© Tekapo Springs

사진 제공 뉴질랜드 관광청, Department of Conservation © Rachel Gillespie

뉴질랜드 테카포 호수는 빛 공해가 없어 별을 관측하기에 최적의 장소다. 호수 주변의 마운트 존 천문대에서 해설과 함께 전문가용 천체망원경으로 별자리를 감상하는 별 관측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겨울에 잘 익은 수박이 떠오르거나, 여름에 설경을 보고 싶은 것처럼 반대의 계절이 그리울 때가 있다. 후끈거리는 계절에 지친 사람은 계곡이나 바다로 간다. 그래도 더위가 가시지 않는다면, 아예 남반구로 떠난다. 한반도 반대편에 자리한 뉴질랜드는 지금 겨울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다. 화산 지대가 존재하는 북섬과 빙하 지형을 품은 남섬, 어느 곳을 방문해도 뉴질랜드의 청량한 자연환경은 반갑게 여행자를 맞아 준다. 시원함을 좇는 이번 여정에서는 남쪽을 향해 가기로 한다. 매년 7월 밤하늘이 뿌옇게 보일 정도로 쏟아지는 별을 보기 위해서다. 빛 공해가 거의 없는 이곳에서는 맨눈으로도 은하수가 보인다. 그 광경이 얼마나 환상적인지, 국제밤하늘협회가 뉴질랜드 곳곳을 밤하늘 보호구역과 밤하늘 공원으로 지정했을 정도다. 해발 700미터 고산지대, 아오라키 매켄지 밤하늘 보호구역에 속하는 테카포 호수가 여행의 목적지다. 호수는 청록색 물감에 우유를 섞은 듯한 빛깔로 첫인상을 남긴다. 빙하에서 흘러나온 물에 주변 암석의 분말이 녹아들어 오묘한 푸른빛을 띤다. 신비로운 호수를 거닐 뒤, 호수와 같은 이름을 가진 작은 마을에 짐을 푼다. 그리고는 밤이 오기 전까지 만년설이 만든 천연 스키장에서 매켄지 분지와 서던알프스산맥의 경치를 감상하며 스키를 탄다. 이제 본격적으로 은하수를 기다릴 시간이다. 어둠이 내리고, 희미하던 별이 서서히 제 빛을 찾더니 이윽고 찬란하게 빛난다. 뉴질랜드 원주민 마오리족이 새해의 증표로 여기는 마타리키, 즉 플레이아데스성단도 발견한다. 그렇게 하염없이 하늘을 바라볼 즈음, 싸늘해진 몸이 온기를 갈급해한다. 걱정 없다. 팔과 다리에 달라붙은 피로와 한기는 호수 근처의 온천 '테카포 스프링스'에서 해소할 테니까. 선명한 은하수와 설경을 보며 몸을 녹이는 여름, 뉴질랜드는 자연의 선물로 이토록 충만하다. **K**



내 마음속 여행지로 도장 찍

불거리, 놀 거리 많은 강원도 춘천에서도 숨은 여행지만 골라 모았다. 스탬프 투어로 나만의 춘천 여행을 시작한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고, 여행도 그렇다. 어디를 간다는 것은 그 시각에 볼 수 있는 다른 곳을 포기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목적지와 동선은 여행자에게 중요한 문제다. 자연, 문화 예술, 체험, 먹거리... 우리가 여행에서 원하는 바를 다 갖춘 춘천으로 떠나자고 결정한 순간 행복한 고민이 시작된다. 여행지 이름만 갖고도 이 지면을 채울 만큼 매력 넘치는 장소가 많아서다. 춘천시가 기획한 '숨은 춘천 찾기' 스탬프 투어는 좋은 참고서다. 춘천의 유명 여행지 말고, 아직 덜 알려졌지만 방문하는 이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할 곳을 쫓아 골라 모았다. '뉴트로' '로컬마켓&카페' '문화·예술 체험 공간' '자연·생태 체험' 네 가지 주제에 맞춘 열다섯 군데다. 뉴트로 여행지는 어제의 역사를 기반으로 새로운 오늘을 이룬 육림고개, 옛 백양리역, 옛 김유정역, 효자동 낭만골목이다. 백양리역과 김유정역에서는 청춘의 기차 여행 성지라 할 경춘선 이야기를 담은 옛 기차역의 낭만을 음미하며 재단장한 공간을 누린다. 춘천이 가진 풍부한 문화 자산에 빠지고 싶다면 이상원미술관, 책과인쇄박물관, 붓이야기박물관이 답이다. 아름다운 풍경이 맛과 향기를 돋우는 카페거리도 훌륭하다. 물레길의 친환경 카누 체험을 하면서는 이 여름 가장 환한 웃음을 터뜨릴 것이다. 드러난 춘천 대신 숨은 춘천 명소를 구석구석 누비는 동안 나와 춘천의 이야기가 만들어진다.



스탬프 투어 이용 방법

STEP 1

숨은 춘천 찾기 스탬프 투어 장소를 방문해 스탬프를 찍는다.

STEP 2

춘천시 관광안내소(춘천역, 남춘천역, 김유정문학촌)에서 스탬프 개수를 확인하고 기념품을 받는다. 스탬프 15개 가운데 6개를 채우면 텀블러, 8개는 예코백, 12개는 달걀비 2인 세트를 증정한다. 문의 033-250-4312, tour.chuncheon.go.kr

자료 제공 춘천시청

육림고개

한때 변화의 중심이던 육림극장이 문을 닫고 쇠락해 간 지역에 아기자기 한 상점이 들어서며 변화가 찾아왔다. 새롭고 재미있고 맛있고 사진 찍기 좋은 것이 준비해, 그 옛날 추억을 뒤적일 사람이나 청춘 세대나 모두 즐겨 워한다. 품질 높은 춘천 농산물을 판매하는 중앙시장도 가까우니 둘러 보자.

주소 춘천시 중앙로77번길 35 문의 tour.chuncheon.go.kr



KT&G상상마당 춘천

호반 도시 춘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의암호 수변, 옛 어린이회관과 강원체육회관을 복합 문화 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 호수와 건물이 어우러진 풍경 속에서 호젓하게 산책하고 예술을 즐긴다. 숙박 시설을 마련해 '물멍' '별멍' '예술멍'까지 가능하다. 투숙객에게 삼악산 케이블카 할인권을 제공한다.

주소 춘천시 스포츠타운길399번길 25 문의 033-818-3200



- 뉴트로 (NEW+RETRO)**
 - 01 육림고개
 - 02 옛 백양리역
 - 03 옛 김유정역
 - 04 효자동 낭만골목
- 로컬마켓&카페**
 - 10 풍물시장
 - 11 구룡산 카페거리
 - 12 춘천명품관
- 문화·예술 체험 공간**
 - 05 근화동 369
 - 06 이상원미술관
 - 07 KT&G상상마당 춘천
 - 08 책과인쇄박물관
 - 09 붓이야기박물관
- 자연·생태 체험**
 - 13 하중도생태공원
 - 14 해피초원목장
 - 15 물레길

구룡산 카페거리

향기로운 커피 한잔이 여행의 충분한 근거가 되는 요즘, 교통이 편리한 데다 카페거리만 네 곳에 이르는 춘천은 오로지 커피를 목적으로 떠나도 아깝지 않은 도시다. 소양강댐·육림고개·서면·구룡산 카페거리는 각각의 매력으로 여행자를 유혹하는데, 그중 구룡산 카페거리는 전망이 일품이다.

주소 춘천시 등면 순환대로 1154-77 문의 tour.chuncheon.go.kr



물레길

물가만이 아니라 물 위에서 춘천을 만끽한다. 카누에 올라 바라본 춘천은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중도유원지, 봉어섬 등 코스가 다양하고 건너편 삼악산이 풍경에 운치를 더한다. 여러 업체가 영업 중이며 휠체어 이용자도 문제없이 탑승하는, 한국관광공사가 '열린 관광지'로 선정한 곳도 있다.

주소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113-1 문의 033-242-8463





6.10~8.27

이월드 트로피컬 아쿠아 빌리지

'대프리카'로 불리는 대구의 무더위를 날려버릴 이월드의 시원한 물 축제 '트로피컬 아쿠아 빌리지'가 8월까지 펼쳐진다. 축제장 세 구간 중 '아쿠아 빌리지'는 소형 풀과 대형 풀, 유아 미끄럼틀이 있어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고객이 찾기 좋다. '아쿠아 플레이존'으로 발견을 옮겨 신나는 물총 싸움을 한다. 저녁이면 이곳의 얼굴이 또 바뀐다. 디제잉 파티에서 리듬에 몸을 맡긴다.

장소 대구 이월드
문의 053-620-0001

6.12~8.27

Re:023 대전 엑스포93

올여름 대전이 대체로운 이벤트를 마련해 '대유쟁' 도시로 도약한다. 한빛탑 일원 익사이팅 존에서 레일 기차·바이킹·범퍼카를 타고, 각종 오락기를 해 보며 기분을 고조시킨다. 1993년 대전 엑스포를 기념하는 페어리드와 전시회도 마련했다. 7월 30일까지 매주 금·토·일요일 저녁에는 'DMF: W 워터페스티벌'을 진행한다. 마술과 버스킹 공연도 '유쟁' 요소다.

장소 대전 엑스포 한빛광장 일대
문의 1599-6880

6.29~7.9

제27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영화를 사랑하는 이여, 부천으로 가자. 태양의 열기는 시원한 극장에서 식히고, 더위가 한풀 꺾인 밤에는 야외에서 영화를 감상하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가 돌아왔다. 상식을 뛰어넘는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작품을 만날 수 있다. 51개국 영화 262편을 상영하며, 올해는 부천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페어리드·댄스파티·물총 싸움 등을 즐기는 시민 참여 행사 '7월의 카니발'도 진행한다.

장소 경기도 부천시청 일대
문의 032-327-6313



여름엔 축제

낮은 길고 밤은 열기가 식어 밤낮으로 축제를 즐기기 좋은 계절이다.



7.12~16

2023 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

전통 연희와 함께 더위를 잊는다. 국립국악원이 농악부터 무속음악, 줄타기, 탈춤 등 전통 연희의 모든 것을 망라한 '전통연희축제'를 연다. 총관 100명이 각 지역의 대표 탈춤 선보이는 '섞어 짬이' 공연은 놓치지 말 것. 지난해 전통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을 기념한 대형 프로젝트다. 더불어 명인과 차세대 연희자의 흥겨운 무대가 어우러진다.

장소 서울 국립국악원
문의 02-580-3283



8.5

좀비런 부산

좀비만 사는 마을에 인간인 나 홀로 떨어진다면? '좀비런 부산'은 아찔한 상상을 현실에서 체험하는 축제다. 종업원, 경찰, 청소년 등 마주치는 모든 사람이 좀비인 상황. 인간임을 들켜선 안 되기에 좀비를 흉내 내며 함께 어울려야 한다. 평화롭기만 하다면 좀비 축제가 아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 좀비들과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벌여 본다.

장소 부산 영화의전당
문의 @zombierun.korea

8.9~12

비어페스트 광주

주제부터 재미나다. '한여름밤의 맥주 바캉스! 술잔을 비어버려'. 광주에서 열리는 '비어페스트 광주(Beer Fest Gwangju)'에서 시원한 맥주로 일상의 피로와 무더위를 쫓는다. 맥주와 무알코올 맥주를 비롯해 상추튀김 같은 지역 고유의 음식을 고루 준비했다. 맥주 댄·비어 폴 등 볼거리와 캠핑 체험, 가수·DJ 공연, EDM 파티 등 다양한 이벤트가 흥을 돋운다.

장소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장 및 야외 광장
문의 062-611-2164

8.11~14

제16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포항에서 색다른 여름을 맞이한다. 해양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열리는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다양한 경기와 시민 참여 이벤트를 펼친다. 정식 종목은 철인 3종·카누·핀 수영·요트이며, 번외 종목은 고무보트·드래건 보트·바다 수영·비치 사커·수상 오토바이 등이다. 축제를 즐기고자 한다면 해양 스포츠 초보자도 걱정 없다. 카약·바나나 보트·제트 보드를 타고, 생존 수영과 윈드서핑을 배우며 뜻깊은 시간을 보낸다.

장소 경북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송도해수욕장
문의 054-270-3694

8.25~27

2023 청주문화재야행

여름날 저녁, 색다른 산책에 나서 보자. '청주문화재야행'에 참여해 달빛 아래 도심을 걸으면서 문화재를 탐방한다. 올해 주제는 '주성야독(舟城夜讀)', 달빛 아래 청주를 읽다. 청주의 옛 별칭인 '주성'에서 착안했다. 주목할 문화재는 망선루다. 옛 문인이 모여 시문을 지었으며, 일제강점기엔 민족 계몽의 중심이 된 곳이다. 프로그램은 역사 투어 '야로', 문화재를 살피는 '야경' 등 보고 듣고 먹고 쉬는 8야(夜)로 구성했다.

장소 충북 청주 중앙공원, 용두사지철당간 등 원도심 일원
문의 043-219-1129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에 위치한 [소노펠리체 빌리지 비발디파크]

6,000만원대로 누리는 2억원가치의 독보적 혜택 프리미엄 멤버십!!

글로벌 리딩 컴퍼니로 도약하는 대명리조트의 새이름

2023년 소노호텔앤리조트 신규회원모집 (마감임박)

새 브랜드로 글로벌 체인 사업에 나선 **소노호텔앤리조트(구. 대명리조트)**가 **VIP 고객을 대상으로 '이그제큐티브클럽(Executive Club)' 멤버십을 출시했다.** 이그제큐티브 클럽은 럭셔리 호텔 서비스와 실속있는 리조트 서비스를 결합한 프리미엄 회원권으로 식음, 골프, 승마, 요트 혜택 등을 담아 고객에게 스페셜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한다.

소노호텔앤리조트는 국내 최대 규모인 전국 16곳 체인망과 11,000여개가 넘는 객실을 보유하여 업계 1위를 자부한다. 폭넓은 여행지 선정은 물론 레저&스포츠 시설을 신규 회원권 하나로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개인 및 법인 명의로 분양이 가능하며, 이번 이그제큐티브 클럽은 회원제 상품으로써 20년 만기시 전액을 반환 해준다.

이그제큐티브 클럽 멤버십은 기존의 회원권과 완전히 차별화하여 신규 특별 혜택뿐만 아니라 입회 기간 내내 상시 혜택을 제공받는 것이 특징이다. 정회원은 연간 2인 10회 조식 뷔페와 노블리안 라운지 음료 30회가 무료이며, 호텔 내 휘트니스, 수영장, 사우나, 발렛 파킹 서비스 등이 상시 제공된다. 또한 정규 18홀의 소노펠리체 CC(비발디파크 WEST, EAST/델피노), 오션월드, 스키, 승마클럽, 요트 등 다양한 레저&스포츠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소노호텔앤리조트 측은 "타 업체와 다른 전문 교육을 이수 레저컨설턴트가 상담부터 계약 및 예약까지 1:1 회원 전담 관리 체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소노호텔앤리조트 회원권의 가치는 '지속적인 개발과 인수 사업'으로 지난 **2021년 10월 소노펠리체 델피노가 그랜드 오픈했으며, 브레이크힐스** 등이 개발 중이다. 특히 이그제큐티브 클럽 멤버십은 회원권 시장에 없는 **독보적인 혜택을 담은 멤버십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이번 신규회원 모집에 대한 분양 카탈로그를 배송해드립니다. 통화가 어려우실 경우, 문자 메시지로 성함 및 주소를 보내주세요. **H.P 010-4140-6540**

문의전화 **02)2222.5917**
(주말 및 24시간 상담가능)





머릿꼭지



한국 귀신



처녀 귀신, 구미호, 저승사자 말고도 귀신의 종류는 다양하다. 서늘한 여름으로 안내하는 한국 전통 귀신을 소개한다.

철을 먹는 괴물 불가살

불가살(不可殺) 혹은 불가살(火可殺). 죽일 수 없다, 반대로 불에 녹여 죽일 수 있다는 뜻의 이중적인 이름을 가졌다. 쇠붙이를 먹으면 몸집이 커진다. 주식이 철이어서 껌질과 비늘이 창으로 뚫지 못할 만큼 단단하다. 외형은 곰, 코끼리, 호랑이를 섞어 놓은 듯하다. 조선 시대 조재삼이 편찬한 백과사전 <송남잡지> 등에 언급되었고, 약목과 사된 것으로부터 사람을 지키는 수호신 성격을 지녀 지붕이나 굴뚝에 조각하기도 했다.

호랑이가 물어 가면 창귀

호랑이에게 물어 죽어 영혼이 호랑이에 귀속된 혼을 창귀라 한다. 창귀는 호랑이의 종이 되어 시중을 들고, 먹이를 구해 안내해야 한다. 자신의 자리를 대신할 혼을 찾기 위해 가족이나 친구를 불러 호랑이가 있는 곳으로 유인한다. 조선 후기 실학자 박지원이 쓴 <열하일기>에도 창귀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싱어송라이터 안예은이 2021년 발표한 노래 '창귀'에서 자신을 대신할 그녀를 발견해 기뻐하는 귀신을 오싹할 정도로 잘 표현했다.

장난꾸러기 귀신 도깨비

도깨비 하면 뽀얀 달고 방망이를 든 형상을 생각하지만, 한국 설화 속 도깨비는 다르다. 우리가 아는 도깨비의 모습은 일본의 '오니'에 가깝다. 한국 도깨비는 빗자루와 같이 사람이 자주 쓰는 물건에 피가 묻어 탄생하는데, 방망이는 들지 않고 몸에 털이 아주 많다. 사람이 바라볼수록 몸집이 커지는 어둠시니, 도깨비의 왕 두역시니 등 종류도 다양하다. 좋아하는 것은 장난과 메일묵. 도깨비는 상냥하고 선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도 한다.

집을 지키는 신 성주신

사람을 보호하려고 천상에서 내려왔다. 악한 귀신이라기보다는 수호신에 가까운 존재다. 가신이라고도 불리며, 주방을 지키는 조왕신, 뒷간을 담당하는 측신 등과 함께 집에 악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다. 독에 쌀과 같은 곡식을 담아 신을 모시는데, 이것을 성주단지라 한다. 성주신이 집 밖으로 나가면 그 집안이 망한다는 속설이 있어 단지를 아주 소중히 여겼다. '신줏단지 모시듯 하다'라는 말은 이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천년의 예술을 오늘 누리도록

우리겨레협동조합은 전통 공예의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오늘 모두가 누리고, 내일로 잇는 꿈을 꾀다. 이 꿈의 조력자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이다.



프로모션



천년의 예술, 옷칠. 고려 시대의 옷칠 공예품은 지금도 여전한 빛으로 감동을 준다. 단순히 보기 좋은 외형을 넘어 마음을 울리는 신비로운 빛을 지닌 옷칠 작품을 선인들은 사랑하고 아꼈다. 세상이 변해 전통 공예의 맥이 위태로워진 상황에서 이를 안타까이 여긴 이해영 이사장을 중심으로 개인사업자 다섯 명이 우리겨레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숙련된 연구로 완성한 독보적 전통 공예 기술을 분업해 시스템화하고 옷칠 수저, 조리도구, 목기류, 국악기 같은 다양한 제품군을 만들어 '칠몽'이라는 브랜드로 상생과 협업을 이루어냈다. 공방면세점에 입점하는 등 오프라인 판매가 늘어나며 승승장구했지만 코로나19 이후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고 온라인 판로 개척이 절실해졌다. 이때 손을 잡아 준 것이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이다. 우리겨레협동조합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을 통해 대량생산화, 상품 표준화에 힘썼다. 한국 옷칠 공예의 특수성이 사라지는 일을 막고 값싼 수입산에 대항하는 첫 도약이었다. 오프라인 판매에 의존하던 조합은 공동사업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했다. 총

3년간 공동사업에 도전해 지원받게 되었는데, 첫해에는 CI·BI 제작으로 카탈로그를 만들어 브랜드를 알렸고, 소상공인 공동마케팅 사업의 지원을 받아 tvN <수미네 반찬>에 협찬도 했다. 이 PPL로 온라인상에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다. 이 밖에 KBS <편스토랑>, MBC <놀면 뭐하니>, EBS <최고의 요리 비결> 등 다양한 방송에 브랜드를 노출해 인지도를 쌓았다. 올해는 홍보 영상을 제작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게시했고 SNS 광고를 진행했다. 그 뒤 옷칠 제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 문의가 증가하고, 마케팅 이전 기준으로 매출이 200퍼센트 상승하는 효과를 거뒀다. 제품의 생산력과 품질을 인정받아 유통 판매 납품처의 주문 수량 또한 증가했다. "그동안 제품을 만들 줄만 알지 마케팅은 전혀 몰랐다가 전문적인 부분을 도움 받다 보니 소비자가 저희 제품이 고급스럽다고 인식해서 정말 뿌듯하죠. 저희의 꿈은 정성이 들어가 아름다우면서도 실용성 있는 작품으로 전통을 잇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 덕분에 그 꿈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문의 www.chilmong.com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경제의 모세혈관이자 튼튼한 경제의 뼈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는 중이다.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은 장비, 브랜드 개발, 마케팅, 네트워크 등 작은 단위 협동조합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어려워하는 부분을 역량 수준별로 파악해 돕는 사업으로, 맞춤형 지원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사업유예페이지



비밀번호



+ 알뜰하고 편리한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이제 카드에 충전해서 더욱 편리하게 사용한다.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앱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등록해 구매(충전)하는 방식의 상품권이다. 전통시장 소득공제 50퍼센트 혜택은 기본(올해 12월까지), 10퍼센트 특별 할인 판매를 진행하니 쓸수록 이득. 현재 개인 월 구매 한도를 기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조정해 최대 매달 15만 원을 절약하는 셈이다. 지역 경제를 살리고, 가게에도 보탬이 되는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이 모두를 함께 웃게 한다.



제로 웨이스트를 향해, 레벨제로

친환경과 지속 가능성. 레스토랑에서 이를 어떻게 구현할까? 레벨제로의 데니 한 셰프는 제로 웨이스트를 목표로 나아가는 중이다.

식재료 선정부터 조리 과정, 식기와 공간 구성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다. 환경을 덜 훼손하기 위한 고민을 거듭해서 그렇다. 쓰레기를 재활용한 식기를 사용하고, 오로지 풀만 먹여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키운 쇠고기를 전남 장흥 목장에서 가져오는 정성을 들인다. 레스토랑 곳곳은 친환경 메시지를 내포한 작품으로 가득하다. '레벨제로'의 데니 한 헤드 셰프는 호주에서 쌓은 요리 경험과 예술에 대한 관심을 공간에 망라했는데, 여기에 제로 웨이스트 구현이란 목표를 보탤다.

친환경, 까다롭지만 당연한 식당 이름 때문에 오해를 받곤 합니다만, 제로 웨이스트를 레스토랑 콘셉트로 기획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을 콘셉트로 잡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해요. 호주에서 10년간 일하

며 요리사로서 환경을 대하는 자세를 배웠습니다. 캐주얼한 식당에서조차 친환경을 실천하거든요. 저는 음식을 만들고 남은 자투리나 당장 사용하지 못할 식재료는 장기 보관 가능하도록 숙성하거나 건조하는 등 다른 형태로 만들어 다 쓰려 노력합니다. 이를테면 자투리 고기를 발효하고, 전복 내장과 지느러미를 건조해 소스를 만듭니다. 간을 맞추거나 감칠맛을 돋을 때 가미하죠. 채소류는 피클·식초·청을 담그기도 해요. 두고두고 사용 가능한 데다 다른 메뉴에 접목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달걀 껍데기로 만든 그릇, 해변에 버려진 비닐을 녹여 만든 용기 등을 재활용한 식기를 사용합니다.

건강한 메시지 식재료를 선정할 때 생물이 자연으로 돌아올 시간을 떠올립니다. 특히 해산물은 자연산보다는 양식을 소비하려 해요. 해양 생물 개체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입니다. 개체가 많은 생선을 쓰고, 지속 가능한 양식어업 제도인 ASC(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인증을 받은 전복을 구매합니다. 미래 식량으로 불리는 식용 곤충 밀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밀웜으로 만든 비스킷 사이에 따뜻하게 녹인 마시멜로를 얹어 먹죠. 맛은 일반 비스킷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직접 환경을 논하면서 교훈을 주고 싶지 않아요. 다만 식재료 손질이나 조리 과정에서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고, 재생지로 만든 조명 등 무심코



고민과 정성을 농축한 레벨제로의 메뉴

'폴로만 소'는 전남 장흥의 '폴로만목장'에서 가져온 쇠고기로 만든 떡갈비예요. 자투리 고기를 모아 발효한 소스로 간을 해 감칠맛이 풍부합니다. 식용 꽃과 제철 쌈 채소를 꽃다발처럼 표현했어요. 레벨제로의 시그니처 메뉴를 꼽자면 '가든타르트'입니다. 계절마다 얼굴을 달리하는 정원의 열매·잎·나무·흙 등을 형상화했죠. '연잎 전복'은 '연의 모든 것'이라는 부제를 붙이고 싶어요. 연근·연꽃·연잎까지 통째로 활용합니다. 토종 쌀인 흑강에 연잎과 다시마 등을 더해 밥을 짓고, 연근 주스와 전복 껍데기 진액으로 간을 합니다. 전복 살은 연꽃에 싸서 향을 입혀요. '펜넬 디저트'는 펜넬 씨와 칩·피클, 산양유로 만든 소르베, 펜넬 주스로 만든 거품 순으로 쌓았어요. 맨 위에 올라간 버블은 펜넬 주스를 내고 남은 찌꺼기를 혼연했습니다. 버블을 터뜨리면 연기가 나와 재미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데니 한 셰프가 추천하는 미식 공간
먼저 경기도 여주에 있는 **결구쟁이네**를 소개하고 싶어요. 강원도 가는 길에 꼭 들르는 식당입니다. 사찰 음식이 콘셉트인 곳이어서 건강한 한식을 좋아하는 분이 라면 만족스러워하실 거예요. 한 상 차림이 입을 즐겁게 합니다. 서울 마포에 자리한 **황금공밭**은 담백한 음식이 생각날 때 찾습니다. 두부가 정말 맛있어서 생두부를 따로 주문할 정도예요. 계장을 즐겨 먹어 서울 강남에 있는 **계방식당**도 종종 방문합니다.

데니 한 십 대에는 운동선수였다. 스무 살, 바리스타를 꿈꾸며 떠난 호주에서 인생의 향로가 바뀌었다. 설거지 아르바이트로 지원한 곳과 연이 닿아 요리사의 길로 접어들었다. 호주의 프렌치 기반 파인다이닝 '뷔드몽' 등에서 일했고, 세계적인 레스토랑 '아티카'의 헤드 셰프를 지냈다. 10년간의 호주 생활을 뒤로하고 지난해부터 서울 레벨제로 헤드 셰프로서 특장적 요리 세계를 펼치고 있다.

레벨제로 (Level: 0)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15길 B1-20 ☎ 010-2284-5979 @0_dining



지나칠 법한 곳곳에 친환경 요소를 배치했습니다. 거부감 들지 않게 간접적인 방법으로 친환경 메시지를 전하고자 해요.

모두가 참여하는 공간 레벨제로는 다이닝 쇼룸입니다. 총 세 곳으로 나눈 공간을 이동하면서 식사하는 동안 요리사의 모습을 연극처럼 감상할 수 있도록 구상했어요. 소극장의 관객과 배우처럼 소통하는 거죠. 여기 오신 손님들께 다양하고 색다른 경험을 하게 해 드리고 싶어요. '채집' 메뉴도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식기를 들고 정원에 나가 식물을 수취하고, 자연을 본뜬 음식을 담습니다. 식물을 채집하라고 말씀드리면 가지를 꺾거나 잎을 뜯지 못하고 어려워하시는데, 향기를 맡고 촉감을 느끼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시라 설명합니다.

예술 작품은 나의 힘 쉬는 날에는 전시를 보러 다닙니다. 작품을 감상하면 기분이 환기돼서 좋습니다. 단순히 일상의 피로를 해소할 뿐 아니라 아이디어를 얻기도 해요. 셰프 역시 창작을 해야 하는 직업이기에, 틀에서 벗어난 사고가 필요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다양한 작가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기도 하고요.

신토불이! 토종 농산물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땅에서 나는 식재료를 잘 보존하는 것이 지속 가능성의 일환 아닐까요. 토종 곡물 씨앗을 연구하는 '더불어 농원'에서 곡물을 공급합니다. 사용량이 적은 편이라 조금씩 다양하게 이용합니다. 현재 전복 메뉴에 들어가는 흑강이라는 토종 곡물은 쌀 끝부분에 검은빛이 돌고 단맛이 나는 쌀입니다. 산삼, 더덕, 버섯 등 산에서 나는 식재료도 좋아해요. 앞으로도 다양한 토종 식재료를 접목해서 특별한 요리를 만들고 싶어요. **ik**





맛집 탐방

강진

editor. 강은주 photographer. 신규철

康

건'강'하고 게미'진' 강진 여름 보양식 기행

먹으러 떠난다. 맛의 고장, 전남 강진에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 줄 네 가지 음식을 만났다.

* '게미'는 '깊고 고소한 감칠맛'을 뜻하는 전라도 사투리다.



津



☞ 연탄 불고기 백반 2인 3만원
☞ 강진군 병영면 병영성로 107-10 ☎061-432-1027



병영시장 옆에 자리한 수인관은 연탄 불고기 백반 단일 메뉴로 운영하며, 택배로도 주문 가능하다.



수인관 500년 세월 동안 호남을 지켜 온 전라병영성은 병영면 일대의 역사와 문화와 풍속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병영 돼지불고기도 그 증거 중 하나다. 조선 시대 강진 현감이 전라병영성 병마절도사로 부임한 조카를 축하하러 간 자리에서 대접받은 음식이 바로 이 돼지불고기였다. 지위가 낮아도 웃어른인 현감을 맛있는 요리로 극진히 모셨다는 병마절도사 이야기를 되새기며, 병영면 사람들은 귀한 손님을 맞을 때 돼지불고기를 내는 전통을 이어 왔다. 강진 현감처럼 떡 떨어진 돼지불고기 한 상을 맞이하고 싶다면 병영시장 한쪽에 자리한 '수인관'으로 간다. 수인산 자락의 여관이자 식당이었던 이곳은 1대 이복림 대표가 백반 1인분에 2500원 하던 시절부터 손님을 먹이고 거뒀으며, 현재는 2대 신성준 대표가 어머니를 거들어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굽는다. 이 집 돼지불고기는 강한 연탄불에 골고루, 빠르게 익히는 게 특징이다. 고춧가루와 갖은 비빔 양념을 넣고 버무린 돼지불고기를 하루 동안 숙성한 뒤에 구워 육질이 부드럽고 씹을수록 촉촉하다. 함께 나오는 토하젓과 멸치젓을 곁들이면 풍미가 한층 농밀해진다. 밑반찬도 걸작이다. 족발, 흥어, 주꾸미, 묵은지, 생선구이, 철마다 바뀌는 나물까지 화려한 상차림 앞에 젓가락이 바빠 움직인다.

TRAVEL TIP
바다와 산과 들이 너적하고 비옥해 예부터 육해공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식재료를 사용해 온 강진. 푸짐한 한 정식 한 상 차림은 강진 여행의 첫 관문이며, 장어구이부터 찜꿍어탕에 이르는 '강진 10대 먹거리'가 여행자를 풍요로운 미식의 길로 인도한다. 음식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축제도 여럿이다. 병영면에서 금요일과 토요일마다 여는 '불금불파(불타는 금요일 불고기 파티)', 마량항에서 토요일에 펼쳐지는 '마량 놀토수산시장'이 맛과 흥으로 넘실거린다.

02 도반



☀ 코스2 선정(禪定) 1인 5만원, 점심 특선 1인 1만 6000원
 📍 강진군 강진읍 오감길 2 오감누리타운 3동 ☎ 061-432-6665



☀ 소낙비 1만 2000원 물회 2인 4만원
 📍 강진군 마량면 미향로 136 ☎ 061-433-3044

궁전회집 '마량에 가고 싶다'란 노래 제목을 빌들자면, 마량에서 '소낙비' 먹고 싶다. 소낙비란 질 좋은 '소'고기를 구워 '낙'지뎃밤에 올리고 제철 채소와 '비'벼 먹는, 오직 강진 마량항에서만 즐길 수 있는 음식이다. 파인애플과 매실, 황칠 등 재료로 효소를 만들어 넣은 양념이 기막히는데, 26년간 식당을 이끌어 온 김성신 대표가 연구한 결과물이다. 달짝지근하면서도 알근한 맛이 혀를 즐겁게 한다. 자연산 농어와 전복을 송덩송덩 썰어 먹음직스러운 물회도 빠지면 아쉬운 메뉴다. 시원하고 달콤한 육수가 목달미를 식힌다.



03 마량회집



도반에서는 식사 메뉴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장 담그기, 반찬 만들기 등 다양한 시연과 강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반 도반이란 '함께 도를 닦는 벗'이다. 이곳에서 도는 채식주의다. 강진읍 오감동에 최근 문을 연 사찰 음식 체험관 '도반'은 꿀조차 사용하지 않는 온전하고 엄정한 비거니즘을 추구한다. 서울 양재동에서 음식을 연구해 온 홍승 스님은 사찰식의 근간인 '로컬 푸드'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 했고, 이것을 몸소 실천하고자 머나먼 강진 땅에 다다랐다. 기르고 수확하고 조리하고 맛보는 모든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는 기쁨이란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에서의 한 끼만큼 값지고 총명한 경험일터. 여름에 더 맛있는 냉잡채는 텃밭에서 갓 딴 깻잎과 상추, 적양배

추를 채 썬 뒤 당면과 비벼 먹는 별미다. 채소 본연의 싱그러움 내음과 아삭아삭 씹어 넘기는 쾌감이 매력적인 메뉴로, 배즙 넣은 겨자 소스를 부어 산뜻함을 더한다. 셀러리와 수삼을 버무려 시원한 향을 내는 수삼냉채는 더위에 무더진 미뢰를 일깨우고 입맛을 살린다. 구운 가지로 새싹을 동그랗게 만 가지새싹전, 잘게 간 잣 소스로 달콤한 더덕을 무친 더덕잣샐러드, 매실액과 전분만으로 표고버섯튀김을 코팅해 바삭한 식감을 살린 표고탕수까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여름 식탁이 눈, 코, 입을 즐겁게 한다.

04 석문정



☀ 회춘탕 4인 13만원
 📍 강진군 도암면 백도로 2059-7 ☎ 061-434-6660

석문정 얼마나 영양이 풍부한지, 먹고 나면 힘이 돌아온단다. '강진 회춘탕' 얘기다. 당귀, 헛개, 가시오가피 등 열두 가지 한약재 달인 물에 문어, 전복, 닭을 넣고 한 시간 이상 푹 고아 내어 완성. 국물은 구수하고 진득하며, 잘 익은 전복과 문어는 쫄깃하기가 이를 데 없다. 도암면 석문산 아래 자리한 '석문정'의 채희송 대표는 강진 회춘탕의 명맥을 잇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이곳에선 닭 대신 오리를 선택해 색다른 맛을 즐겨 보아도 좋다. 예닐곱 가지 밑반찬이 올라 넉넉한 한 상 앞에서 마음이 너그러워진다.



하루 동안 정원을 바라보며
머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는 유원재
수안보가 품은 아름다운 풍경과 심신에 파스칼을 더하는 온천,
진정성이 담긴 공간적 체험을 통해 도심에서 느낄 수 없는
온전한 물입의 휴식을 선사합니다.



물입 가능한 휴식



숙성 간장과 들기름이 빛은
고소한 풍미

풀무원 들기름 메밀 막국수 3.5점

김현정 처음에 한 젓가락 했다가 바삭한 무언가가 씹혀 깜짝 놀랐다. 설명을 읽어 보니 볶은 메밀이라 한다. 정성은 고맙지만 툭툭 튀는 식감이 면 요리에 잘 어울리는지는 모르겠다. 밥과 팝콘을 같이 먹는 느낌... ★★★ / 강은주 여름, 메밀국수를 서른 그릇쯤 해치운다. 하루 세끼는 물론 간식으로도 먹는다. 정량의 양념과 고명을 넣으면 딱딱 완성되는 이 제품의 존재가 반가를 따름이다. ★★★★★ / 옥송이 들기름 국수는 처음 먹어 본다. 비록 인스턴트 제품으로 입문했지만, 꽤 괜찮은 첫발이라고 생각한다. 쫄쫄하고 고소하다. 그런데 먹을수록 면의 물기가 사라져 목이 막히는 게 아쉽다. ★★★ / 남혜림 비빔면 먹을 때마다 매운 음식에 약한 막냇동생의 표정은 울상이었습니다. 그런 동생에게 만들어 주고픈 제품입니다. 통깨가 씹혀 고소함이 올라와요. ★★★★★

3.0점 하림 더미식 비빔면

김현정 닭고기 유명한 하림이 비빔면을 만들었다기에 궁금했다. 음... 뭐가 다르지? 기존 비빔면과 성분까지 비교 해 봤으나 역시 그냥 평범하다. 비빔면 많은 세상에 비빔면 하나 보냈네. 원재료 중 치킨엑기스HR이 하림의 흔적인 가... ★★★ / 강은주 같은 브랜드 라면의 농밀한 국물을 좋아한다. 비빔면의 풍미도 제법 목직하다. 산뜻하다기보다 구수하달까. 과채를 육수와 섞었다는 설명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 / 옥송이 라면 특유의 면 냄새가 많이 나진 않는다. 여름에 어울리는 매콤 새콤한 맛이라는 건 인정한다. 그러나 투 머지 새콤 같다. 신맛이 강하게 느껴져 불호...입니다. ★ / 남혜림 "내가 바로 비빔면의 정석이다!"라고 외치는 듯한 이 제품. 새콤한 데다가 매운 것이 취약 인 저에게도 문제없는 맛입니다. 얼씨구나, 좋다. 울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너랑 나. ★★★★★



과채 육수로 맛을 낸
매콤 새콤한 양념장의 비빔면

세상 즐거운 수행, 면식 수행

더위에 지칠 땀 후루룩, 시원하게 먹는 면이 제격이다.



김치 발효 육수와 동치미 국물의
컬래버레이션

아워홈 열무김치말이국수 3.6점

김현정 한 입 먹는 순간, 창밖의 하늘이 더 하늘색이 되고 구름도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것 같은 몽게구름으로 보였다. 김치는 아삭아삭, 국물은 새콤 달달. 창문 열고 선풍기 틀고 이 국수 한 그릇이면 딱 여름날의 행복이겠다. ★★★★★☆ / 강은주 서울 무교동에 사랑하는 김치말이국수 가게가 있다. 새콤달콤한 그 집 국수와 달리 이 제품은 시큼하고 개운한 맛이 특징이다. 첫입엔 낯설었지만 먹다 보니 자꾸 당긴다. ★★★ / 옥송이 시큼과 새콤 사이. 인상이 찌푸러질 듯 말 듯, 아슬아슬 경계에 있다. 그래도 면과 먹으니 김치 국물이 잘 어울린다. 고명으로 얹은 열무김치가 가장 맛있다. ★★ / 남혜림 드디어 왔다. 직접 김치말이국수를 만들지 않아도 깊은 감칠맛을 느낄 수 있는 시대가. 새콤함 100점, 열무김치도 100점. 여기에 삼겹살 곁들이면... 그곳이 바로 천국. ★★★★★

4.4점 청정원 콩담백면 콩국수

김현정 식품 회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낀다. 밀가루 없이 만든 면의 식감은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기꺼이 노력하고 싶다. 물을 끓일 필요조차 없는 콩국수인데, 국물이 끝내 쥐요. ★★★★★☆ / 강은주 서울 서소문동, 모두가 사랑하는 그 집 콩국수가 생각나는 계절이다. 울여름엔 좋은 대안을 찾았다. 고소하고 진한 국물, 잘근잘근 씹히는 두부면, 간단한 조리 과정까지. 완벽한 여름 간식이다. ★★★★★ / 옥송이 솔직히 이건 말도 안 된다. 물에 분말을 탄 콩국 주제에 정~말 고소하다. 게다가 짹짹하게 간도 돼 있다. 아시죠? 콩국수는 간이 생명입니다. ★★★★★ / 남혜림 여름날 종종 콩국을 따로 사서 마실 정도로 콩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콩으로 만든 면은 아닌가 봐요. 면 식감이 당황스럽기만 하네요ㅠ 콩국 맛은 150점 드립니다. ★★★



두유로 만든 두부면과
콩국의 건강한 만남



뜨거운 안녕, 대구

'대프리카' 대구가 기념품 '핫플'로 거듭났다. 대구에서의 추억을 뜨겁게 아로새길 근사한 기념품을 모아 보았다.

대구

1
콧
즈

(수성못 관광안내소) 두꺼비 산란지인 수성못에서 사랑스러운 두꺼비 캐릭터 두꺼비를 만난다. 수성못 관광안내소는 '떡두꺼비 민화 우산'부터 '사랑해 카메라'에 이르는 28종의 두꺼비 기념품을 선보인다. 그 중 가장 손질이 가는 건 스트레스 볼 '조물조물 두꺼비'. 까르르 웃는 얼굴의 두꺼비 인형을 조물락거리는 동안 기분이 덩달아 유쾌해진다.

문의 053-761-0645

(이플릭) 대구에서 태어난 스트리트 패션 편집숍 이플릭의 스테디셀러는 대구 티셔츠다. 영문 로고 'DAEGU'와 전화 지역 번호 '053'을 써 넣은 티셔츠가 해마다 '완판'을 기록한다. 브랜드 '헬로 선라이즈' '다크 룸 스튜디오'와 협업해 디자인한 대구 모자도 시선을 끈다. 티셔츠에 모자를 매치해 온몸으로 대구 사랑을 외친다.

문의 010-9870-6280



©이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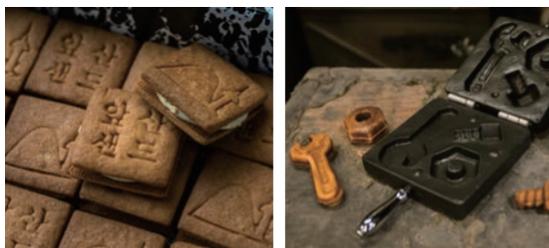
2
술

(대구탁주) 1970년 창립한 대구탁주는 오늘날 66개 회사가 회원으로 등록된 향토 막걸리 제조 기업이다. 신제품 '불로섬 생 막걸리'는 동구 불로동의 '불로'에 '섬'을 더한 이름처럼 푹푹하고 향긋한 첫사랑의 설렘을 맛으로 구현했다. 부드럽게 한 모금 넘기면 바닐라 향과 장미 향이 감돌고, 이내 산뜻한 탄산과 달콤함이 올라와 입안 가득 흐드러진다.

문의 053-985-4723

(대도양조장) 중구 김광석 거리 한편, 버려진 채 오랜 세월을 지나 온 막걸리 양조장 건물이 수제 맥주를 빚는 브루어리로 부활했다. 대표 맥주는 벨기에 트리플 에일 '80(팔공)'이다. 짐작하겠지만, 지난 5월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에서 영감을 얻은 이름이다. 조청을 첨가해 은은하게 배어나는 바나나·배·꽃 향기가 기분을 끌어올린다.

문의 053-352-2345



(보정당) 반야월 앞산 커피 거리의 터줏대감 보정당이 대구 시그너처 디저트 공모전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작은 '앞산샌드'. 반야월 특산물인 연근을 첨가한 비스킷에 바닐라 버터 크림과 캐러멜 헤이즐넛, 커피 가나슈 등을 넣어 씹는 재미가 있는 디저트를 완성했다. '앞산'이라는 지명과 지역 명소를 무늬로 새기는 등 정체성을 공고히 했다.

문의 053-962-5827

(팩토리 09) '한강 이남 최대 공구 거리'라는 수식어, '도면만 있으면 탱크도 만든다'라는 소문의 주인공 북성로 공구 거리. 디저트 카페 팩토리 09는 오늘날 이곳에 홀로 남은 주물 공장 선일포공과 협력해 빵틀을 제작, 공구 모양 마들렌을 만든다. 이름하여 북성로공구빵. 스페너, 볼트와 너트처럼 생긴 빵은 촉촉하고 폭신평신했던 반전 매력을 지녔다.

문의 010-3077-7465

3
간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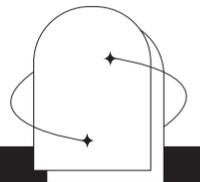


일상이 여행이 되는 순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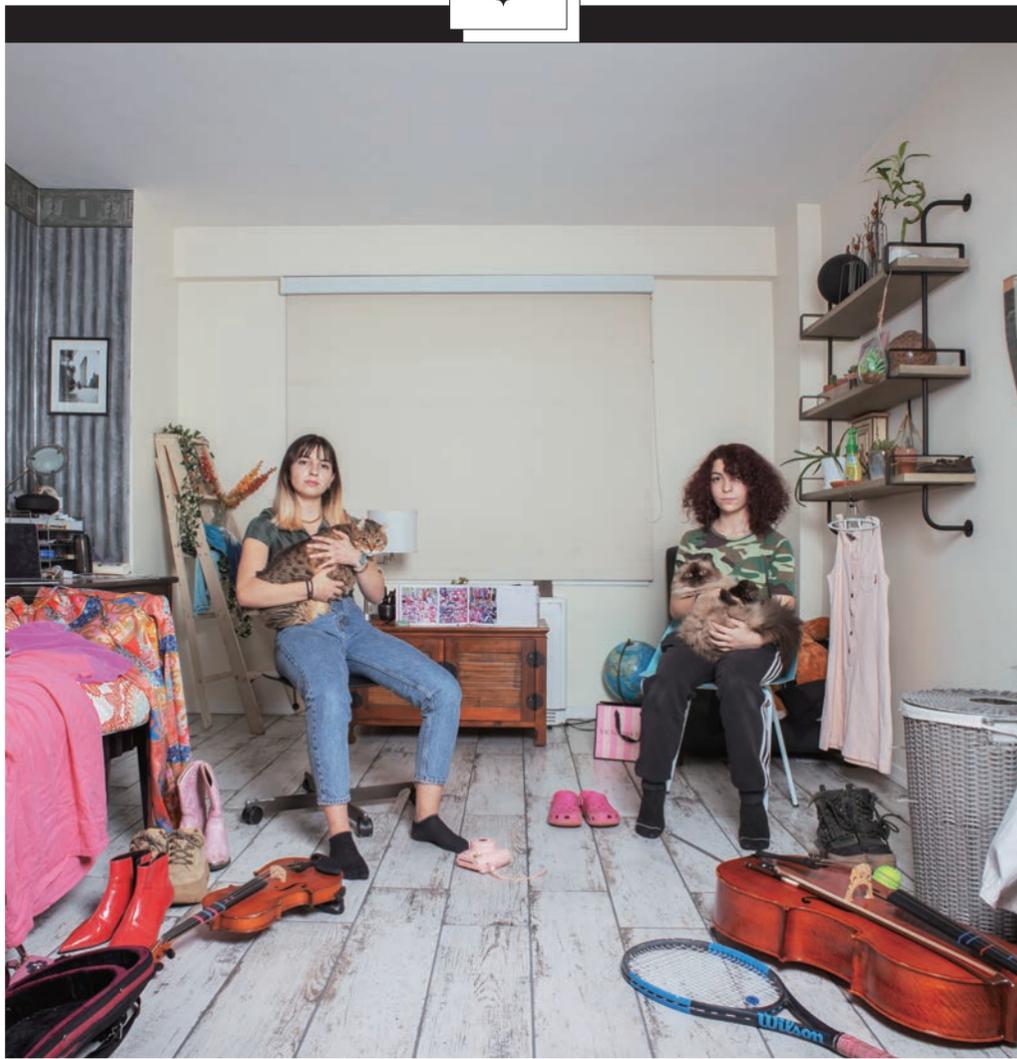


[H.Point 간편가입 바로가기]

본 QR코드를 통해 현대백화점그룹 통합멤버십 H.Point 신규 가입 시 현대프리미엄아울렛김포점에서 사용 가능한 10/20/40만 5%플러스포인트 쿠폰이 증정 됩니다.



what's up



윤정미, 핑크 프로젝트 4 - 로렌과 캐롤린, 뉴욕, 미국,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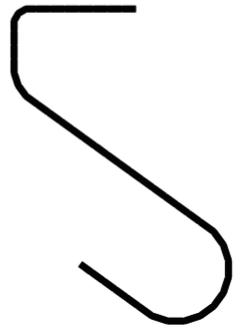
• EXHIBIT •

제21회 동강국제사진제

영월	→	07.21~09.24
----	---	-------------

영월이 사진의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연다. 축제는 동강사진상과 전국 초등학생 사진 일기 공모전 시상으로 시작한다. 올해는 사진가 윤정미가 한국 사진을 널리 알린 이에게 주어지는 동강사진상의 영예를 안았다. 메인 전시인 국제 주제전도 놓칠 수 없다. 이탈리아 사진계 거장 열 명의 유명 작품 140여 점을 한국 최초로 선보인다. 영월군의 주요 거리를 오픈 갤러리로 활용해 사진 설치 프로젝트도 진행하니, 이 고장에 예술의 향기가 가득 차오르겠다.

장소 강원도 영월 동강사진박물관 외 문의 033-375-4554



2023.04.20
-08.20

서울시립미술관
SEOUL MUSEUM OF ART
서울특별시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에드워드
호퍼 길
위
에서



Edward Hopper: From City to Coast
Co-Organized by Seoul Museum of Art and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New York
에메문의 INTERPARK 1544-1555



whats up



• EXHIBIT •

<문준용: Augmented Shadow>

→ 광주 → 06.09~07.30

전시장의 반짝이는 빛이 관람객을 부른다.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의 첫 실감 콘텐츠전으로, 그림자 증강현실과 인터랙티브 아트를 활용한 문준용의 작품 '어그멘티드 섀도(Augmented Shadow): 별을 쫓는 그림자'를 선보인다. 작가가 개발한 특수 제작 장치 트래커가 관람객의 위치를 감지하고, 관람객의 동선을 따라 다음 이야기가 진행된다. 빛, 그림자, 관람객과 전시 환경이 어우러져 하나의 작품으로 거듭난다.

장소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문의 062-613-6126



© 2023 Heirs of Josephine Hopper / Licensed by SACK, Seoul

• EXHIBIT •

<에드워드 호퍼: 길 위에서>

→ 서울 → 04.20~08.20

미국 현대미술 작가 에드워드 호퍼의 생애를 그의 작품으로 엿본다. 미국 뉴욕 휘트니 미술관과 공동 기획한 전시는 뉴욕과 프랑스 파리 등 그가 머물던 도시와 반려자 조지핀 호퍼 등을 주제로 구성된 일곱 개 섹션으로 나뉜다. 고독한 도시에서 자연으로 회귀하며 활동을 이어간 흔적이 두드러진다. 회화, 드로잉, 판화, 유화 등 작품 총 160여 점과 관련 아카이브 110점으로 작가의 작품 세계를 조망한다.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문의 02-2124-8800



ROMANCE ETERNITY: FLOWERS in bloom



23. 06. 20. T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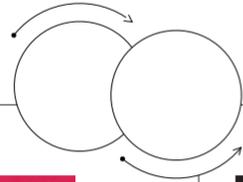
영원
낭만
꽃

23. 11. 05. SUN

협력기관



전남도립미술관
JEONNAM MUSEUM OF ART



what's up



• SHOW •

<오페라 카르멘>

● 부산 ● 07.13

프랑스 작곡가 조르주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의 아리아를 소프라노 박현진, 메조소프라노 김예원, 테너 허동권, 바리톤 강경원이 부르고, 이 곡과 관련한 '팜 파탈'과 카르멘의 이미지를 표현한 그림 등을 소개하며 풍부한 해설을 곁들인다. 오페라와 그림 해설이 맞물린 렉처 콘서트다.

장소 부산문화회관
문의 051-607-6000



• FESTIVAL •

통영연극예술축제 2023

● 통영 ● 07.07~16

연극과 예술이 만드는 화합의 장이 열린다. 1930년대 일제강점기, '탄스'에 빠진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은 아트브릿지의 연극 <조선 탄스홀>이 축제의 문을 연다. 이 외에도 전래 동화 뮤지컬 <팔죽할멈과 호랑이>,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아버지의 상자> 등 다양한 극단의 공연과 행사가 관람객을 기다린다.

장소 경남 통영시민문화회관 외
문의 055-645-6379



• SHOW •

<무풍>

● 남원 ● 07.15

'일거수일투족'을 주제로 펼치는 전통 춤이 우리안의 흥을 끌어낸다. 옛 여성 농악단을 복원·계승한 연희단 팔산대의 대표 공연 '무풍'이 관객에게 인사하고, 김정현의 '상쇠춤', 정명희의 '민살풀이춤' 등 한국 전통 무용 한마당이 이어진다. 소리꾼 장사익의 소리도 일품이다.

장소 전북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
문의 063-625-4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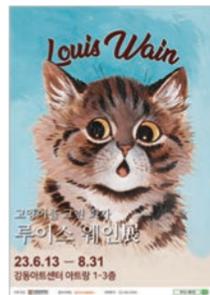
• FESTIVAL •

태백 해바라기축제

● 태백 ● 07.21~08.15

구와우마을 사람들이 대지라는 캔버스에 해바라기의 노란색을 칠한다. 마을 주민이 직접 가꾼 해발 800미터 지대 해바라기밭에서 방문객은 인생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다. 꽃 구경과 더불어 즐기는 태백 숲 해설 프로그램, 다육식물 심기 체험 등 흥미로운 부대 행사도 준비했다.

장소 강원도 태백 구와우마을
문의 033-553-9707



• EXHIBIT •

<고양이를 그린 화가: 루이스 웨인>

● 서울 ● 06.13~08.31

사랑스럽고 독특한 고양이 그림으로 유명한 영국 작가 루이스 웨인의 작품을 모았다. 루이스 웨인의 깜찍하고 귀여운 원화와 판화는 물론, 미디어 아트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도록 전시장을 꾸몄다. 그의 초기 동물 삽화부터 기괴한 후반기 작품까지, 온갖 고양이 그림 속에서 뛰노는다.

장소 서울 강동아트센터
문의 02-440-0500



2023 LCK SUMMER FINALS

presented by 우리은행

FAN FESTA

8월 18 - 20일 | DCC대전컨벤션센터 제 1전시장

GRAND FINALS
& Low Bracket Finals

8월 19 - 20일 | DCC대전컨벤션센터 제 2전시장



떠나요, 함께, 섬으로



아웃도어 전문 여행 작가이자 바지런한 건기꾼 4인이 지금 거닐기 좋은 섬을 추천해 주었다.



신비로운 풀등 산책과 부아산 등반

하루에 두 번씩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풀등을 만나러 간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맨발에 닿는 '갓 태어난' 백사장의 감촉은 그 어떤 해변에서도 느껴 본 적 없을 것이다. 그뿐인가. 해발 162미터에 불과한 부아산 전망대의 풍경은 놀라울 만큼 장쾌하다.

가는 법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해야 한다. 고려고속훼리(www.kefship.com) 또는 대부해운(www.daebuhw.com)에서 운항하는 배편이 있으니 일정에 맞는 것을 골라 탑승한다.

#인천 #대이작도

이준휘 <대한민국 섬 여행 가이드> 저자

경이로운 풍광, 행남 해안산책로와 관음도 탐방

도동항에서 저동으로 이어지는 행남 해안산책로는 기암절벽과 쪽빛 바다 사이를 누비는 경이로운 체험을 선사한다. 연도교를 건너 울릉도 부속 섬 중 가장 큰 무인도인 관음도에 가면 주상절리가 보이는 해안 절벽을 따라 섬을 한 바퀴 걸을 수 있다.

가는 법 크루즈가 취향에 여행길이 편리해졌다. 경북 포항 영일만항에서 가는 울릉크루즈(www.ulcruise.co.kr), 울진 후포항에서 출발하는 울릉선플라워크루즈(www.jnferry.com) 중 선택한다.

#경북 울릉 #울릉도

이준성 <대한민국 자동차 캠핑 가이드> 저자

제주 서쪽 끝, 섬 속의 섬 여행

수월봉 앞바다에서 보이는 이 섬은 석양으로 유명하다. 바람결에 역사와 띠가 춤추는 광경은 황홀하고, 제주 본섬과 한라산을 바라보며 걷는 초지대 길은 특별한 행복을 안긴다. 고산리 주민들이 직접 만든 등대가 섬 풍광의 구심점을 이룬다.

가는 법 우선 고산리 자구내포구에서 차귀도 가는 유람선(064-738-5355) 간편을 찾아 본다. 배 안에서 섬을 유람하는 코스와 섬에 내려 곳곳을 탐방하는 코스, 두 가지로 운영한다.

#제주도 제주 #차귀도

이승태 <제주 오름 트레킹 가이드> 저자

12사도 순렛길, '섬티아고' 산책

이 길은 길이면서 길이 아니다. 갯벌에 난 길은 바닷물이 들어오면 홀연히 사라지고, 물이 빠지면 보란 듯 다시 생긴다. 이곳이 기적의 순렛길이라 불리는 이유다. 5개 섬에 흩어진 12개의 작은 예배당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가는 법 압해읍 송공항에서 해진해운(061-261-4221) 뉴드림·천사이일랜드호를 타거나, 지도읍 송도항에서 슬로시티 2호(010-4604-5252)를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전남 신안 #소악도·대기점도

진우석 <대한민국 트레킹 가이드> 저자

여름휴가를 계획하는 여러분께 <대한민국 섬 여행 가이드> <대한민국 자동차 캠핑 가이드> <제주 오름 트레킹 가이드> <대한민국 트레킹 가이드>를 선물합니다.

친절하고 다정한 여행 안내서 네 권을 만나고 싶다면, 지금 바로 <KT매거진> 인스타그램 @ktmagazine을 팔로하고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기간 7월 1일~14일**

[EVENT] 같이 여행해요, 아름다운 대한민국

여름휴가를 계획하는 여러분께 <대한민국 섬 여행 가이드> <대한민국 자동차 캠핑 가이드> <제주 오름 트레킹 가이드> <대한민국 트레킹 가이드>를 선물합니다. 친절하고 다정한 여행 안내서 네 권을 만나고 싶다면, 지금 바로 <KT매거진> 인스타그램 @ktmagazine을 팔로하고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기간 7월 1일~14일**



명상하며, 산책하며 경기도 양평에서 보낸 하루

뜨거운 별을 피해 몸과 마음을 식히고 싶은 시간, 경기도 양평의 호젓한 공원과 산책로를 따라 걷고, 기도하며, 사유한다.

WALK, PRAY, AND REST



자료 제공 경기관광공사, 하이패밀리

→ 첫 번째 걸음, 성경의 벽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통곡의 벽'이라는 거대하고 장엄한 구조물이 있다. 유대교 성지인 이곳에는 신앙을 가진 이는 물론, 수백 명의 여행자가 모여 든다. 역사의 흔적을 온 감각으로 더듬어 살피고 묵상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다. 지난 4월,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안데르센공원묘원에 이와 비견할 만한 건축물이 들어섰다. 이름은 '성경의 벽'. 길이 83미터, 최고 높이 7.7미터 규모로 보는 이를 압도한다.

읽고, 거닐며, 되새기다

정면에서 마주한 성경의 벽은 범선의 우아한 뱃머리를 닮았다. 그 미려한 만들새가 마음을 절로 엄숙하게 한다. <직지심체요절>과 그레고리력, 영화 속 장면 등 한눈에 보기 어려운 사물이나 관념을 한데 펼쳐 놓기로 이름난 설치미술가 전병삼의 솜씨다. 벽면 가까이 다가갈수록 감흥은 한층 커진다. 정방형 스테인리스틸 패널 6770장에 각인한 구약과 신약 성서 66권의 모든 문장이 나뭇잎처럼 팔랑거리며 반짝이기 때문이다. 이 벽 앞에서 는 누구든 종교를 떠나 신의 은총을 오롯이 느낄 것이다.

148만 9210자. 성경의 벽에 쓴 글자를 다 헤아리면 이만큼이다. 훈민정음



체로 음각한 곧고 정직한 글자를 하나하나 읽어 나가니, 마음속 사사로운 상념은 어느새 눈 녹듯 사라진다. 마음 가는 문장 옆에 머물며 시간을 보내거나,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이르는 글줄을 느긋하게 훑어 내리며 걸음을 떼어 본다.

삶을 일깨우고 죽음을 애도하는 시간

성경의 벽이 올라선 안데르센공원묘원은 한국 최초로 조성한 어린이 자연 장지다. 세계 소아암의 날을 기려 2019년 2월 15일 개장했으며, 소아암으로 세상을 떠난 어린이를 수목장으로 추모할 수 있도록 장지를 무상 제공한다. 2020년 10월에는 '정인이 사건'의 고 정인 양을 안치해 지금까지도 수많은 추모객이 방문하고 있다. 자연의 품에서 생과 사의 맞닿음을, 구원과 희망의 정경을 바라보는 시간. 한여름 햇살이 목덜미에 내려앉을 때, 따스한 평화와 안식이 우리를 슬픔에서 건져 올린다.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도장리 산 32 ☎ 031-772-3223

→ 두 번째 걸음, 구둔역 폐역

1940년 영업을 시작했으나 2012년 폐역이 된 구둔역. 역무실과 대합실 공간을 짐작할 수 있는 건물은 지난 5월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새 단장을 마쳤다. 소박한 지붕을 얹은 아담한 건물과 아름다 리 나무가 그림 같은 풍경을 이루니,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남기기에 더할 나위 없다. 영화 <건축학개론>에 역사가 등장해 유명해지기도 했다. 경기옛길 평해길의 제9길 구둔고갯길 시작점이라 걷기에 집중할 여정을 계획하기에도 맞춘다.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일신리 1336-9 ☎ 031-771-2101

→ 세 번째 걸음, C아트뮤지엄

조각가 정관모의 작품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예술품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16만 5000여 제곱미터(약 5만 평) 규모를 자랑하는 부지엔 실내 미술관과 야외 조각 공원, 삼림욕장이 펼쳐져 손님을 반긴다. 하이라이트는 정 작가가 코르텐강으로 제작한 22.5미터 높이의 조각상 '지저스 크라이스트'다. 미술 작품이 주는 시각적 즐거움 속에서 걷고, 명상하고, 휴식하다 보면 일상의 묵은 때가 서서히 씻기는 기분이 든다.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다락근기길 57-13 ☎ 031-775-6945



권근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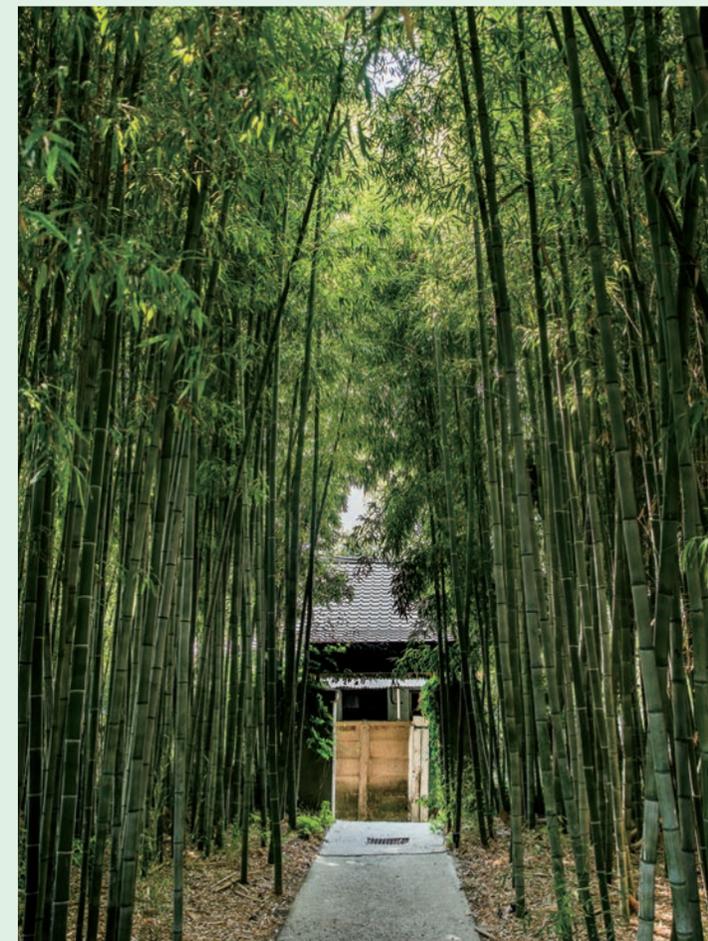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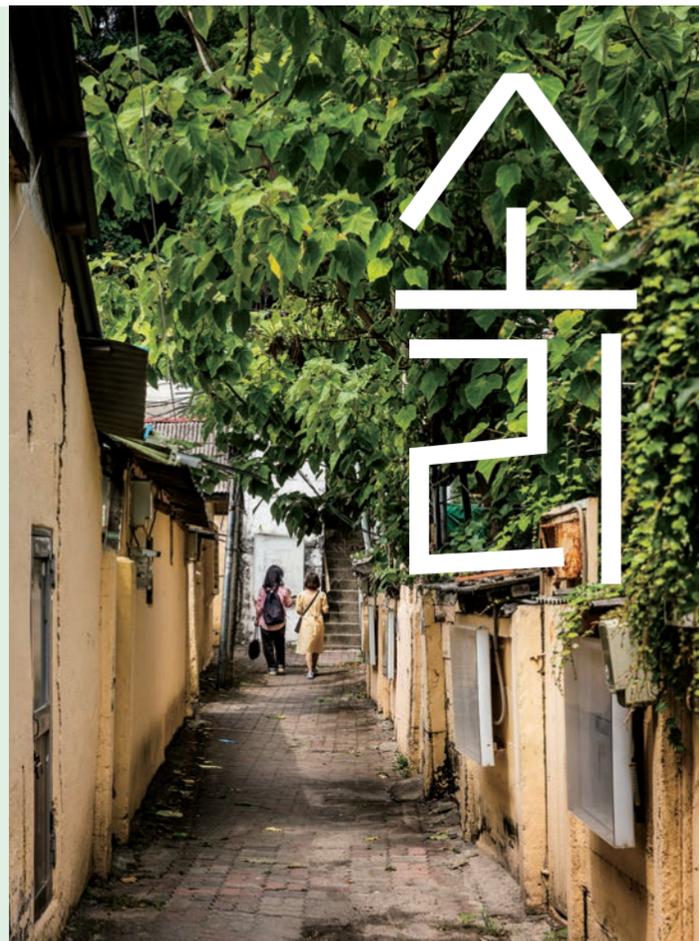
SUMMER

슬기로운 여름 생활

철도와 함께 자란
마을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도심 속 수목원에서
숲 향기를 만끽했다.
대전에서 보낸
어느 여름날을 펼친다.

대전





대전역 승강장에 도착한 KTX가 잠시 숨을 고른다. 그사이 승객들은 객차에 오르고 내린다. 다음 목적지를 향해 갈 시각인지, 호흡을 가다듬은 기차가 미끄러지듯 역을 빠져나간다. 기차 꿈무늬가 멀어진 후에야 천천히 역을 둘러보았다. 빈 철길에는 훗훗한 바람이 들어왔다. 공기가 머금은 물기나 아지랑이 같은 것으로 우리는 계절이 무르익었음을 실감한다. 저만치 떨어진 곳에 열기로 일렁이는 철길이 이 도시에 여름이 도착했음을 말해 주었다.

기차 하면 대전, 대전 하면 기차

역에서 차로 불과 5분을 이동했을 뿐인데 한적한 마을과 맞닥뜨린다. 졸졸 흐르는 개울 옆에는 물풀이 무성하게 자랐고, 강 주변에는 지붕 낮은 집이 웅기종기 모였다. 눈길 닿는 곳마다 어린 시절 여름방학의 추억이 떠오르는 소재동에 닿았다. 분명 기차역을 옆에 둔 도심 한가운데이건만 마을 분위기는 교외로 나온 듯 소박하고 정겹다. 이곳을 설명하는 단어 하나를 덧붙이자면, 그건 바로 관사촌이다.

1901년, 일본이 조선을 서서히 흡아매던 때 일제의 주도하에 경부선 철도 공사가 이뤄진다. 1904년 대전역을 짓고 1년 후에 경부선이, 10년 후에는 호남선이 개통한다. 큰 발을 뜻하는 대전의 옛 이름 '한밭'처럼 농지만 존재하던 고장에 기차가 다니는 역이 생겼으니 일대가 발전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농촌이던 대전은 철도를 발판 삼아 빠르게 변해 갔다.

소재동은 이 시기가 가장 큰 변화를 직면한 곳 중 하나다. 일제는 대전역 주변에 철도 관련 종사자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소재호를 메우기로 한다. 호수는 땅이 되었고, 물고기 대신 사람이 땅 위에 자리 잡았다. 1910년대 10여 채로 시작해 1930년대 40여 채에 이르기까지 대전역 동·남·북쪽에 총

☞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대전역까지 1시간 정도 걸린다.



기차역을 바로 옆에 둔
도시 한가운데이건만
교외로 나온 듯 소박하고
정겹다. 소세동은 어린 시절
여름방학의 추억을
떠오르게 한다.



SOUND

음악과 사람들의 대화, 쭈르르 대동천 흐르는 소리가 동네를 잔잔하게 채운다. 어느 곳을 걸어도 흐뭇한 소리가 가득하다.

세 곳의 관사촌이 들어섰다. 다시 시간이 흘러 해방을 맞고, 오래 지나지 않아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 여파로 남쪽과 북쪽의 관사촌은 무너졌지만 동쪽 관사촌에 해당하는 소제동 일부는 간신히 그 위기를 피해 갔다.

관사촌과 기차의 기억은 알록달록한 철도 벽화, 철갑교에 쓰인 가요 '대전 블루스'의 가사로 소제동에 남았다.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가는 새벽 열차 대전발 영 시 오십 분". 짧은 가사에는 흥미로운 대전의 철도 역사가 담겼다. 1959년 당시 서울역에서 전남 목포역으로 가는 마지막 완행열차가 밤 8시 40분에 출발했는데, 이 열차를 타면 대전역에 도착하는 시각이 0시 40분이었다. 열차는 대전에서 기관차의 방향을 바꾸는 등 정비 작업을 거치고 10분 후인 0시 50분에 남쪽을 향해 달렸다. 이러한 역사와 유행가 '대전 블루스'에서 착안한 '대전 0시 축제'가 올해 8월 도시의 밤을 밝힐 예정이라니, 어느 때보다 시원한 여름이 되겠다. 반짝거릴 축제를 상상하며 마음으로 가사를 곱씹는다.

철도 관사촌에서 새로운 소제동으로

철갑교를 건너 소제동의 옛 모습을 보기 위해 동쪽으로 걸음을 옮긴다. 뻑뻑하게 모인 집 사이에 골목이 나 있고, 길을 따라 들어가자 등성등성 목조 관사가 드러난다. '제53호'. 관사에 번호를 매긴 나무 패가 시선을 끈다. 색은 바래도 여전히 집 벽면에 단단히 걸린 채다. 1930년대에 지은 건물

이 다사다난한 시간 속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방치되고 먼지 쌓인 관사촌을 보존하려 앞장선 것은 시민이다. 그들의 주도 아래 2017년 도시 재생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쓰임을 잃은 관사나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을 거쳐 소제창작촌, 소제마켓 등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예술가를 초청해 전시를 여는 등 마을에 활기가 돌았으나, 아쉽게도 그 흐름은 오래가지 못했다. 소제동 일부가 재개발된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이대로 소제동이 망각이라는 호수에 가라앉는 게 싫었는데, 대전 시민의 끈기는 대단했다. 소제동을 사랑하는 이들이 설립한 민간 도시 재생 기업 '관사마을 주식회사' 등이 마을을 살리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애정 어린 정성은 결국 꽃을 피운다. 이곳의 역사를 콘셉트로 한 카페와 식당이 들어서 여행자를 모으더니, 그 규모가 커져 소제동 카페 거리라는 별명까지 얻은 것이다. 버려진 대밭을 가꾸어 가게의 상징으로 활용한 찻집 '퐁뉴가'는 관사를 복원하고 단장해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무궁화차, 산딸기차 등 퐁뉴가만의 블렌디드 티를 내세워 소제동을 방문하는 이에게 인기 만점이다. 반려견 식당·카페이자 훈련소도 겸하는 '견우재'도 소문이 자자하다. 미로 같은 골목을 지나면 한옥을 개조해 단아한 건물과 넓은 마당이 반려견과 사람 모두를 끌어안는다. 반려견에게 특별한 음식을 먹고 싶은 이들이 주로 이곳을 찾는다.

가장 눈여겨볼 곳은 '관사 16호'다. 목조 건축물 특유의 아담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방문자를 편안하게 한다. 이곳은 주로 전시나 행사가 열리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예약 절차를 거치면 누구나 활용 가능하다. 2019년 복원을 마쳐 관사 내부 구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한옥과 다르게 온돌이 없어 땅과 바닥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이나 다다미방 등 흥미로운 건축적 특징이 엿보인다. 건물에서 나오자 음악과 사람들의 대화가, 대동천 가까이에는 물 흐르는 소리가 동네를 잔잔하게 채운다. 어느 곳을 걸어도 소제동에 흐뭇한 소리가 가득하다.

<KTX매거진> × MBC라디오 <노중훈의 여행의맛>

대전에 다녀온 <KTX매거진>이 MBC 표준FM <노중훈의 여행의 맛>을 통해 독자, 청취자 여러분과 만납니다. 기자의 생생한 목소리로 취재 뒷이야기, 지면에 미처 소개하지 못한 여행 정보를 함께 들려 드립니다.
* 7월 1일 오전 6시 5분(수도권 95.9MHz)
* QR코드를 스캔하면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소제동 관사촌

대전 동구 소제동은 기차와 함께 발전한 도시의 역사를 품은 곳이다. 1920~1930년대에 조성한 철도 관사촌이 지금은 시민의 주도 아래 리모델링을 거쳐 문화 공간, 카페 등으로 재탄생했다. 복원에 심혈을 기울여 당시 모습을 고스란히 재현했다.
문의 070-8633-8180





향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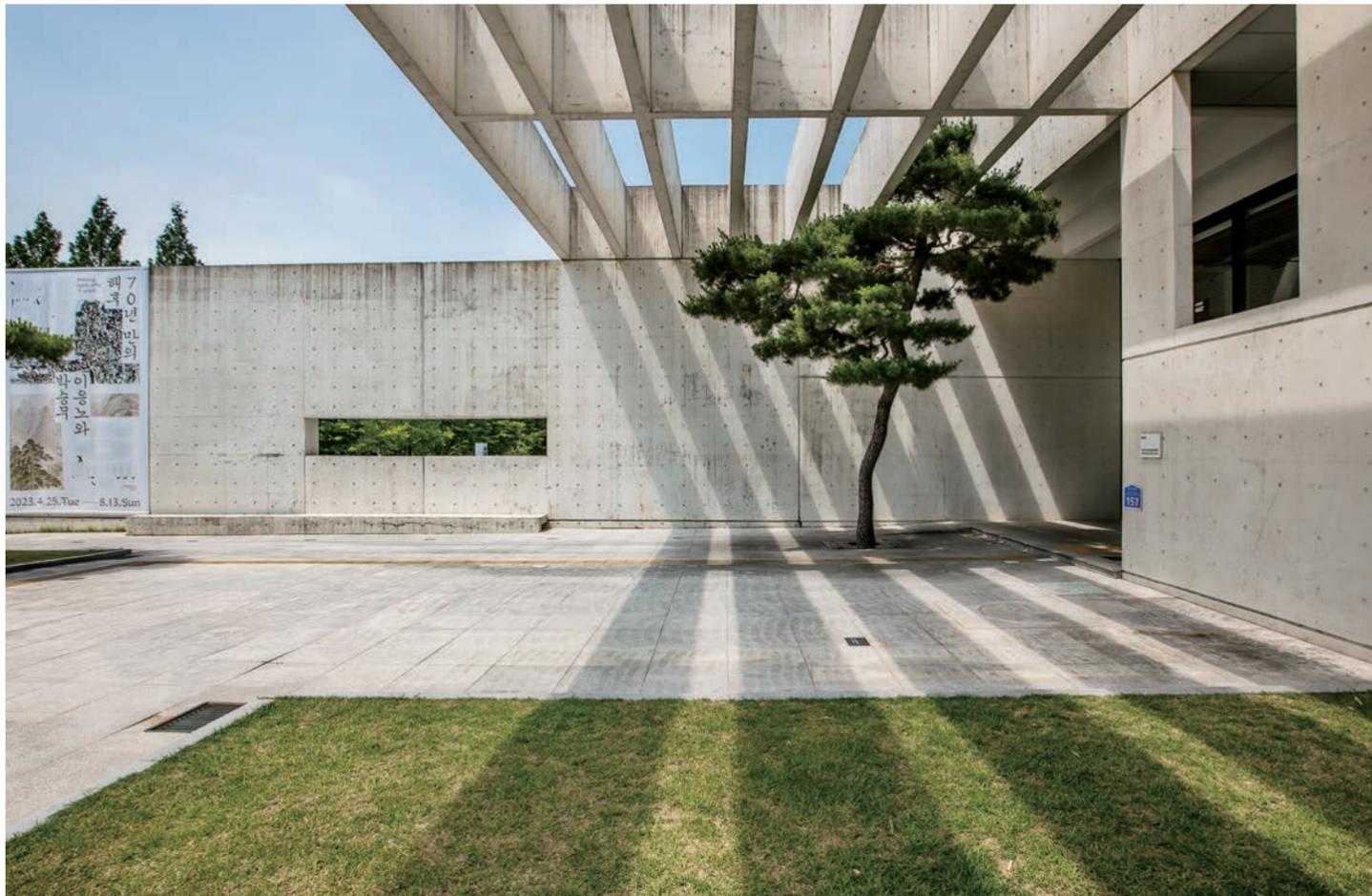
도시 안의 숲, 한밭수목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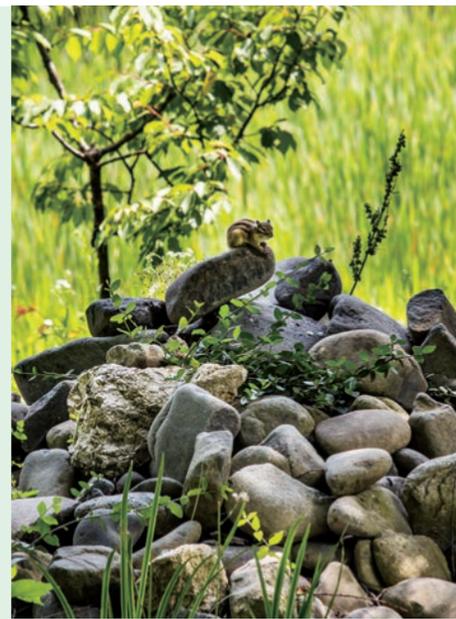
태양이 하늘 한가운데에 앉았다. 나뭇잎의 초록이 짙어지고, 꽃들은 마음껏 기지개를 켜다. 자연의 노래를 가까이에서 듣고 싶을 때 사람들은 도시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선택하지만 대전은 그 반대다. 이곳에서는 도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숲과 마주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대전시립미술관, 이응노미술관 등이 모인 문화 예술 단지를 지나 수목원 잔디 광장에 들어서니 세상이 온통 푸르러진다. 방금 전까지 아른거리던 거대한 건물과 빌딩 대신 크고 작은 나무와 풀이 시야를 채운다. 일순간 부는 바람에 잎사귀가 스치는 소리와 흙 내음이 밀려온다. 꼭 다른 세계에 발을 들인 것 같다.

동원과 서원으로 나뉘는 한밭수목원은 41만 3220제곱미터(약 12만 5000평) 규모의 인공 수목원이다. 1993년 대전세계박람회가 열렸을 때 이곳은 주차장으로 쓰였다. 행사가 끝나자 수많은 방문객을 맞이했던 주차장은 텅 비었고, 쓸모를 다한 부지의 활용이 과제로 남았다. 근처에 정부대전청사가 위치해 관공서가 들어설 수 있었으나 도시 안에 수목원을 조성하기로 한다. 2005년 동원이 먼저 개원하고 4년의 시간이 흘러 서원이 생기면서 한밭수목원은 지금의 모습을 갖춘다. 2011년에는 열대식물원 돔까지 지어 다채로운 식물의 보고를 완성한다. 사람이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부터 차근차근 가꾼 결과였다.

계룡산, 식장산의 생태를 옮기려 노력했다는 서원의 나무 그늘 아래를 천천히 거닌다. 시작은 작디작은 묘목이었을 것이다. 어느새 하늘을 가릴 정도로 자라난 나무들이 신기하고도 고맙다. 연꽃, 부들 등 수생식물로 꾸민 습지원에는 수련이 한창이다. 꽃이 여기저기 물 밖으로 고개를 내민 모습에 배시시 웃음이 나온다. 물가에는 왜가리 한 마리가 고개를 주억거리며 먹이를 잡는다. “언제부턴가 새들이 수목원을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골칫덩이였던 황소개구리도 잡아먹어 주어서 이곳 생태에 큰 도움이 됐죠. 겨울에는 철새들도 오고 간답니다.” 한밭수목원에서 6년을 근무한 나은선 숲해설가가 뿌듯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열은 미소에서 생명을 향한 그의 애정이 묻어난다. 수목원은 사람의 휴식처이자 여러 생물의 터전이기도 하지만, 식물 자원을 수집하거나 보호하고 증식하는 역할도 맡는다. 수목원 구석을 잘 살피면 울타리를 친 작은 발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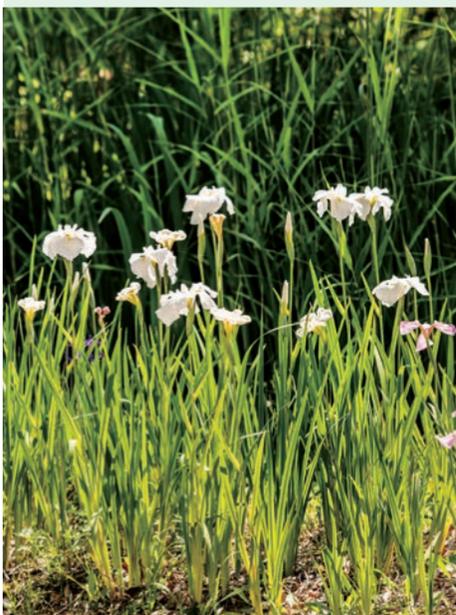




한밭 수목원

×

이맘때 짙은 초록색으로 단장하는 한밭수목원은 도심 속 휴식처 역할을 한다. 장미와 샤프스타데이지로 눈길을 모으던 수목원이 다음 계절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하다. 7월에는 연꽃, 수련 등이 만발한다.
문의 042-270-84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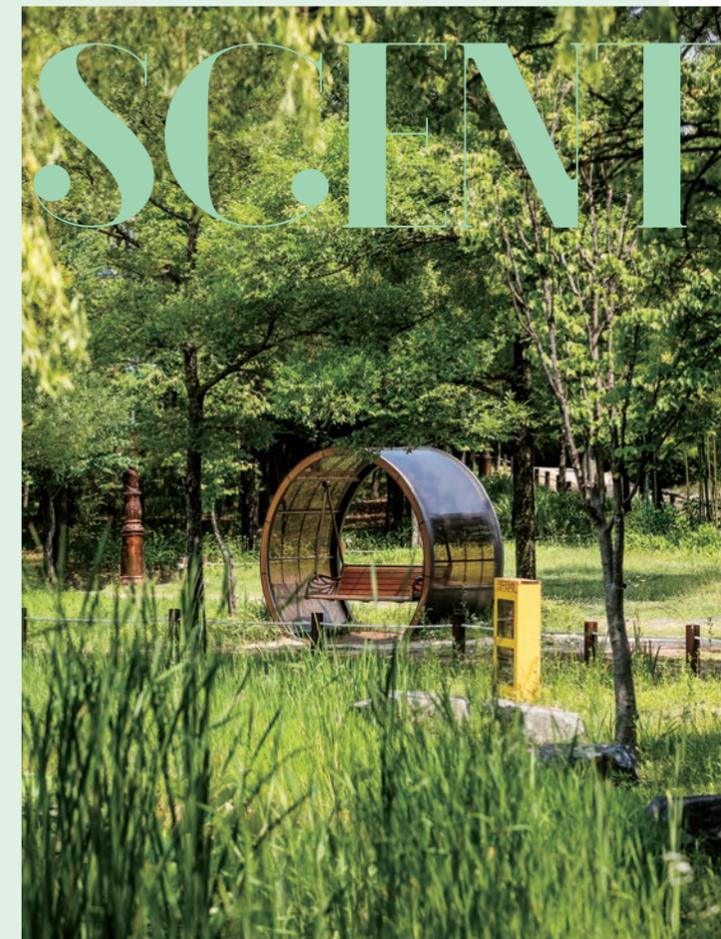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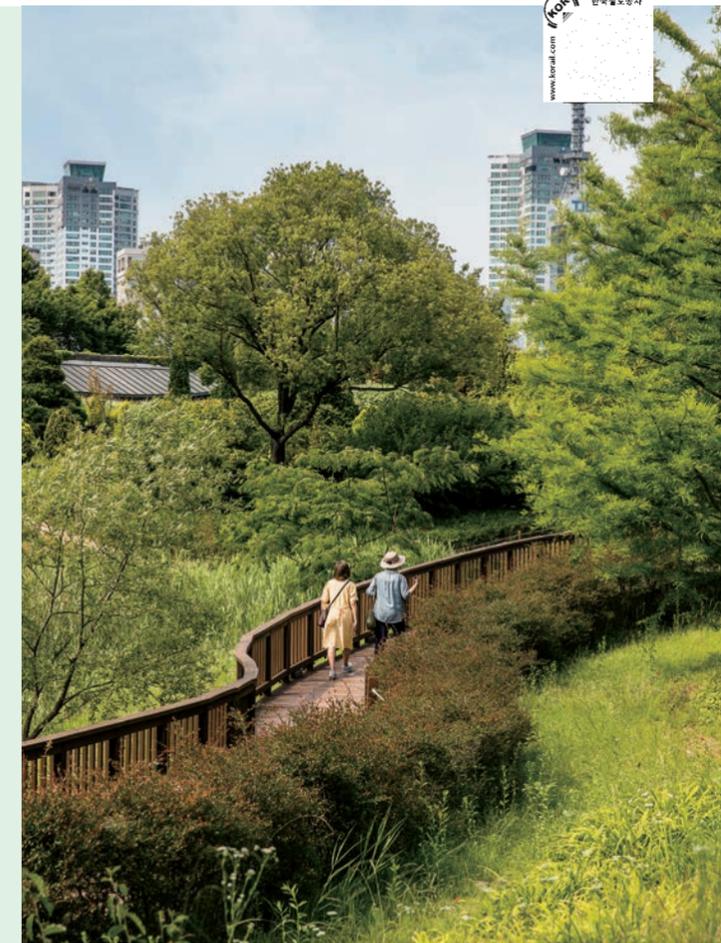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종 보존원이다. 채집하거나 분양받은 식물을 여기서 재배한 다음, 수목원 생태계에 녹아들게 돕는다. 인간은 자연에 해만 끼치는 존재라는 생각이 조금은 바뀌었다. 이곳에서 공생하는 방법을 찾은 것만 같아 발걸음이 한결 가볍다.

동화 속 정원 같은 동원

한밭수목원 서원이 대전의 자연을 닮았다면, 동원은 요정이 집으로 삼을 듯 아기자기한 테마 정원으로 꾸몄다. 제일 먼저 여행자를 반기는 것은 장미원이다. 울타리와 조형물을 둘러싼 덩굴장미가 은은한 향기를 뿜어내고, 연보라와 푸른빛이 도는 오묘한 블루문, 용암처럼 붉고 탐스러운 라바글루트 등 스무 종이 넘는 장미가 카메라를 꺼내게 한다. 장미원 바로 옆에 자리한 허브원도 자꾸만 발길을 붙잡는다. 페퍼민트, 세이지, 로즈메리 같은 여린 허브가 다치지 않게 살포시 쓰다듬고 손에 남은 향기를 들이마신다. 허브 향 덕분에 기분이 상쾌해진다. 자연이 조향한 향수에 폭 빠져 한참 킁킁거리고 나서야 걸음을 땀다.

세차게 물을 뿜는 분수가 지면을 서늘하게 식힌다. 인공 호수 둘레길 옆, 누군기는 모르고 스쳐 지나갈 풀밭에도 꽃들이 소소하게 피었다. 이름이 궁금해 걸음을 멈추고 팻말을 자세히 살핀다. 붓꽃, 낮달맞이꽃, 개망초, 섬초롱꽃... 다음번에 마주쳤을 때 반갑다며 인사하고 싶었다. 잊지 않고 불러 주고 싶은 마음에 속으로 몇 번이고 그 이름을 되새긴다.

수목원에서 가장 높은 곳에 조성한 암석원에 올랐다. 바위와 침엽수로 단장한 정원 꼭대기에 오르니 시야가 활짝 트이고, 드넓은 서원이 한쪽에 담긴다. 반대편에는 대전을 상징하는 한빛탑, 그리고 도시를 둘러싼 계족산·식장산이 맨눈으로 보인다. 사람이 쌓은 도시와 수목이 어우러진 풍경에 '공존'이라는 단어가 절로 떠올랐다. 맑은 공기를 크게 들이쉬며 경관을 감상한다. 대전이 아니면 이러한 그림을 어디서 볼까. 또다시 바람에 흩과 풀 내음이 밀려온다.



언덕 위에서 바라본 도시

암석원을 맴돌던 바람은 대전천 줄기를 따라가다 대동천으로 방향을 틀었다. 빌딩과 지붕을 넘고 언덕을 올라가 이윽고 대동하늘공원에 닿는다. 고개가 아플 정도로 올라다보야 했던 빌딩도, 언덕 부근에서 종을 울리는 학교도 하늘공원에서는 조그마한 크기로 변한다. 공원은 해발고도 120미터에 놓였다. 놀랄 만큼 높은 위치는 아니나 이 부근을 굽어보기에는 충분한 높이다. 공원에서는 도시가 마치 장난감처럼 느껴진다. 어떤 곳에는 불이 켜지고, 반대쪽에서는 차들이 줄지어 움직인다. 도시를 배경으로 두고 선 풍차도 정취를 끌

어울리는 데 한몫 보낸다. 사람들은 알록달록한 풍차 주위를 돌며 대전의 모습을 눈에 담고, 지금 이 순간을 카메라에 남긴다. 누군가의 추억이 이곳에 또 하나 새겨지는 순간이다.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사위가 고요해진다. 우거진 나무에 숨은 삐꾸기와 꾀꼬리의 노래가 문득 공간을 울린다. 구름 뒤에 숨었던 해는 천천히 서쪽으로 넘어가고, 파랗던 세상이 오묘한 색으로 변한다. 적당히 낀 구름과 황혼에 물든 도시, 여기에 운치를 더하는 풍차가 펄 어울린다. 공원에도 하나둘씩 조명이 켜진다. 대전은 곧 까만 보자기에 덮일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별만큼이나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이 보자기에 수를 놓겠다. 도시에서의 어느 여름날이, 서서히 밤을 맞이하고 있다. ㉠

바라본

바라본





Daejeon, Immersed in Summer

My summer day in Daejeon unfolded with the city's history intertwined with the railroad and woody aromas in an urban arboretum.



The KTX train arriving at Daejeon Station stops to catch its breath, leaving time for passengers to board and disembark. Having regained its composure, the train smoothly departs the station. In the distance, the heat shimmering on the railroad tracks announces the arrival of summer in this city.

Daejeon, a City of Trains

Soje-dong, located in the heart of the city next to the train station, has a modest and charming atmosphere. It is also where railway officials resided in the past. The construction of the Gyeongbu Line began in 1905 when Korea was under Japanese rule, and Daejeon Station was built in 1904. Daejeon was formerly called Hanbat, which literally means a “large field.” The area, comprised mostly of farmlands, saw rapid developments with the opening of the new train station. Soje-dong underwent major transformations during this period. The Japanese authorities filled the Soje Lake to provide a base for railway workers. Not long after Korea was liberated, the Korean War broke out. The majority of railroad villages collapsed in its aftermath, but Soje-dong managed to survive.

I crossed the Cheolgaggyo Bridge and walked eastward to admire the historical side of Soje-dong. As I enter the alley, the wooden barracks come into view. These buildings were constructed in the 1930s but still stand tall thanks to the efforts of citizens who worked to preserve the village. In 2017, as part of an urban regeneration project, some unused barracks and old houses were remodeled into cultural spaces. However, this trend did not last long due to news of parts of the village being redeveloped. Soje-dong could have ceased to exist, but the Daejeon citizens showed remarkable tenacity. Trendy cafes and restaurants emerged under the theme of the city's history, and Soje-dong Cafe Street has become a popular attraction today.

Hanbat Arboretum, an Urban Forest

The world turns into beautiful shades of green as I enter the main plaza of the arboretum. The typical view of massive buildings and skyscrapers has been replaced with trees of various sizes and lush grass. Hanbat Arboretum is an artificial arboretum divided into the East Garden and West Garden. It was a parking lot when the Daejeon Expo was held in 1993. The city decided to transform the unused site into an arboretum when the event ended. The East Garden opened in 2005, followed by the West Garden. I took a leisurely stroll in the West Garden, where efforts were made to transplant the ecological features of Gyeryongsan Mountain and Sikjangsan Mountain. The lotus flowers and water lilies of the wetland pond are in full bloom. I am delighted to spot a solitary heron hunting for prey. The East Garden is a charming themed garden that reminds me of a fairy's abode. I am first welcomed by the Rose Garden. The rose vines emit a lovely fragrance, and the Blue Moon and Pink Peace roses make me reach for my camera. From the highest rock garden, I get a panoramic view of the East Garden. Hanbit Tower, the symbol of Daejeon, is standing tall in the distance. The harmony of the city and arboretum naturally brings to mind the word “coexistence.”



The City Viewed From the Hill

Daedong Sky Park is located at 120 meters above sea level. While not extremely high, it provides a good view over Daejeon. The city almost looks like a toy when viewed from the park. The streets begin to light up, and a long line of cars is moving in traffic. The wind turbine in the park adds to the atmosphere. As the sky darkens, I feel a sense of tranquility. The city tinged with twilight is more charming than ever. My summer day in Daejeon is seeping into night. 🌃



대전에서 여기도 가 보세요



즐길 거리



2023 대전 0시 축제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대전역과 중앙로 일원에서 열대 야를 물리칠 '꿀잼' 축제가 열린다. '잠들지 않는 대전, 꺼지지 않는 재미'를 주제로 여는 축제는 가요 '대전 블루스'의 가사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가는 새벽 열차 대전발 영 시 오십 분"에서 착안했다. 축제 이름처럼 오후 2시부터 밤 0시까지 신나는 행사가 끊이지 않는다. 퍼레이드와 군악대가 선사하는 공연, '대전 블루스' 리메이크 플래시몹 댄스, 매일 0시 정각에 펼쳐지는 피날레 퍼포먼스 쇼 등 화려한 여름 축제가 방문자를 기다린다.

문의 042-270-3977



2023 LoL 챔피언스 코리아(LCK) 서머 결승전 올여름을 뜨겁게 달굴 한국 최대 규모의 e스포츠 대회 LoL 챔피언스 코리아(LCK) 결승전이 8월 20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라이엇 게임즈가 개발한 롤(LoL)은 '리그 오브 레전드'의 약칭으로, 한국에서 가장 인기 높은 실시간 전략 게임이다. 이번 리그에서는 페이커가 이끄는 T1, 초비가 속한 젠지 등 총 10개 팀이 '2023 LoL 월드 챔피언십' 진출권을 놓고 치열한 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열정 넘치는 e스포츠 경기를 직접 관람하며 특별한 추억을 새긴다.

문의 042-867-9640

먹거리



락사 동화 <정글북>의 주인공 모글리를 키운 늑대 락사. 락사가 모글리에게 안식처가 되어 준 것처럼, 가게를 찾는 손님이 편안함을 느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상호를 정했다. 고소한 냄새가 침을 고이게 하는 오징어 먹물 리소토는 먹물을 첨가한 크림 리소토 위에 오징어 한 마리를 그대로 올렸다. 쌀과 보리를 섞어 툇툇 터지는 식감이 재미를 더한다. 계, 새우를 활용한 비스크 소스가 들어가 해산물의 풍미가 가득한 비스큐 빠네 파스타와 궁합이 그만인데,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 식빵을 사용한 점이 인상적이다.

문의 042-721-3500



광천식당 오징어 두루치기, 두부 두루치기, 수육. 이곳은 오직 세 가지 음식으로 손님을 맞는다. 이 메뉴로 대전 선화동 골목을 48년째 지키고 있다는 말에서 자부심이 드러난다. 음식이 나오면 그릇이 작아 보일 정도로 푸짐한 양에 한 번, 매콤하면서도 깊은 감칠맛에 두 번 놀란다. 큼지막한 오징어 또는 두부를 즐긴 후, 칼국수 사리를 추가해 비벼 먹는 것이 이곳 두루치기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이다. 돼지 사태나 앞다릿살을 한 시간 이상 푹 삶아 아들이들한 수육도 두루치기와 떼어 놓을 수 없는 짝꿍이다.

문의 042-226-4751

프로모션

파나소닉 안마의자의 가치, 더 기분 좋게 누리는 방법

7월, 1년에 오직 한 번뿐인 보상 판매 기간이 찾아왔다. 사용하던 안마의자를 지금 교체하면, 할인 가격으로 파나소닉 안마의자 전 제품의 놀라운 기술력을 경험할 수 있다.



더위에 온몸이 늘어지는 계절이다. 가벼운 공인 산책부터 등산까지 야외 활동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 느긋한 휴식과 이완의 시간이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다. 목직한 어깨와 목덜미, 빠근한 팔과 다리를 안마의자에 맡겨 보면 어떨까. 마침 파나소닉이 안마의자를 보상 판매하는 이벤트를 7월 31일까지 진행한다. 기존에 사용하던 안마의자를 파나소닉 제품으로 교체하는 경우, 제품을 할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행사다. 잦은 신체 움직임으로 인한 피로감, 만성피로와 긴장으로 뭉친 근육을 풀고 나면 활기찬 일상이 절로 찾아올 것이다.

기술력을 선도하는 파나소닉 안마의자

헬스케어 가전 분야에서 안마의자 기술을 선도해 온 파나소닉은 88년 세월 동안 부단한 연구와 생산 인프라 구축을 통해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 왔다. 파나소닉 안마의자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마사지 볼이다. 세밀하게 압력을 전달하고, 시원하게 눌러 주어 피로를 해소하는 마사지 볼은 다양한 주무르기 기능으로 입체적인 안마 코스를 수행한다.

내 몸에 꼭 맞는 파나소닉 안마의자

프리미엄급 제품의 경우, 마사지 볼에 가해지는 압력을 감지해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안마를 선보인다. 특히 통증의 근원에 효과적으로 접근해 지압, 두드리기, 스트레칭 등 다양한 기능을 실행한다. 터치 패널 컨트롤러를 탑재한 덕에 취향에 맞는 마사지 메뉴를 손쉽게 탐색하고, 원하는 부위를 고를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7월 이벤트

+2023 파나소닉 안마의자 보상 판매

타사 제품 포함, 현재 사용 중인 안마의자를 파나소닉 안마의자로 교체 구매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대상 모델 MAK1, MAF1, MA32, MAC9, MA05

기간 7월 31일까지 문의 02-533-8452



모두에게
평안을,

넓은 분지에 자리한 마음 너럭한 고장 경남 함안으로 떠났다.
자연이 무르익은 공원을 걷고, 저수지 위를 시원하게 내달렸다.

함안



함안

비가 온 뒤 맑게 갠 하늘엔 먼지 한 톨 없었다. 그토록 청명한 날 오전, 함안역에 닿았다. 물 대기가 한창인 여름의 눈은 수채화 물감으로 채색한 듯 투명하게 반짝인다. 시선이 우뚝 솟은 산등성이에 머문다. 이 고장에서 가장 높은 여항산이다. 그리고 보니 여항산이 마치 병풍처럼 평평한 대지를 감싸고 있다. 남고북저의 비옥한 땅에 온 것이 실감났다. 분지의 너그러운 분위기가 지명에서도 드러난다. 모두 다 편안하다 해서 함안(咸安)이다. 이름처럼 더도 덜도 없이 충만한 여정을 기대하며 입곡군립공원으로 향한다.

해방감과 휴식을 함께, 입곡군립공원

공원 초입의 알록달록한 무지개 다리에 이르니 한눈에 담지 못할 만큼 광활한 저수지가 펼쳐진다. 입곡저수지는 일제강점기에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협곡을 가로막아 조성했으나, 세월이 지나며 일대는 생태의 보고로 거듭났다. 담백한 물을 원천으로 다양한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자생하기 시작했다. 수달이 이곳을 터전으로 삼았으며, 기러기도 날아왔다. 둔치에는 철마다 꽃이 만개한다.

입곡군립공원은 입곡저수지를 중심에 두고 자연이 빚어낸 풍광을 최대한 보존한 공원이다. 인위적인 개발과 훼손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다만 물기슭을 둘러싼 울울창창한 나무숲에 사람이 걸을 수 있도록 길을 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경치와 산책로 덕분에 누구나 찾는 휴식처가



✚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ITX-새마을을 타고 함안역까지 5시간 정도 걸린다.



Relaxation



은새미로공원은 입국군립공원 옆에 자리한다. 놀이터, 잔디밭뿐 아니라 지난 5월 공원 내에 개장한 오토캠핑장이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이 찾기 좋다.
문의 055-580-3423



됐다. 비록 역사적으로 순탄치 않은 시절에 탄생했으나, 지금은 발 기갈 해소 용도를 뛰어넘어 쉼을 찾는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한다.

호젓한 산책 명소로 이름났던 이곳이 몇 해 전부터 달라지고 있다. 물 위를 내달릴 수 있는 각종 레저 기구가 생겨나 짜릿한 해방감을 느끼고자 하는 사람들이 속속 방문하면서다. 색다른 스트레스 해소법에 동참해 보기로 했다.

평상시에 하지 않을 법한 행동을 하는 것도 분명 여행의 묘미다, 라고 몇 번을 되뇌며 계단을 올랐다. 발아래 수면이 아찔해 마른침을 꿀꺽 삼킨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저수지 상공 13미터가량 줄에 매달린 바이크로 향한다. 하나, 둘, 셋. 구호에 맞춰 외줄 타기를 시작한다. 스르륵 출발한 바이크가 덜컥 흔들린다. 이내 활강하자 절로 비명이 새어 나온다. 질끈 감은 눈을 뜨니 완두콩 빛깔을 닮은 어여쁜 물비늘이 사방에 어른거린다. 서늘한 산들바람이 땀을 식히고 긴장감도 사라진다. 닿을 듯 가까운 부표에 앉은 학을 굽어보고, 아래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손도 흔든다. 물 위를 달음박질하는 신선이 된 듯하다.

한껏 쾌활해진 기분으로 트레킹에 나선다. 저수지 위를 시원스레 가로지르는 112미터 길이의 출렁다리를 씩씩하게

건넌다. 멀리 동동 떠 있는 무빙 보트가 앙증맞다. 정자에 올라 운슬 가득한 풍경을 두 눈 가득 담고 다시 걷는다. 바쁜 일상이라면 행로를 방해하는 모든 것이 불만스러울 테지만, 휴식하러 왔기에 산책로 텍 위로 불쑥 비어져 나온 향나무 가지도 어루만질 여유가 있다.

그저 술쉴이겠거니 했는데, 막상 걸어 보니 식생이 다양하다. 식물도감의 한 페이지에 들어온 것 같다. 편백나무는 향기롭고, 층층나무의 이파리는 윤기가 돈다. 뽕나무와 수피나무 사이 길로 나타난 다람쥐가 여정을 함께 한다. 암석 사이사이 비집고 자라난 꽃을 대견해하는 찰나 다람쥐가 열매를 물고 사라졌다. 입국단풍길에 접어들었다. 한여름엔 초록빛 단풍나무가 만든 터널이 시원한 그늘을 드리

자미화의 수려함은 그 옛날에도 같았나 보다.
매년 여름 꼬박 100일을 피고 지길 반복했다
하니, 올해의 절경도 아름다우리라.

우지만, 가을에는 울긋불긋 물들어 황홀경을 이룰 것이다.
풍경을 곱씹자 시간이 훌쩍 지났다. 여장은 입곡군립공원
과 가까운 온새미로공원에서 풀기로 한다. 냉기가 뿜어져
나오는 텐트 안에서 깨느른한 몸을 누이고 피로를 날린다.
건너편 놀이터와 잔디밭에서는 아이들이 실컷 뛰어놀고
어른들은 자연 속에서 쉰다. 모두에게 단란한 휴식이라.

배롱나무가 감싼 고려동 유적지

온새미로공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유적지가 있다. 공식적
으로는 고려동 유적지로 명명하지만, 마을 어른들은 여전
히 담안마을이라 부르는 곳이다. 말 그대로 담장 안에 있
어 예부터 그리 말했고, 한자로 장내(牆內)라고도 한다. 이
런저런 이름으로 불린 까닭은 이 동네가 특별한 사연을 품
어서, 또 오랜 세월 한자리를 지켜 와서 그렇다. 이야기는
6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지러운 시기였다. 고려가 막을 내리고, 조선왕조가 들어
섰다. 사대부들은 뜻을 정해야 했다. 조선 사람이 되거나,
사라진 왕조를 따르거나. 성균관 진사였던 모은 이오 선생
은 고려 사람으로 남기를 택했다. 권옥경 문화관광해설사
의 설명을 들으며 당시를 그려 본다. “이오 선생의 집안엔
6형제가 있었어요. 형님이 정도전 탄핵 상소를 올려 유배
를 갔고,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일로 신진 세력에 밀
보여 집안이 풍비박산했고, 이오 선생은 함안에 은둔하게
됐지요. 띠, 풀숲에 숨은 사람을 뜻하는 호 ‘모은’에는 개울
이 흐르는 이 마을에 숨어들었던 상황이 담겼습니다.”

고려 유민의 거주지임을 뜻하는 비석 ‘고려동학’이 역사적
사실을 증명한다. 모은은 담장을 쌓고 안분지족의 삶을 행
했다. 담 밖은 조선이기에 두문불출하고 평생 벼슬도 하지
않았다. 나라 잃은 백성이니 묘비에 글자도 새기지 말라
유언했다. 후손들은 실제 비에 이름을 쓰지 않았고, 뜻을
이어 고려동을 가꾸었다.

걸음을 옮겨 자미고원으로 향한다. “자미는 배롱나무입니
다. 고려 말이나 지금이나, 이 자리에는 배롱나무가 있었



다 해요. 비록 엄마 나무는 죽고 없어졌지만, 그 곁까지의
새끼들이 지금까지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꽃이 피면 얼
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감탄하며 고개를 주억거린다.
대를 이어 가는 모습이 고려동을 계승해 온 이곳 사람들과
똘똘 맞아서다. 권옥경 해설사의 말처럼 자미화의 수려함은
그 시절에도 같았나 보다. 밀양에 살던 모은이 함안을 은
거지로 삼은 배경도 이곳 자미화에 반해서였다 한다. 매년
여름 꼬박 100일을 피고 지길 반복했다 하니, 올해의 절경
도 기대된다.

종택에 들어섰다. 모은이 함안에 정착할 때 지은 건물터
다. 6·25전쟁으로 소실돼 복원했으나, 기둥 밑 주춧돌은
600년 넘게 그대로다. 망국의 유민으로 살겠노라 다짐하
고 스스로를 가둔 옛 선비에 대한 생각을 되작거리면서 마

고려동 유적지는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에 자리한다. 여름이면
배롱나무꽃이 만개한 마을을
산책할 수 있다.
문의 055-580-2551



© 함안군청

마을을 둘러싼 담을 따라 걸으며
 사색에 잠기는 것도 좋지만,
 문화관광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면
 숨은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문의 055-580-2584



고 해요. 이 오래된 발이 어찌나 잘되는지 여기서 나는 고구마 맛이 기가 막힙니다.” 비운한 고려전에서 여름을 지나 결실을 거둘 달콤한 가을작물의 맛을 상상해 본다.

고요한 정취, 여름날의 함안

담장 안을 찬찬히 살핀다. 아담한 연못이 작지만 어여쁘다. 푸릇푸릇 낀 이끼도 그림 같다. 소금쟁이가 떠다니고 개구리도 시원스러운 목청을 뽐낸다. 연못 가운데는 사람 얼굴 모양을 본뜬 석상이 자리하는데, 향로봉이라 쓰여 있다. 여름이면 석상 위 평평한 곳에 향을 피워 벌레를 쫓았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못을 따라 걷고, 시를 읊는 이도 있었다. 옛 시골 정취가 소박하면서도 아름답다.

이제 담을 빠져나와 자박자박 돌레를 걷는다. 걸음걸음이 상쾌하다. 하얗게 꽃을 피운 밤나무의 진한 향기가 코끝을 간질인다. 미풍에 일렁이는 대나무 숲으로 시선을 옮기며 여행을 마무리한다. 입곡군립공원과 온새미로공원에서 자연으로 기력을 채우고, 고려동 유적지에서는 역사 속을 거닐었다. 시름을 잊고 몸과 마음이 편안한 하루였다. 함안에 가니, 평안이 왔다. ㉔

루에 걸터앉았다. 뒷문을 열면 산이 보이는데, 모은보다 일찍 죽은 손자의 묘가 있는 곳이다. 선생은 이 자리에 앉아 손자를 생각했을 것이다. 산에 깃든 사연이 애달프다. 시선을 위로 옮기니 바구니를 엮은 시렁이 정답다. 맞은편 사랑채를 둘러싼 분홍색 꽃은 아기자기하게 돋았다. 시어머니에 대한 며느리의 효성이 지극해 전복이 나왔다 전하는 종택 옆 우물은 지금도 마르지 않고 물이 솟는다. 고려 사람으로 살았기에 담장 안에서 작물을 심고 거두어 먹어야 했던 이들은 자급자족의 흔적을 집 안에 남겨 두었다. 일명 고려전이다. 제법 너른 밭은 아직도 먹거리를 길러낼 만큼 충분히 기름지다. 여름작물이 촉촉한 가운데 대 높은 옥수수가 눈에 띈다. “고려 말부터 지금까지 같은 자리라



PARADISE



함안에서 여기도 가 보세요



함안군청



연꽃테마파크

높지대를 둘러싼 자연 친화적인 테마 공원으로, 고려 시대의 연꽃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2009년 5월 함안 성산산성에서 씨앗이 출토된다. 연대를 추정해 보니 700년 전 고려 시대의 연꽃 씨앗으로 밝혀진다. 그로부터 두 달 뒤인 7월 연꽃이 700년 만에 발화하는데, 옛 함안에 있던 왕국 아라가야의 이름을 따 '아라연꽃'이라 명명했다. 당대 탕화의 연꽃 형태와 색깔을 고스란히 간직한 아라홍련을 실제로 볼 수 있는 특별한 곳이다. 법수홍련·백련·수련·가시연뿐 아니라, 몇 해 전 50여 종의 연을 식재해 종류가 한결 풍성해졌다. 연꽃 개화 시기는 7~8월이며, 오전 6시부터 11시 사이에 가장 아름답다.

문의 055-580-3434



말이산 고분군

함안 일대를 지배했던 아라가야의 문화를 간직한 유적이다. 말이산은 '머리 산'을 한자로 음차한 것이다. 즉 우두머리의 산 내지는 왕의 산을 의미한다. 아라가야 왕들의 마지막 안식처이기 때문이다. 79만여 제곱미터의 구릉에 펼쳐진 말이산 고분군은 대형 봉토분이 압도적이다. 고분군에서는 불꽃무늬 토기를 비롯해 말이산 45호분 출토 상형 도기와 봉황 장식 금동관, 75호분 출토 연꽃 문양 청자 그릇 등 다양한 유물이 발굴돼 아라가야 역사 복원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말이산 고분군은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역사성과 빼어난 경관을 인정받아 오는 9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문의 055-580-2562~6

지금



SF 공상과학

흥미를 느끼시나요?

머나먼 미래의 모습, 여러분이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미래의 예술'을 주제로 담아냈습니다. 상상 그 이상의 것들을 경험해 보세요.

뮤지엄 원은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미디어 아트 전문 현대 미술관으로 동시대를 대표하는 예술가 + 디자이너 + 기획자 + 엔지니어들과 함께 현재의 시대 정신과 트렌드를 바탕으로 예술, 철학, 미학의 이론을 더한 새로운 장르의 뮤지엄 +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기차여행센터를 통해 KTX 타고 뮤지엄 원을 즐겨 보세요!

- * 기차 시간, 일정 변경 및 인원 조정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 기차 운행 조정, 기차 잔여 좌석 사정으로 인해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추천 코스에 맞추어 여행자가 철도 이용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자유 여행 패키지 상품입니다.

기차여행센터로

MEDIA ART



ktx 편도 + 뮤지엄 원 입장권 패키지

여행일 2023년 6월 10일 ~ 2024년 5월 15일
포함 내역 서울-부산 2인 편도 KTX 승차권
뮤지엄 원 1인 입장권

불포함 내역 여행자 보험, 식대, 개인 기타 경비 등

KTX 공식 협력 여행사 전화 문의 1899-2550
카카오톡 채널 상담 '기차여행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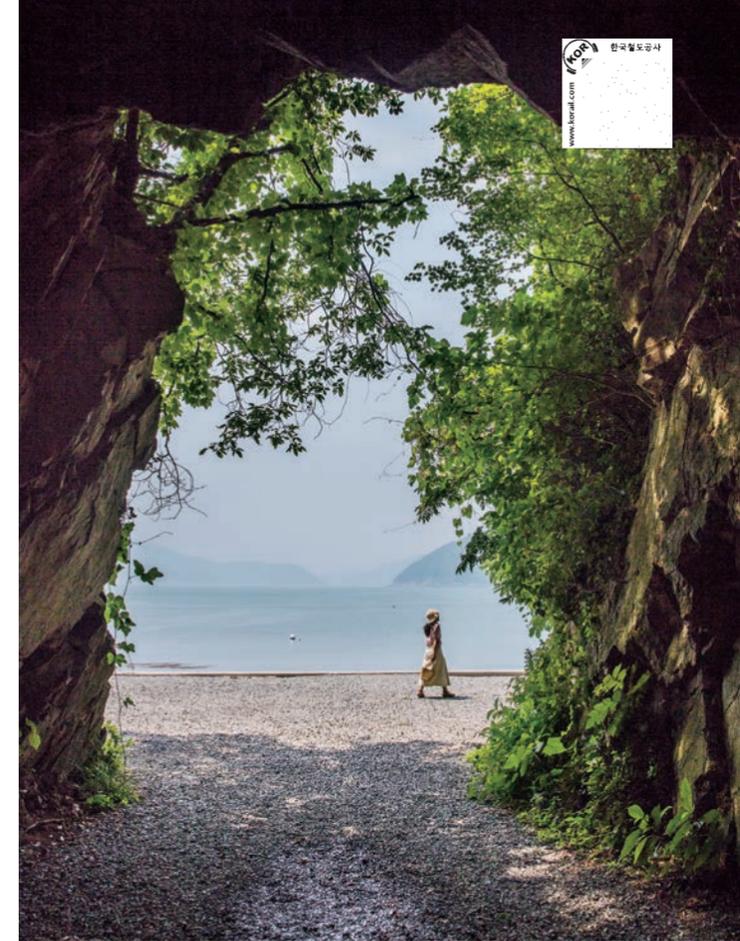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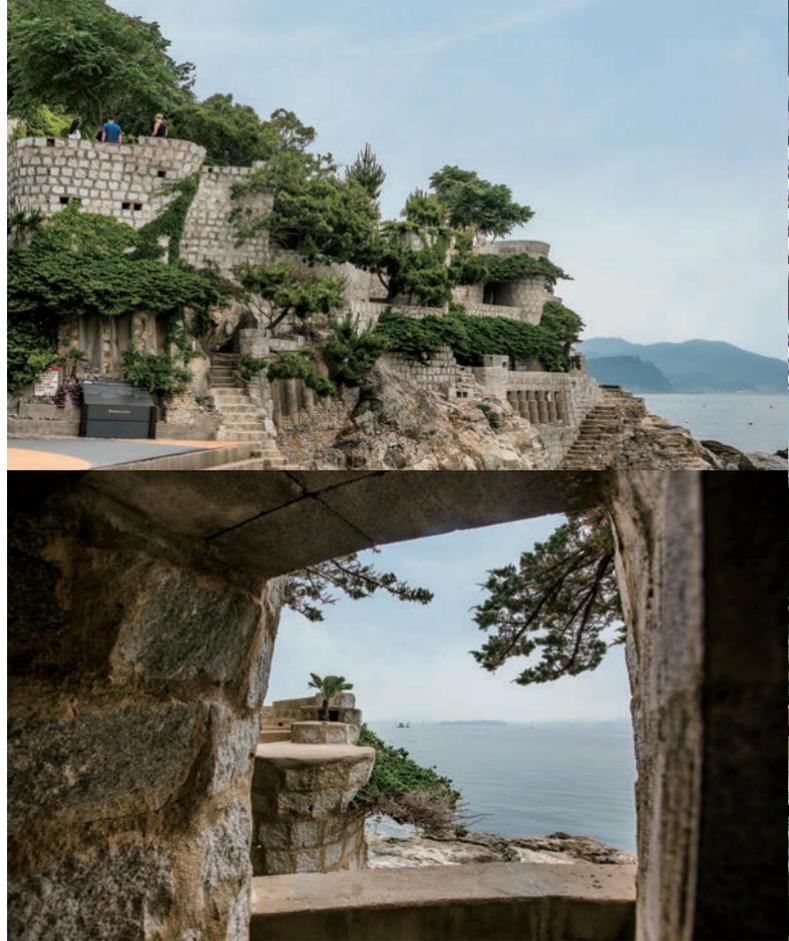


이제 우리, 거제에서 찰칵



어딜 봐도 온통 푸른 경남 거제에서 한 시절을 보낸다. 흘러버리기 아까운 풍경,
그리고 그 안에 머무는 우리의 지금을 사진으로 기록해 남긴다.

취재 협조: 거제시청



바람의 언덕

거제에 왔다면 여기부터

코발트빛 수면에 하얀 파문을 일으키는 유람선, 수평선과 맞닿은 푸른 하늘, 초록과 연두가 섞인 드넓은 풀밭. 자연이 붓질한 색면 회화 앞에서 눈이 환하다. 남부면 도장포에 펼쳐진 이 풍경은 거제가 지닌 아름다움을 집약한다. 바람의 언덕은 30여 년 전만 해도 '갈곶'의 '띠발늘'이었다. 갈곶이란 칠푼굴 닳은 곳을, 띠발늘이란 벗과 식물인 띠가 덮인 언덕을 뜻한다. 지금의 이름은 2000년대 초반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 등장하면서부터 생겨났다. 그림 같은 장면을 찾아온 이들이 보다 직관적이면서도 낭만적인 두 단어 '바람'과 '언덕'을 붙여 부르기 시작했고, 그것이 순식간에 퍼져 나갔다. 2009년에 들어선 풍차가 화룡점정이었다. 바다와 언덕과 풍차가 이루는 완벽한 구도 앞에 서면 누구라도 근사한 사진을 찍어 남길 수 있다. 다음 촬영 동선은 신선대와 해금강으로 이어져야 마땅하다. 갈곶 끄트머리에 해금강이, 언덕 남쪽에 신선대가 위치한다.

📍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산 14-47

매미성

고대 로마의 낭만적인 유적처럼

장목면 대금항과 시방항 사이 해변에 유럽 도시에서나 맞닥뜨릴 법한 성채가 올라섰다. 보고도 믿기지 않는 건 이게 유물이 아니라 2003년부터 지어 온 구조물이란 사실이다. 기관이나 기업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거제 시민 백순삼 씨가 설계도도 없이 손수 완성했다. 태풍 매미가 경작지를 망가트린 탓에 작물을 보호하려고 돌을 하나씩 쌓고 시멘트로 메워 성을 지었다. 외롭고 고단한 일이었을 것이다. 한 사람의 송고한 노고 덕에 수많은 이가 즐거움을 누리고 있으니, 부디 이제는 그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었기를. 유려한 성벽과 몽돌, 나무, 풀, 바다, 섬이 공존하는 풍경은 더할 나위 없이 눈부시다. 이 계절엔 곳곳에 짙레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 그윽한 향기마저 뿜어낸다. 경치에 넋 잃고, 꽃 내음에 취하는 시간. 계단을 오르내리느라 지친 다리를 바위에 올려 놓고 잠시 쉬어도 좋을 것이다. 기운을 충전한 뒤엔 남파랑길 18코스를 따라 보쪽을 넓혀 본다.

📍 거제시 장목면 복항길 29

거제식물원

SNS 업데이트는 정글돔에서

우리 집에 있는 아레카야자가 어디까지 자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거제식물원 정글돔으로 가야 한다. 천장을 찌를 듯 키가 자란 열대식물과 선인장이 울창한 숲을 이루어 바라보는 것만으로 압도당하는 기분이다. 신비로운 석부자 초화원을 따라 식물원 깊숙이 들어서니 어느새 시서스가 드리운 인공 협곡에 닿는다. 바위 틈으로 난 계단을 올라가자 눈이 탁 트이는 전망대가 나타난다. 시원스러운 폭포 줄기가 쏟아져 내리는 모습이 한눈에 드는데, 마침 이곳에서 사진을 찍으라고 친절하게 알려 주는 포토 존이 조성되어 있다. 알림 팻말이 군데군데 절묘한 위치에 걸렸으니 잘 살피며 둘러보기로 한다. 물론 정글돔에서 가장 유명한 사진 명소는 새 동지 포토 존이다. 동지 모양 구조물에 걸터앉으면 거대한 돔 천장과 무성한 녹음을 배경으로 인증 사진을 남길 수 있다. #거제식물원 #정글돔 #인증사진과 함께 SNS 피드를 단장할 시간이다.

📍 거제시 거제면 거제남서로 3595

근포땅굴

자연이 만든, 살아 있는 액자

명사해수욕장을 지나 근포항 방향으로 접어들면 '근포땅굴'이란 이정표를 발견한다. 땅굴을 찾는 이를 위한 주차장도 어엿하고, 주차장에서 땅굴로 가는 길목엔 알록달록한 보도블록과 벽화가 이어진다. 해변에 다다르니 산뜻한 심터와 포토 존까지 펼쳐진다. 수풀을 헤치고 찾아가야 하는 사적이자 답사지인 여느 땅굴과 달리, 이곳은 더없이 화사할뿐더러 방문객으로 붐빈다. 땅굴 안쪽에서 바깥을 바라보는 구도로, 다시 말해 땅굴의 암벽을 액자 삼는 앵글로 촬영한 몇 장의 사진이 SNS에서 화제를 모으면서 이곳은 새로운 명소가 됐다. 1940년대 일본군이 진지를 만들기 위해 굴착한 땅굴이 오늘날 이렇게 쓰이리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기발하고 눈 밝은 Z세대가 발견한 액자 앞에 서서 그림자놀이를 하고, 그 순간을 카메라로 기록한다. 이왕 근포항까지 왔으니, 차로 3분 거리인 대포항에서 해넘이를 감상한 후 서늘해진 밤바다를 천천히 거닐어도 좋겠다.

📍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423

📍 거제와 가까운 역은 부산역이다.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부산역까지 2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거제 여름 별미

허끝으로 탐미하는 거제 앞바다



멸치쌈밥 부산 기장 대변항, 경남 남해 미조항, 그리고 바로 이곳 거제 외포항이 멸치 맛 좋기로 유명한 어항이다. 멸치를 맛보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양지바위횡집(055-635-4327)'에서 내는 멸치쌈밥이 정석이라 할 만하다. 멸치와 양파를 넣고 팔팔 끓인 찌개를 각종 쌈 채소와 나물에 올려 먹는데, 여름엔 머위와 두릅이 상에 오른다. 들깨가루와 고추를 넣은 까닭에 구수하면서도 알근한 풍미가 입안 가득 퍼진다. 7월 중순까지는 억세지 않고 부드러운 봄 멸치 생물 회무침도 선보인다. 외포양조장의 얼썩막걸리 한잔 곁들이면 금상첨화다.

명게비빔밥·성게비빔밥 성게는 4월부터 10월까지 맛볼 수 있는 해산물이지만 맛이 차오르는 시기는 지금이다. 거제 해녀로부터 성게를 공수해 조리하는 '백만석(055-638-3300)'의 안희성 대표는 재료의 신선함을 그대로 즐기도록 제철 채소에 참기름을 슬쩍 돌려 성게비빔밥을 완성한다. 5일 동안 특제 소스에 재운 명게를 넣은 '숙성명게비빔밥'을 고안한 것도 바로 그다. 떨어뜨려도 버리지 않는 오묘한 맛의 균형을 잡았다. 이 집의 두 대표 메뉴는 맑은 대구탕과 생선구이, 양념게장 등 예닐곱 가지 찬과 함께 나온다. 참고로 이 계절의 생선은 불볼락이다.



왕우럭조개 별명은 코끼리조개. 껍데기를 벗기면 드러나는 속살이 코끼리 코처럼 길쭉하게 늘어진다. 거제에서는 예부터 '꺄구지'라고도 불렀다. 손바닥만 한 크기라 양이 넉넉하고 씹는 맛이 훌륭한 데다 감칠맛도 전복과 어개를 나란히 한다. 가조연륙교 부근에 자리한 마을 성포리가 왕우럭조개로 이름났다. '진이회식당(055-634-6114)' '평화식당(055-633-5125)' '용화횡집(055-632-8090)' 등 식당 여러 곳에서 왕우럭조개를 판매한다. 기름장이나 간장을 찍어 김과 묵은지에 싸서 한 입 크게 우물거려니, 잠시나마 세상 부러울 게 없다.

바로 지금, 거제 새파란 물빛과 싱그러움 녹음을 간직한 한려수도의 보석, 경남 거제는 여름휴가에 떠나고 싶은 여행지로 첫손에 꼽히고 있다. 구조라해수욕장, 외도 보타니아, 지심도, 신선대와 해금강에 이르는 거제의 무한한 비경이 우리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이 계절에 더 아름다운 사진 명당, 미각의 쾌감을 일깨우는 계절 별미가 어서 오라 손짓한다. 문의 tour.geoje.go.kr



강한 체력이 필요한 여름, 보양식 대신 프리주비네이션

불볕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여름 나기를 준비할 때다. 울여름, 뜨거운 보양식 대신 산뜻한 노화 예방 주사 프리주비네이션에 도전해 본다.

한낮 기온 30도. 때 이른 더위가 나날이 이어진다. 여름철에 유독 보양식이 생각나는 건 더위에 맞서느라 기력을 당겨쓰기 때문이다. 하루가 다르게 기운이 없고 온몸이 물에 빠진 듯 무겁게 느껴진다면, 날씨 탓만 하기보다는 체력 저하를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게 조찬호 청담셀의원 대표원장의 조언이다. 조 원장은 건강한 체력을 오래 유지하도록 돕는 프리주비네이션이 근본적인 노화 예방에도 주효하다고 설명한다. 이어 "최근 단순히 노화를 늦추는 안티에이징 개념을 넘어 노화를 예방하는 프리주비네이션이 떠오르고 있다"라고 부연한다. 프리주비네이션이란 일종의 '노화 예방 주사'다.

만성질환과 통증, 미리미리 관리하는 프리주비네이션

누구나 태어난 순간부터 성장하고, 일정 시기에 접어들면 노화가 진행된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것도 더위가 아닌 세포 손상, 혈액순환 저하, 단백질 합성 저하로 인한 근육 감소 등 노화 현상과 연관이 깊다. 이런 증상은 당연히 해가 갈수록 더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다. 간헐적으로 섭취하는 보양식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므로, 평상시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는 식단과 근육량을 유지하는 꾸준한 근력 운동이 필요하다. 노화 부스터인 만성질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활동을 힘들게 만드는 통증은 초기에 잡아야 하는 것이다. 프리주비네이션이 건강관리의 열쇠인 이유다. 대표적인 프리주비네이션 시술은 줄기세포 정맥주사다. 줄기세포는 자가 재생 능력과 분화 능력을 가진 원시세포다.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혈관을 형성해 혈액순환을 도우며, 단백질 합성 효과를 높여 기초 체력을 끌어올린다. 여기서 나아가 난치병 치료, 치매 예방 등의



효과로 의료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조 원장은 "프리주비네이션 시술은 줄기세포를 충전함으로써 몸을 젊게 깨우는 것"이라며, 건강한 상태를 오래 유지할수록 노화가 가속화되는 시점도 더 늦춰진다고 분석한다.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줄기세포 효과

줄기세포를 정맥에 주사하면 체력 증진 효과를 볼 수 있다. 청담셀의원은 이 같은 줄기세포 효과에 주목, 체력 저하와 노화된 몸을 개선하기 위한 줄기세포 정맥주사 '청셀(淸Cell)'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성체 줄기세포를 채취해 링거로 주입, 전신 재생 작용을 촉진하는 시술이다. 이 밖에 줄기세포를 타깃 부위에 집중 투여해 젊음을 잃어 가는 국소 부위 회복도 기대해 볼 만하다. 성 기능을 증진하는 '성셀(性Cell)', 피부 탄력을 높이고 주름을 개선하는 '미셀(美Cell)', 두피에 주사해 탈모를 치료하는 '모셀(毛Cell)', 약해지기 쉬운 인대를 더 탄탄하게 해 주는 '활셀(活Cell)' 등이 여기 속한다. 조 원장은 이와 함께 건강을 과신하지 말고, 1년

에 두세 번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건강 상태를 체크하라고 조언한다. 유전자 검사로 취약점을 미리 인지하고, 바이오마커 검사를 통해 현재 상태를 파악하면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내 몸을 잘 아는 '단골 의사'를 만드는 것도 현명한 건강관리 비결이다. "미래 의학은 발병하고 난 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젊음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선제적 안티에이징에 집중하고 있다. 건강한 몸과 외모를 오래 유지함으로써 활기찬 인생을 설계하는 게 건강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유리할 것"이라고 조 원장은 말한다. 청담셀의원은 '헬스케어 디자인'을 지향하는 의료 기관으로 줄기세포를 활용한 전신 항노화 치료에 특화됐다. 특히 한국에서 골수·지방 줄기세포를 모두 활용하는 극소수 의료 기관 중 하나다. 조선일보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 항노화줄기세포치료 부문에서 5년 연속 수상하기도 했다. 병원을 이끄는 조찬호 원장은 줄기세포에 관한 연구로 의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항노화 의학 전문가다.

꽃처럼 차오르는 영감의 시간

구성면 시퀀스 시리즈, R.01+02, 각 120x60cm, 라이트젯 C프린트, ed.4-5, 2013



JEONNAM MUSEUM OF ART

여름이 도착했고, 우리는 미술관으로 간다. 우아하고 산뜻하게 더위를 건너기 위해서다.
마침 전남 광양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전시 <영원, 낭만, 꽃>과 <아시아의 또 다른 바다>를 펼치고 있다.



전남도립미술관

제니퍼 스타인캠프 '미래로부터'(From the Future) 단체별 영상 감상 기법 설치, 2023, Courtesy the artist and Lehmann Maupin, New York, Hong Kong, Seoul and London.

마음이 지칠 때면 몸은 남쪽 땅으로 기운다. 멀리 떠나고 싶다, 푸르고 넉넉한 자연에 안겨 쉬고 싶다는 열망이 등을 떠미는 것이다. 고맙게도 KTX 전라선 열차가 달뜬 몸과 마음을 빠르게 날라 주었다. 이번 남쪽 여행의 목적지는 전남도립미술관. 순천역에서 77번 버스를 타고 광양 시외버스터미널에 내리면 길 건너에 미술관이 있다. 수호신처럼 건물을 지키고 선 그자비에 베이앙의 빨간 새 (Bird n°2)'가 낮선 손님을 마중하며 인사를 건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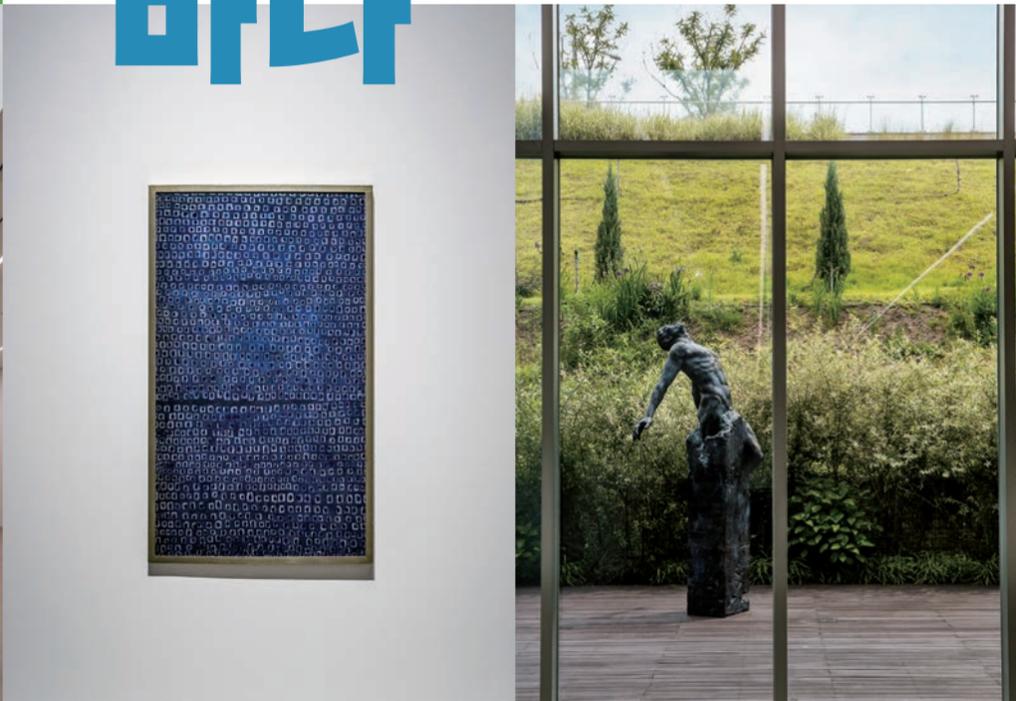
옛 광양역 자리에 올라선 전남 미술의 허브

투명한 전면 유리 외관에 뽀얀 뭉게구름과 초록빛 잔디가 어른어른 비친다. 완연한 여름. 미술관에서 한나절 보내기 좋은 계절이 왔다.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늠름한 풍채를 자랑하는 전남도립미술관은 2021년 3월 옛 광양역 부지에 올라섰다. 전남 최초로 들어선 현대미술관이니만큼 지역민의 이목이 쏠린 건 당연했다. 개관 기념전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다>부터 미술계의 전무후무한 인플루언서 BTS RM이 방문한 <인간의 고귀함을 지킨 화가 조르주 루오>전까지, 그간 전남도립미술관이 선보인 전시 면면은 과중한 기대를 가뿐히 뛰어넘는 성취였다. 개관 3년 차, 전남도립



전남도립미술관은 옛 광양역 부지에 자리한 전남 지역 첫 공공 미술관으로, 철도 역사의 한 장을 장식하고 있다. 개관 이래 전남 출신 작가의 작품은 물론 전 세계 미술의 지금을 만나는 예술 허브로 자리매김했다. 미술관 주변에는 폐창고를 개조한 광양예술창고, 한옥 10여 채를 활용한 인서리공원 등 광양 원도심의 재생 문화 공간이 모여 있어 두루 살피기 좋다. 문의 061-760-3290

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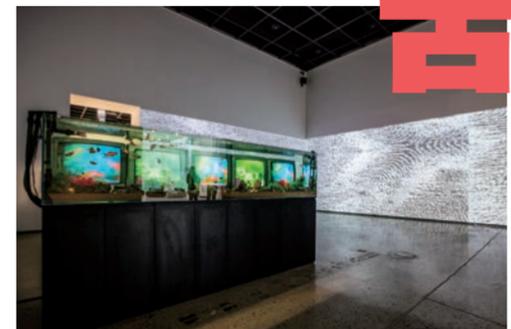


미술관은 지역 안팎의 미술 애호가를 불러 모으는 예술적 구심점으로 거듭났다. 미술사적 가치가 큰 지역 작가의 작품을 수집·연구하며 내실을 다지는 동시에, 한국 미술과 세계 미술을 연결하려는 바지런한 움직임이 이루어 낸 결과다. 목직하 유리문을 밀어 햇살이 쏟아지는 환한 로비에 발을 디딘다. 그런 뒤엔 곧장 아래층으로 난 계단을 따라 내려간다. 전남도립미술관의 주요 전시가 열리는 곳은 지하 1층이다. 성큰 구조로 이루어진 미술관 건물은 지하라도 채광이 풍부하다. 장미셀 오토니엘의 '블랙 토네이도'와 자연광이 공존하는 공간은 더없이 신비로운 공기를 자아내고, 지하 정원에 설치한 여수 출신 조각가 류인의 '지각의 주'는 정적인 풍경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이토록 요묘한 예술의 바다, 영원의 꽃

7월, 전남도립미술관을 찾았다면 바다에서 헤엄치고 꽃밭에서 노니는 잊지 못할 경험을 한다. 바다를 소재로 한 아시아 지역 작가의 작품을 그리모은 <아시아의 또 다른 바다>전, 생과 사의 철학을 꽃으로 관통하는 <영원, 낭만, 꽃>전이 열리기 때문이다. 먼저 바다로 뛰어든다. 이 바다는 예사 바다가 아니다. 별처럼 산재하는 아시아 각지의 작가와 예술 작품을 잇는 거대한 우주로서의 바다다. 첫 번째 장, '파(波), 바다의 파동'은 전시장에 들어선 관람객을 단숨에 매혹한다. 수조에서 노니는 금붕어와 TV 브

라운관 속 금붕어 영상을 중첩한 백남준의 'TV 물고기', 미술관 인근 바다에서 추출한 음역을 파동으로 시각화한 천위룡의 사운드스케이프 (soundscape) 작업 '남해가 온 감각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다음 섹션인 '몽(夢), 바다와 꿈'에서는 바다가 환기하는 여러 가지 꿈의 형태를 만난다. 경남 거제에서 출발한 한국의 김승영과 일본 쓰시마섬에서 출발한 무라이 히로노리가 접경 해협에서 만나는 퍼포먼스 '바다 위의 소풍'을 맞닥뜨린 순간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차오른다. '초(超), 바다 너머'는 바다의 심상을 경유해 당대를 초월한 작가의 해안과 통찰을 엿보게 한다. 특히 전통 수묵의 이념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웬훤리의 '화묵·곽희 '조춘도' No.2'와 '원씨준보'가 색다른 울림을 안긴다. 하이라이



꿈



트는 아무래도 마지막 무대, '경(境), 바다와 경계'다. 전남 신안 안좌도가 배출한 거장 김환기의 '14-XI-69#137'은 전면점화로 그려낸 검푸른 바다 같다. 그림 앞에 서면 어쩔지 바람 소리, 파도 소리가 귓가에 스치는 듯도 하다.

바다를 건넌으니 꽃을 끌어안을 차례. <영원, 낭만, 꽃>전은 꽃이 품은 영원성과 낭만성을 탐색한다. 우선 전라남도 유형문화재이기도 한 해남 대흥사 '십일면천수관음보살도'가 첫 번째 전시실 '연화화생, 재생의 영원'을 온화한 기운으로 가득 채운다. 연꽃으로 출발한 전시는 병풍, 보자기, 꽃신 등 일상적 소품과 프랑스의 장식 예술 박물관인 모빌리에 나시오날에서 공수한 태피스트리를 아우른다. 대단원은 제니퍼 스타인캠프의 미디어 아트 작업 '미래로부터', 제임스 로젠퀼트의 '무제(장미)', 박기원의 '대화'에 이르는 동시대 작품이 장식한다. 천변만화하는 꽃, 그 속에 깃든 삶과 죽음과 영원의 가능성을 한껏 긍정하게 하는 순간이다.

돌아가는 걸음에 놓인 예술

다시 1층으로 올라간다. 로비 한편엔 <기증 작품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윤선도와 윤두서의 후손이기도 한 남도의 현대미술 1세대 작가 굴원 윤재우의 작품을 만나는 기회다. 선명하고 화려한 색채로 표현한 풍경화와 정물화는 어제 그린 그림이라고 해도 이질감이 없을 만큼 앞서간 조형 감각을 보여 준다. '뮤강스의 시간을 갈무리하기 위해 카페 겸 아트숍 '플랫폼 660'에 잠시 머물기로 한다. 미술관 소장품 이미지로 디자인한 필기구, 스카프, 가방을 뒤적거리다가 김환기의 '무제' 엽서를 발견했다. 오래도록 곱씹고 꺼내 볼 또 하나의 추억을 손에 쥐었다. K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기념하는 두 전시를 만난다. <아시아의 또 다른 바다>전은 7월 16일까지, <영원, 낭만, 꽃>전은 11월 5일까지 열린다. 상설 전시실에서는 <기증 작품 특별전>이 진행 중이고, 카페 겸 아트숍 플랫폼 660은 유료와 감각적인 디자인의 굿즈를 판매해 편의를 제공한다.



경주는 기묘하다. 도시 중심부에 넓은 권역을 차지한 고분군은 경주의 분위기를 만드는 핵심이다. 거대한 무덤이 불쭙불쭙 나타나 모르는 척할 수도 없다. 영화 <경주>의 주인공 공윤희가 “경주에서는 눈을 보지 않고는 살기 힘들어요”라고 이야기하듯. 아주 오래전 대단한 사람이 살았다는 흔적, 그런 사람조차 죽어 흙으로 돌아갔다는 증거. 인간이 밟고 선 어지간한 땅이란 대부분 선조가 살다 물려주었다지만, 경주는 이 사실을 두 눈으로 확실히 확인시키는 도시다. 긴 세월이 선사하는 압도적 감각은 오로지 경주만의 것이다. 935년 신라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1000년 넘게 지나서도 인간은 그 무덤 사이사이에서 먹고 마시고 일상을 영위한다. 무덤가를 걷고, 무덤을 배경에 두고 웃으며 사진을 찍는다. 삶과 죽음이 공존한다는 흔하고도 엄중한 말이 공기처럼 자연스럽다.

수도로 1000년, 그 뒤 수도가 아닌 세월로 1000년 이상을 보냈으니 도시 자체가 유적, 박물관, 보물이다. 경주는 오랜 시간 제1의 수학여행지였다. 친구들과 웃고 떠드느라 그 귀하다는 유물과 장소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수많은 학생이 경주에 청춘의 추억 한 자락을 심고 돌아왔다. 그러다 훗날 문득 경주를 떠올린다. 학창 시절, 나와 친구의 풋풋했던 모습과 함께. 다시 찾은 경주는 이전과 사뭇 다르다. 고분을 거니는 기분이, 볼국사를 보는 감상이. 안내판을 꼼꼼하게 읽게 되고, 과거와 미래와 삶과 죽음을 사색하게 된다. 두 번째 '수학'여행이다. 고분군이 경주의 첫인상이라 하여 도시 분위기가 무거운 것만은 당연히 아니다. 먼 옛날 먼저 간 이의 무덤은 지금 여기의 삶에 유한하고도 애뜻한 낭만을 부여한다. 몇 걸음마다 마주치는 유물과 유적지도 마찬가지다. 많은 영상 제작자가 이런 이유로 경주를 선택했다. 옛 무덤 앞에서 하는 고백의 무게라... 사랑, 용서, 슬픔, 회한이 여기서는 조금 더 짙고 아름다우며 절실해진다.

신라 외의 경주도 다양한 면모를 갖췄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옥산서원과 양동마을은 조선의 정취를 오롯이 전하고, 동쪽에서는 동해를 따라 소박한 어촌이 마음을 잡아끈다. 경주 여행기에는 사진이나 동영상 찍기만 해도 영화 같고 뮤직비디오 같다는 말이 즐비하다. 나이가 몇 살이든 박혁거세보단 한참 젊어 모두가 청춘이 되는 경주. 그곳의 진한 감수성을 담은 작품을 만난다. **K**

Gyeongju is an enchanting city, and its unique atmosphere comes mainly from the royal tombs that occupy quite a large area. Gong Yoon-hee, the protagonist of the movie *Gyeongju*, says, “The tombs are a typical scene in Gyeongju.” They are traces of legendary figures from the past, and evidence that even the most extraordinary people have returned to earth as dust. The passage of time that can be felt in Gyeongju is simply overwhelming. Silla was overthrown in 935, and even after a thousand years, we are still going about our daily lives amidst the tombs. The common yet profound saying that life and death coexist feel as natural as air.

Having served a thousand years as the capital and another thousand years as a non-capital, the city itself is an ancient relic, a museum, and a treasure. Gyeongju is the top destination for field trips. Many students have special memories of hanging out with their friends in Gyeongju. Those who visit the city as grown-ups are bound to feel a sense of nostalgia as they walk through the tombs. The royal tombs create your first impression of Gyeongju, but the city is not as solemn as you'd expect. The tombs from the distant past give a finite, nostalgic romance to the present. Many filmmakers have chosen Gyeongju for this reason. Love, forgiveness, sadness and regret become deeper and more poignant here.

Among the city's many attractions, Oksanseowon Confucian Academy and Yangdong Village—both listed as UNESCO World Heritage sites—embody the spirit of the Joseon Dynasty, while the quaint fishing villages along the eastern coast captivate the heart. A simple photo or video taken in Gyeongju seems like a scene out of a movie. Read on for more on the city as a filming location. **K**

오래된 낭만, 경주

신라의 수도로 1000년, 수도 이후로 보낸 세월이 또 1000년. 경북 경주에 어린 시간은 이 도시만의 정서를 이룬다.





이곳에서 촬영했어요



DRAMA

<나쁜 엄마> #화랑의언덕

검사로 일하던 주인공 강호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한 뒤 일곱 살 수준의 지능과 기억을 가진 채 엄마 집으로 돌아온다.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강호. 동네의 쌍둥이 꼬마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 또한 검사 최강호라면 상상도 못 했을 일이다. 신라의 화랑 김유신이 수련했다는 전설을 지닌 화랑의언덕 탁 트인 전망과 따스한 초원이 주인공을 축복하는 듯하다.

Kang-ho, who worked as a prosecutor, suffers a mysterious traffic accident and returns to his mother's house with the mind of a seven-year-old. Playing with the neighborhood twins is something he could never have imagined. The picturesque view of Hwarang Hill offers solace and hope.



MUSIC VIDEO

<파랑새의 꿈> #불국사

고해 같은 세상에 불국정토를 건설하려는 꿈을 갖고 신라인이 지은 불국사에서 퓨전 국악 그룹 비단이 노래한다. "나는 것밖에 모르던 새는 바람 속에서만 편히 쉰다네. 여윈 몸 하나 편히 누울 곳 없이 떠다니면서 겨우 몸을 가누네." 노래가 어찌 이리 고울까. 13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무시로 서러워 지곤 하는 생을 아름다운 공간과 음악이 위로한다.

Bulguksa Temple resonates with the music of the fusion traditional music group Vidan. "The bird only knows how to fly finds comfort in the wind. With no place to rest, it struggles to get by, and is left with nothing but skin." The beautiful space and music provide comfort to those struggling in life.



DRAMA

<응답하라 1988> #경주역, 첨성대 등

수학여행 에피소드가 나오는 작품이라면 목적지는 열에 아홉이 경주다. 수학여행의 대명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이 도시에 '응팔'의 청춘들이 방문했다. 떠들썩한 여행 중에도 첫사랑은 피어오르고 시청자는 설레는 여정에 동참한다. 익숙한 단체 사진 배경 경주역은 이제 신경주역에 역할을 내주었지만 복합 문화 공간으로 단장해 손님을 맞는다.

The group of friends in Reply 1988 visited Gyeongju for their field trip. First loves bloom during their visit, and viewers too get butterflies in their stomachs. The background of their first group photo is Gyeongju Station, which has been transformed into a multi-purpose cultural space today.



MOVIE

<마리 이야기> #감포항



분명히 존재했으나 지금은 사라진 것. 바로 과거다. 평범한 직장인인 주인공은 친구의 전화를 받고 어린 시절을 떠올린다. 아버지를 여의고 할머니, 엄마와 살아가던 바닷가 마을의 소년. 등대에서 우연히 발견한 구슬이 그를 환상의 세계로 이끌어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준다. 감포항의 다양한 풍경은 이 추억에 잘 어울리는 배경이다.

The protagonist, an ordinary office worker, receives a phone call from a friend and reminisces about their childhood. At the lighthouse, he stumbles upon a magic marble that leads him into a fantastical world. The scenery of Gampoang Port serves as a fitting backdrop for these memories.



언제나 축제처럼, 대전

이장우 대전시장은 2009년 동구청장 시절 '대전 0시 축제'를 최초로 기획하고 개최한 인물이다. 누구보다 이 도시의 문화와 역사를 사랑하는 그에게 여행 길잡이가 되어 달라고 청했다.



Q. 대전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동구청장을 지내셨으며, 지금도 동구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전이 지닌 아름다움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이 계절에 대전은 유난히 눈부십니다. 계룡산, 식장산, 보문산, 대청호, 금강, 갑천 등 하루가 다르게 푸르러지는 산과 물이 도시를 둘러싸기 때문이죠. 대청호오백리길이 품은 비경과 역사, 맨발로 거니는 계족산 향토길은 또 얼마나 근사한지 모릅니다. 그뿐인가요. 대전은 도시 전체가 지붕 없는 과학관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과 지질박물관, 천연기념물센터, 화폐박물관, 시민천문대, 대전 신세계 아트 앤 사이언스, 엑스포과학공원이 지적 호기심을 충족해 줍니다. 특히 올해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조성 50주년을 맞아 한국표준연구소를 비롯한 수많은 기관이 연구소 문을 활짝 개방한답니다. 흔치 않은 기회이니 많은 분이 참여해주시길 기대합니다.

Q. 14년 전 명맥이 끊긴 '대전 0시 축제'를 부활시킨 주인공이자 2009년 축제 출범 당시 행사를 추진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감회가 남다르시지요. A. 동구청장 시절, 철도 중심지인 대전의 역사를 되짚다가 가수 조용필 씨의 노래 '대전 블루스' 가사 중 "대전발 영시 오십 분"이란 문구에 착안해 '대전 0시 축제'를 열었습니다. 울여름 돌아온 축제는 더 즐



겁고, 더 커졌습니다. '잠들지 않는 대전, 꺼지지 않는 재미'를 주제로 대전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즐거움을 담아 퍼레이드와 문화 예술 공연을 준비 중이거든요. 대전역에서 대전근현대사전시관(옛 충남도청사)에 이르는 원도심 일대를 뜨겁게 달굴 겁니다. 145만 대전 시민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100만여 명이 축제를 찾아 주시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다나 계곡도 좋지만, 도심 한복판에서 열기를 발산하며 뛰노는 축제가 그리우셨을 테니까요.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열릴 축제에 마음껏 몸을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Q. 대전을 '꿀잼 도시', 나아가 '심쿵 도시'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포부를 비치셨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A. 문화 예술계를 육성하고 다양한 축제를 발굴해 대전에 머무는 이들의 행복 지수를 올리는 것이 제 꿈입니다. 스페인 빌바오가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났듯 대전도 과감하게 문화 예술 인프라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예컨대, 2026년까지 대전의 배꼽인 중촌동 인근에 제2시립미술관과 음악 전용 공연장을 갖춘 제2문화예술복합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유등천 등 주변 풍광이 어우러지도록 자연 친화적인 건축 디자인을 고안할 생각입니다. 또 서울 남산에 비견할 만한 대전의 기동인 보문산을 중심으로 체류형 관광단지를 구축하는 일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Q. 7월, 대전에서 휴가를 보낼 이들을 위해 시장님의 취향을 담아 여행 코스를 설계해 주세요. 지난해 대청호오백리길 걷기 대회에 참가했을 만큼 자연에 파묻혀 있기를 즐기신다고 들었습니다. A. 요즘 같은 때라면 피톤치드

향이 그윽한 장태산 자연휴양림에서 하루를 온전히 보내도 좋겠습니다. 장태산은 서구 장안동과 금산군 북수면 경계에 걸친, 높이 374미터의 나지막한 산입니다. 스카이다워, 생태연못, 교과서 식물원 같은 체험 시설이 다채로운 데다 메타세쿼이아 숲이 울창해 이국적 정취도 느낄 수 있죠. 휴양림 안에 숙소가 있어 '숲캉스'를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어요. 만인산과 식장산 사이에 자리한 상소동산림욕장도 매력적인 휴가지입니다. 상소동 오토캠핑장에 머무는 동안 생태 놀이터, 숲 체험원, 지압길 등을 체험하며 휴식을 취해 보세요. 하이лай트는 세계 각국 건축물 모형의 돌탑인데, 마치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처럼 고아한 멋이 흐르지요.

Q. 성심당처럼, 먹거리는 여행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대전의 기막힌 먹거리를 몇 가지만 귀뜸해 주시겠어요? A. 대전은 경부선 철도와 함께 발전한 근대 도시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정착하면서 여러 지역의 다양한 음식이 토착화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두부두루치기와 칼국수는 긴 세월 동안 대전의 대표 음식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술꾼들이 잔술에 안주 삼아 먹곤 했던 두부두루치기는 쫄면 두부와 새빨간 양념을 잘 버무려 얼큰하게 먹는 음식입니다. 소박한 만둣새와 달리 한번 먹고 나면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또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칼국수는 면과 국물, 식재료에 따라 다채롭게 진화해 왔습니다. 칼국수 도시의 명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대전 0시 축제와 발맞추어 '누들대전(Noodle 大田)' 축제를 열 궁리도 하고 있습니다. 꿀맛 도시 대전, 여행하기 좋은 도시 대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대전 0시 축제'에서는 '잠들지 않는 대전, 꺼지지 않는 재미'를 주제로 대전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즐거움을 담아 퍼레이드와 문화 예술 공연을 준비 중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흥을 발산할 축제가 그리우셨지요.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열릴 축제에 마음껏 몸을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PHOTO PICK
대전 여기서 한 컷

대전역의 대표 풍경
보문산

대전은 경부선 철도와 함께 발전한 근대 도시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정착하면서 여러 지역의 다양한 음식이 토착화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두부두루치기와 칼국수는 긴 세월 동안 대전의 대표 음식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술꾼들이 잔술에 안주 삼아 먹곤 했던 두부두루치기는 쫄면 두부와 새빨간 양념을 잘 버무려 얼큰하게 먹는 음식입니다. 소박한 만둣새와 달리 한번 먹고 나면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또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칼국수는 면과 국물, 식재료에 따라 다채롭게 진화해 왔습니다. 칼국수 도시의 명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대전 0시 축제와 발맞추어 '누들대전(Noodle 大田)' 축제를 열 궁리도 하고 있습니다. 꿀맛 도시 대전, 여행하기 좋은 도시 대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보문산에서 어제의 추억을 소환하고, 오늘을 위로받으며 밝은 내일을 꿈꿀 수 있길 바랍니다.

#대전 #대전광역시 #대전시 #보문산 #보문산 #보문산프로젝트 #그린랜드의추억 #종합테마파크

한국철도 자산운영처 자산운영사업부 코레일라운지에 놀러 오세요

기차를 기다리는 마음이 느긋해졌다. 새롭게 단장한 코레일 라운지 덕분이다. 한국철도 자산운영처 자산운영사업부가 코레일라운지를 비롯한 역내 편의 시설 이모저모를 살뜰히 귀띔해 주었다.



(왼쪽부터) 이종흠 처장, 오시환 차장, 이진원 차장, 우지윤 대리, 안철영 주임, 정은영 과장, 정창섭 부장

Q. 한국철도 자산운영사업부는 어떤 곳인가요? A. 자산운영사업부는 기차역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동시에 공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한국철도의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카카오키링을 활용한 '라이언 키링'처럼 한국철도 지적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굿즈 사업, 스토리웨이 편의점 등 상점을 관리하는 구내 영업, 역 곳곳에 자리한 광고 매체 운영, 주차장과 주요 역사 내 임대 회의실 운영 사업이 자산운영사업부의 주요 업무입니다. 최근에는 코레일라운지를 개장해 고객 여러분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Q. 마침 코레일라운지가 금금했습니다. 기획에서 완성까지 과정을 들려주세요. A. 역사를 드나드는 수많은 철도 이용객을 위해 근사한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동시에 식음료 서비스를 제공해 조금 더 편안하게 머물다 가시기를 바랐지요. 개발을 계획하고 첫발을 디뎠을 때만 해도 장소, 비용, 사업자 선정, 운영 주체, 디자인 콘셉트 등 크고 작은 요소를 조율하는 일이 쉽지않았지만, 그저 고객에게 쉼터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수차례 협의를 통해 기존 멤버십라운지의 한계를 뛰어넘은 개방형 복합 상업 시설을 완성했습니다. 산뜻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단장한 코레일라운지는 현재 용산역, 오송역, 부산역에서 운영 중이며 동대구역에서도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Q. 5월에 개장한 광주송정역 주차 빌딩도 자산운영사업부가 이룬 성과 중 하나지요? A. 맞습니다. 광주송정역을 이용하는 고객이 늘어나면서 주차난이 심각해졌고, 새로운 주차 공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약 370억 원을 투자해 광주송정역 남쪽에 위치한 기존 주차장 부지에 차량 1580대를 수용하는 지상 6층 규모의 주차 빌딩을 세운 이유입니다. 최신 시스템을 갖춘 주차 빌딩은 기존 주차장(401면)보다 수용 규모가 네 배 정도 큼니다. 고객 편의를 높인 것은 물론, 역 주변 교통을 원활히 하는 데 기여하고 있죠. 편리한 주차 공간 확보와 철도 이용 안정화는 광주 시민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차 빌딩 개장으로 지역과 상생하려는 한국철도의 의지가 널리 알려지기를, 또한 철도 이용 고객의 만족감이 한층 커지기를 바랍니다.

Q. 자산운영사업부의 손길이 닿은 편의 시설 중 조금 더 널리 알고 싶은 것이 있나요? A. 한국철도 본사와 전국 19개 역사에서 총 73개 유료 회의실을 운영합니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첫 화면 왼쪽 상단 '승차권 간편 예매' 상자 아래 '회의실' 링크 연결)에서 예약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빔 프로젝터, 화상 회의 시스템, 노트북 등 필요한 장비도 대여 가능합니다. 역사 내 상업 공간은 자산운영사업부가 관리하는 가장 친숙한 시설일 겁니다. 음료나

기차역은 이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진화하는 중입니다. 기차를 타지 않더라도 역 안에서 활동적인 시간을 보내도록 다채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역마다 차별화한 콘셉트를 적용해 역과 열차를 많이 이용하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간단한 간식을 판매하는 스토리웨이 편의점이 대표적이죠. 부산역 '범포어묵'이나 동대구역 '삼송빵집', 대전역 '성심당'처럼 지역 인기 브랜드가 입점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공간이니만큼 고객 여러분도 즐겁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Q. 자산운영사업부 구성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꼽으신다면요? A. 2021년, BTS 정국 씨의 생일 축하 메시지를 담은 KTX 열차 래핑 광고를 잇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특정 인물에게 전달하는 문구와 이미지가 KTX 래핑 광고로 적절하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으나, K팝 열풍에 힘입어 KTX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새로운 광고 시장을 개척한다는 데 의미를 두기도 했지요. 그렇게 KTX 20량 388미터 전면에 래핑 광고를 진행했고, 시의적절하게 BTS가 빌보드 차트 1위를 석권한 덕에 대내외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지난해 가수 임영웅 씨 데뷔 6주년 기념 KTX 래핑 광고도 한 선례가 있었기에 성공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앞으로는 블랙핑크처럼 K팝을 이끄는 여성 가수의 래핑 광고도 기대해 봅니다.

Q. 자산운영사업부의 포부를 밝혀 주세요. A. 기차역은 이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진화하는 중입니다. 철도 이용객이 오가는 공간을 넘어, 몰(mall)과 광장 기능을 수행하고 있죠. 기차를 타지 않더라도 역 안에서 활동적인 시간을 보내도록 다채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역마다 차별화한 콘셉트를 적용해 역과 열차를 많이 이용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탄탄한 콘텐츠와 즐길 거리를 담은 철도 역사에 꾸준한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코레일 라운지, 이렇게 이용해 보세요!

- 역 안에서 구입한 모든 음식물은 코레일 라운지에서 섭취 가능합니다.
-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충전 콘센트를 이용하면서 열차 대기 시간을 보냅니다.
- 라운지 내부에 설치한 열차 출발 안내판으로 편리하게 일정을 확인합니다.
- 공용 와이파이를 제공하니 업무, 여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합니다.

Treasure of Korea



고려의 여름날

- 청동 은입사 물가풍경무늬 정병

정병은 맑은 물을 담은 병이라는 뜻으로, 절에서 주로 불 보살에게 공양할 때 사용했다. 고려 시대인 12세기 무렵 만든 이 병은 옆으로 돌출된 마개 달린 입 쪽에 물을 넣은 뒤 대롱처럼 솟은 첨대로 따라 쓰는 구조다. 몸체에는 표면 가득 물가 풍경을 담았다. 양쪽에 선 커다란 버드나무 사이사이로 갈대가 바람에 나부낀다. 하늘에는 새가 줄지어 날아가고, 아래쪽으로는 어부로 짐작되는 삿갓 쓴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 이리저리 헤엄치는 물새도 보인다. 각자 분주한 듯하면서도 어딘지 한가롭게 느껴지는 여름날의 풍경이다. 고려 사람의 생활상을 나타낸 것일까?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모습에서 평화로움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그림은 청동 표면에 가늘게 흙을 내고 그곳에 일일이 가느다란 은실을 박아 넣어 완성했다. 이토록 섬세한 기법으로 제작한 국보 정병은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3층 금속공예실에서 만날 수 있다.

One Summer Day in Gory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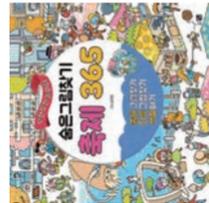
-Bronze Kundika with Silver Inlaid Landscape Design

A kundika, mainly used in Buddhist temples, is an ewer that holds clear water. Created around the 12th century during the Goryeo dynasty, this kundika has a mouth protruding from the side, and a long spout at the top. The body is adorned with a waterside landscape. Reeds are waving between large willow trees, and birds are flying over people below, who are presumed to be fishermen. This summer day scene is bustling yet idyllic. The harmony between nature and people evokes a sense of peace. The artwork was completed using fine lines of inlaid silver against the bronze background. This national treasure is on display at the Metal Crafts Gallery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숨은그림찾기 추제 365>

충남 보령 머드 축제, 강원도 강릉 커피 축제 등 한국의 여러 축제와 스페인, 독일 등 세계의 다양한 페스티벌을 배경으로 한 그림에서 물건을 찾는다. 페이퍼 크래프트 만들기, 색칠하기도 수록해 재미가 두 배다.

김현정, 이강실 지음 도서출판 큰그림 퍼넌



숨어 있는 그림 30개를 찾아보세요.

- ① 튜브
- ② 구멍표지
- ③ 배
- ④ 모터보트
- ⑤ 서핑 보드
- ⑥ 오리발
- ⑦ 오라클
- ⑧ 이스트림
- ⑨ 솔리피
- ⑩ 물안경
- ⑪ 비치볼
- ⑫ 호수라키
- ⑬ 수영부
- ⑭ 수건
- ⑮ 바나나보트
- ⑯ 모래상
- ⑰ 샌드박스 (이웃단 자판기)
- ⑱ 신들라스
- ⑲ 고무보트
- ⑳ 제트스키
- ㉑ 신데렐라 (명품용 침대)
- ㉒ 코넬 놀이
- ㉓ 물총
- ㉔ 수영모자
- ㉕ 바누
- ㉖ 모래놀이
- ㉗ 물총
- ㉘ 수영모자
- ㉙ 수영복
- ㉚ 수영복
- ㉛ 수영복
- ㉜ 수영복
- ㉝ 수영복
- ㉞ 수영복
- ㉟ 수영복
- ㊱ 수영복
- ㊲ 수영복
- ㊳ 수영복
- ㊴ 수영복
- ㊵ 수영복
- ㊶ 수영복
- ㊷ 수영복
- ㊸ 수영복
- ㊹ 수영복
- ㊺ 수영복

Puzzle_ 보령 머드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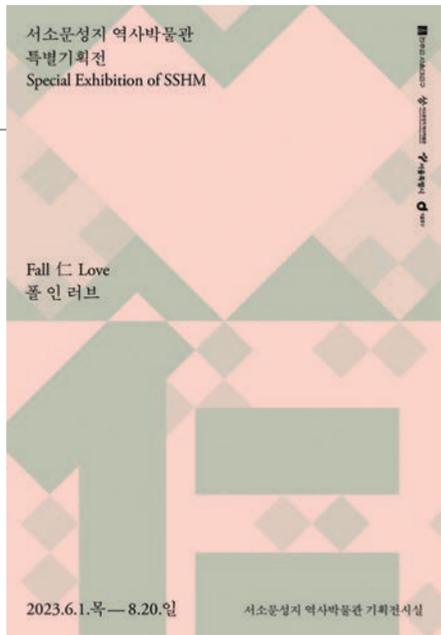
* 다음 페이지에서 타미 친구들도 도전할 수 있게 디자인만 찾아봐주세요.

* 104쪽에 있습니다.

Culture

전시·신간

EXHIBIT



<Fall 仁 Love>

‘나’에게서 출발해 세계로 확장하는 수평적 사랑. 조선 시대 선비에게 사랑이란 곧 인(仁)이다. <사소절> <금양잡록> <향례합편> <경세유표> 등 한국 유교사의 유물 57점을 망라한 이번 전시는 타인을 넘어 사물과 자연까지 뻗어 가는 ‘포편애’를 고찰한다. 전시 구조물 70퍼센트 이상을 재활용 가능하게 제작하고, 책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지식을 나눠 드립니다’ 등을 진행해 인의 실천을 다방면으로 유도한다.

기간 8월 20일까지 문의 02-3147-2401(서울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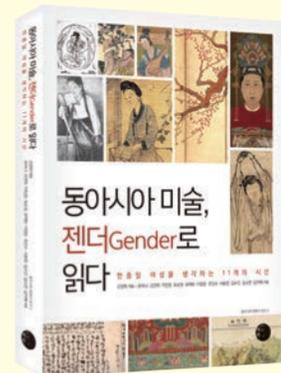
<Geometries of the Forest>

숲에선 누구나 아이의 마음이 된다. 풀포기를 들여다보고, 나비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눈으로 쫓는다. 애드 미놀리티는 숲이 우리 세계와 다르지 않음을 발견하고 이 풍경을 조형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장난스러운 색과 자유분방한 형태로 온갖 규범과 질서에 의문을 던지고,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체성을 포용하려는 시도다.

기간 8월 20일까지 문의 02-2233-2335(페레스프로젝트 서울)



BOOK



<동아시아 미술, 젠더로 읽다>

젠더를 기준 삼아 동아시아 미술을 다시 본다. 지난 시대, 여성의 지위는 불균형했고 미술에서도 그런 경향이 드러난다. 과연 어느 정도일까. 학자들이 이를 치밀하게 연구한 결과를 묶었다. 유미나는 조선의 남성 문인이 ‘미인도’를 언제 어떻게 왜 보았는지 밝히고, 지민경은 초상화 속 여성이 남성 관료 복장을 한 이유를 탐구한다. **고연희** 지음 **혜화1117** 펴냄



<내밀한 계절>

여행 전문 기자로 10년. 일주일에 한 곳씩 기사를 썼다 해도 어렵게 500곳을 다녀온 그에게 여행이란 단순히 좋은 구경 하는 일을 넘어 이야기를 듣는 일이 되었다. 널리 알려진 여행지라도 보는 눈이 달라지면 새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는 법. 여행지를 찾으려 읽다가 여행하는 법까지 배운다. 사진도 당장 떠나고 싶게 한다. **강경록** 지음 **이데일리** 펴냄



<할머니 나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두 단어, ‘할머니’와 ‘나무’가 그림책 제목이다. 연로하여 방에 누워 생활하시지만, 고단한 평생을 사랑으로 채워 온 할머니의 기억 속 삶은 포근하다. 자개장에서 흘러나온 빛을 따라 새로운 여정을 떠나는 할머니. 우리는 헤어져도 헤어지지 않는다. 그림 또한 표지의 반짝이는 자개장부터 정성스럽다. **석양정** 지음 **조영지** 그림 **풀빛** 펴냄

영상 콘텐츠·공연

MOVIE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사고로 남편을 잃고 폴란드 바르샤바로 떠난 명지, 같은 사고로 동생을 잃은 지은, 단짝 친구와 이별한 해수가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위로를 건넨다. <두근두근 내 인생> 등을 집필한 김애란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은 사고 이후 남겨진 이들의 슬픔을 드러낸다.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폐막작으로 상영됐다. 7월 5일 개봉. **감독** 김희정 **출연** 박하선, 김남희, 전석호

ENTERTAINMENT



<버드 박스: 바르셀로나>

스릴러 영화 <버드 박스> 연출진이 세계관을 더욱 확장한 작품을 선보인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재앙으로 전 세계 인구가 급감한 후, 세바스티안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황량한 거리에서 살아남기 위한 여정을 이어간다. 다른 생존자들과 연합하지만 예상치 못한 위협이 도사린다. 7월 14일 공개. **제공** 넷플릭스 **감독** 알렉스 파스토르, 다비드 파스토르 **출연** 마리오 카사스, 조지나 캠벨

SHOWS

<2023 여우락 페스티벌>

국립극장이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라고 외치는 국악 공연 축제 ‘여우락 페스티벌’로 찾아온다. ‘축제하는 인간’을 주제로 23일간 12개 공연을 펼쳐 관객의 흥을 돋운다. 명창 윤진철과 무녀 김동언이 판소리 강산제 ‘심청가’와 동해안별신곡의 ‘심청굿’을 번갈아 주고받는 공연 <불문율>로 축제를 열고, 올해의 예술 감독 이아람과 피아니스트 손얼음이 전통 창작 음악과 클래식을 아우르는 무대 <백야>로 마무리한다. **기간** 7월 22일까지 **장소** 서울 국립극장 외 문의 02-2280-4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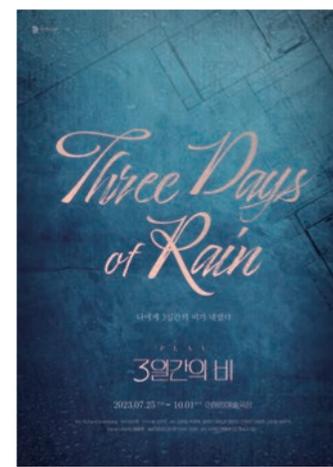
<춘향: 날개를 뜬 새>

자유를 향한 춘향의 열망이 국립정동극장 예술단의 몸짓으로 피어난다.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인 <춘향전>을 일인칭 시점으로 바꿔 무용과 악기로 표현했다. 대금, 피리, 태평소 등 악기가 춘향과 몽룡, 변학도의 목소리를 대신한 점이 특이하다. 악기 연주자들도 무대에 올라 안무가와 함께 작품을 완성한다. 바닥에 설치한 LED 패널로 꽃, 은하수, 인물의 감정 등을 그려내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했다. **날짜** 7월 15일 **장소** 경남 김해문화의전당 **문의** 055-320-1234



<3일간의 비>

워커와 낸은 유명 건축가였던 아버지 네드의 유산을 정리하던 중 발견한 일기장으로 과거의 진실을 들여다본다. 1960년 4월 3일부터 3일간 내린 비. 일기장에 담긴 유산의 비밀이 드러난다. 연극의 시대 배경은 1995년과 1960년대를 오간다. 미국 극작가 리처드 그린버그의 동명 작품이 원작이며, 김주현·류현경·이동하·하니 등 출연진은 1인 2역으로 자식과 부모 세대를 동시에 연기한다. **기간** 7월 25일~10월 1일 **장소** 서울 동국대학교 이해랑예술극장 **문의** 02-764-8760





Letters from Readers



<KTX매거진>을 보고 나서



물 맑은 영주 소백산 자락길

기차 타러 오던 중 휴대전화가 파손됐습니다. 속상한 마음으로 있다가 <KTX매거진>을 넘기는데, 경북 영주 여행 기사가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아름다운 사진에 매료되어 한참을 보았습니다. 매거진을 읽으며 눈은 물론 마음까지 맑아졌어요. **장현주** 서울시 성북구 서경로



충만한 하루, 충분한 하루 고창

전북 고창을 소개한 글을 읽고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운곡습지와 고인돌을 보러 고창에 가고 싶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다음 여행지를 정했습니다. <KTX매거진>은 제 여행 정보 참고합니다. **권혁미** 인천시 서구 비지니스로

독자 편지를 보내 주세요!

<KTX매거진>을 읽은 소감과 독자님의 여행 사진을 기다립니다. KTX@seoulmedia.co.kr로 독자 평가 들려주고픈 이야기, 추억이 담긴 사진을 보내 주세요(사진은 600KB 이상). 메일에 **이름, 연락처, 주소**를 꼭 기재해 주세요. 마감은 **7월 15일**입니다.

기차로 여행하면서



예전에 <KTX매거진>을 보고 전남 목포로 여행을 떠났거든요.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아서 가족 모두 다시 목포에 왔습니다. 어디를 가야 하는지 알려 주는 <KTX매거진> 덕분에 이번에도 잘 다녀왔습니다! **김미경**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독자 편지에 선정된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KTX매거진> 독자 편지에 선정된 분께는 자연에서 온 100퍼센트 천연 유기물질 풀빅산을 함유해 두피 탄력 및 모공 관리,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약산성 풀빅 헤어샴푸 & 토닉 세트(7만 원 상당)를 선물로 드립니다. 허수오 뿌리, 병풀, 창포 뿌리, 어성초 등 식물성 원료 6종이 예민해진 두피 건강에 도움을 주어 가늘고 힘없는 모발을 튼튼하게 해 주는 기능성 제품입니다.



제품 문의 1522-9158



Information



제12회 철도사진공모전 'KTX-이음, 동해로 질주'



- 091 한국철도 소식
- 098 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 100 열차 이용 안내
- 102 비상시 행동 매뉴얼





2023 강릉 세계합창대회

The 12th World Choir Games – Gangneung 2023

2023. 7. 3. (월) ~ 7. 13. (목)
강릉아레나, 강릉아트센터 등

행사내용 주요행사 개·폐막식 / 경연 / 시상식 등
부대행사 거리 퍼레이드 / 워크숍 / 세계합창총회 등

경연종목 챔피언 경연, 오픈 경연 각 28개 부문

관람안내 개·폐막식, 축하콘서트 : 티켓예매
경연, 시상식, 우정콘서트 : 선착순 무료관람



문의 | 2023 강릉 세계합창대회 조직위원회 운영추진단(033-640-2719)



KORAIL NEWS



한국철도, '2023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 참여

한국철도가 지난 6월 '2023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에서 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철도 시스템을 공개했다. 전시, 체험, 홍보, 동반 성장 총 네 가지 테마로 구성한 홍보 부스에서는 철도 안전 시스템 디오라마, 메타버스 기차역 등을 선보였다. 중소·벤처 기업과 협력해 실용화를 앞둔 철도 기술을 소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11회 개최를 맞는 세계 4대 철도 전시회로, 14개국 120개 사가 참여했다.

1



라오스에 전수한 한국철도 기술

한국철도의 우수한 운영 기술이 라오스에 닿았다. 한국철도가 라오스 교통 공무원을 대상으로 '철도 시스템 개발 및 관리 역량 강화' 온라인 연수를 진행한 것이다.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 연수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열린 연수는 라오스 교통·철도 분야 관리자 스무 명이 화상으로 참여했다. 연수생들은 철도 운영 노하우 등을 전수해 철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2



대학생 사회 공헌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발표

젊은 아이디어가 사회를 빛낸다. 한국철도가 철도 인프라를 활용한 사회 공헌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에는 스물세 팀이 참여했다. 최우수상은 취약 계층 청소년을 위한 철도 시스템 교육·체험 사업으로, 한국교통대학교 학생 팀의 '내일(Rail)을 여는 아이들'이 수상했다. 한국철도는 수상자와 함께 아이디어를 반영한 사회 공헌 활동 사업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3



여름철 폭염·풍수해 대비 총력

무더위에 맞서 안전을 향한 의지를 굳게 다진다. 올여름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기상청 발표에 따라 한국철도가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춘 재해대책본부로 중심으로 재해 예방 계획을 세웠다. 여름을 대비해 지난 5월 중순부터 가동한 재해대책본부는 전국 선로에 레일 온도 측정 장치와 살수 장치를 설치하고, 냉방 설비를 점검하는 등 철저한 대응 태세를 유지 중이다.

4

관광택시, 코레일과 함께 여행을 그리다

코레일톡이 추천하는 지역여행의 특별한 방법

코레일톡에서 열차와 관광택시 예약을 한번에~



7월에 관광택시로 가볼만한 추천여행지

<p>부산 #해동용궁사 #카페베이스 #해운대블루라인파크 이용시간 5시간 이용요금 100,000원</p>	<p>여수 #여수해성케이블카 #항일암 #여수예술랜드 #돌산공원 이용시간 8시간 이용요금 160,000원</p>	<p>경성 #홍주음성 #거북이마을 #고아커피 #남당노을전망대 #돌산공원 이용시간 6시간 이용요금 55,000원</p>
<p>전주 #이림지 #모산비행장 #안양책 #카페지구대 #창흥호반케이블카 이용시간 8시간 이용요금 85,000원</p>	<p>순천 #순천만습지 #선암사 #국가정원 #카페브루역스 이용시간 8시간 이용요금 150,000원</p>	<p>포항 #연오랑세오녀테마공원 #기암식물원 #월포해수욕장 이용시간 7시간 이용요금 130,000원</p>

관광택시 이용방법



ALL THAT KORAIL SERVICE



한국철도 서비스 고객 참여단 출발 7월부터 1년간 고객 대표로 서비스 점검 및 제안 참여

고객과 소통을 강화하며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늘 노력하는 한국철도가 '한국철도 서비스 고객 참여단'을 구성했다. 참여단은 평상시 한국철도를 자주 이용하고, 철도 서비스에 관심을 가진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접수했으며, 신청자의 철도 이용 지역과 노선 등을 고려해 선발했다.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는 단원들은 1년간 각 지역 본부에 소속되어 철도 서비스 전반을 점검 또는 제안하고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의 파일럿 테스트, 각종 홍보 및 캠페인 참여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철도 서비스 전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책을 직접 제안하거나 공사 서비스 정책과 관련한 간담회·심의회 등에 고객 대표로 참여한다. 한국철도는 2018년부터 고객 평가단을 운영하면서 1500여 건의 서비스를 개선했고, 실제로 고객 불편에 선제적으로 대처한 경험이 있다. 철도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탄생한 고객 참여단의 활동 덕에 한국철도의 서비스가 고객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간다.

고객과 소통을 강화하며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늘 노력하는 한국철도가 '한국철도 서비스 고객 참여단'을 구성했다. 참여단은 평상시 한국철도를 자주 이용하고, 철도 서비스에 관심을 가진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접수했으며, 신청자의 철도 이용 지역과 노선 등을 고려해 선발했다.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는 단원들은 1년간 각 지역 본부에 소속되어 철도 서비스 전반을 점검 또는 제안하고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의 파일럿 테스트, 각종 홍보 및 캠페인 참여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철도 서비스 전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책을 직접 제안하거나 공사 서비스 정책과 관련한 간담회·심의회 등에 고객 대표로 참여한다. 한국철도는 2018년부터 고객 평가단을 운영하면서 1500여 건의 서비스를 개선했고, 실제로 고객 불편에 선제적으로 대처한 경험이 있다. 철도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탄생한 고객 참여단의 활동 덕에 한국철도의 서비스가 고객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간다.

KTX + 아시아나 타고 해외여행 가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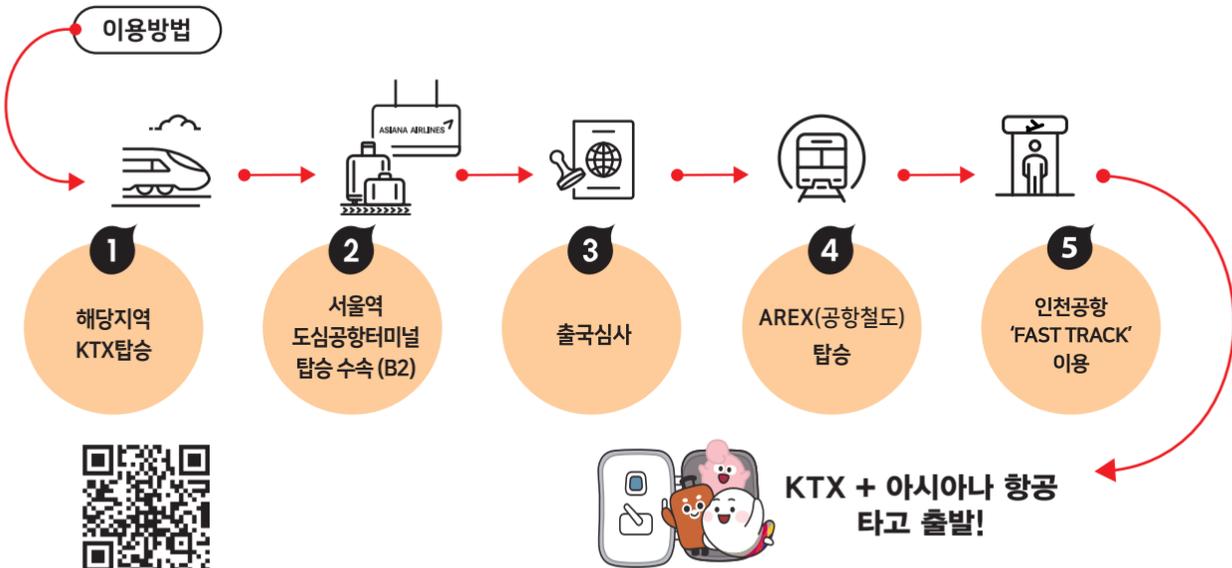
RAIL&AIR



덜어내세요, 요금도 짐도 가볍게!

공항 가는길, KTX는 할인 받고, 탑승 수속은 도심공항터미널에서 먼저 마치는
ASIANA Rail & Air로 보다 편리한 여행을 시작하세요

<p>혜택 1</p> <p>KTX 운임 할인!</p>  <p>KTX 왕복 할인 적용 예) 부산 출/도착 왕복 이용시 최대 8만원 할인 효과 *각 지역별 할인 운임 상이</p>	<p>혜택 2</p> <p>도심공항터미널 탑승 수속 완료</p>  <p>인천 공항에서 긴 대기 없이, 도심공항터미널에서 수하물 위탁 및 탑승 수속 완료</p>	<p>혜택 3</p> <p>'FAST TRACK'으로 시간 절약</p>  <p>인천공항 우대 출구를 이용한 빠른 출국 수속 가능 (승무원 전용 통로 이용)</p>
---	---	---



▶ 이용방법 동영상으로 확인



KORAIL SNS



죽령옛길 따라 초록빛 영주 여행_<KTX매거진> 따라가는 여행! 경북 영주 풍기 회방사역부터 죽령마루까지 걸어요. (한국철도 명예기자 @우물안개구리)




경춘선 주변 여행지 탐방_강원도 춘천을 전철 혹은 기차로 방문하는 방법과 춘천 대표역, 주변 여행지가 지 살펴보세요. (한국철도 명예기자 @역쟁이TV)




기차 타고 남도 한 바퀴_광주송정역에서 매주 화요일 오전에 출발하는 '남도한바퀴' 버스! 전남 무안·신안으로 여행을 떠나요. (한국철도 명예기자 @뽀뽀로드)




KTX-이음 타고 떠나는 월정사&전나무 숲길 여행_새소리, 물소리 청아한 평창 월정사와 전나무 숲길을 소개합니다. (한국철도 명예기자 @홍윤이네)




서울역에 울려 퍼지는 하모니, 합창철도999_지난 5월, 서울역에서 열린 합창 공연! 클래식스, 콜링콰이어와 아카펠라 그룹 튜에이드의 라이브를 감상해요.




무궁화호 운전실 타고 순천에서 마산까지_경전선 순천역에서 마산역까지 무궁화호 운전실에 올라 즐기는 랜선 여행,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 QR코드를 스캔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도동서원

인간의 생보다 몇 배는 더 살았을 은행나무와 서원 옆을 흐르는 낙동강이 동양화 같은 풍경을 자아낸다. 조선의 성리학자 김광필을 배향한 서원으로, 1871년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도 굳건히 자리를 지켰다. '도동'은 성리학의 도가 동쪽으로 왔다는 의미다. 201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송해공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조성한 옥연지가 방송인 송해 선생과 함께 사랑받는 공원으로 거듭났다. 대구 달성군 명예 군민이자 홍보 대사로 활동했던 송해 선생의 이름을 그대로 써 그를 기렸다. 구름다리, 출렁다리, 전망 심터와 음악 분수 등이 공원을 찾는 이들에게 소소한 재미를 선사한다.

떠오르는 대구 여행지, 달성군으로 가요!



사문진주막촌

대구 달성과 경북 고령을 잇는 낙동강 뱃길에 위치해 예부터 보부상들이 자주 드나든 나루터다. 상인들로 붐볐던 때를 재현한 듯, 정취 가득한 전통 주막집과 초가집이 즐비하다. 사문진은 낙조 명소로 특히 이름난 곳이다. 전통 주막집에서 낙동강 위로 떨어지는 해를 지켜보는 시간이 특별하다.



100대 피아노 콘서트

1900년 3월, 미국인 선교사 리처드 사이드 보텀이 달성군 화원을 사문진나루터로 피아노를 들인다. 이러한 역사를 기념해 사문진에서는 매년 9월 '100대 피아노 콘서트'가 열린다. 행사 이름처럼 피아노 100대가 자아낸 선율이 낙동강을 타고 흐른다. 클래식부터 재즈, 국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마음을 적신다.

‘달성군 체크인’으로 대구 한 바퀴

대구시 달성군으로 향하는 열차와 렌터카를 연계한 자유 여행 상품으로, 특정 조건을 인증하면 1인당 3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지원한다.

운영기간

7월 1일(토)~11월 30일(목)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탑승기간

7월 3일(월)~12월 30일(토)



상품구성

열차 이용권과 렌터카

운영구간

(출발역) 대구권 이외(경북 지역 가능)
(도착역) 동대구역

* 열차 정보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및 코레일톡 앱 → 관광 상품 → 달성군 체크인 상품에서 확인

렌터카

예약 후 출발 2일 전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 *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내 고려렌터카 동대구 영업소 방문 후 배차
- * 모닝 기준 주중 3만원, 주말 4만원(단, 자차 보험 별도)
- * 렌터카 문의 053-745-3700

지원사항

열차 10퍼센트 할인, 렌터카 1만원 할인,
1인(어른·어린이 동일) 힐링 지원금 3만원 지급

지원조건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및 코레일톡 앱에서
달성군 체크인 상품 구입 → 달성군 관내 2만원
이상 소비(식음료) 및 여행지 방문 사진 1장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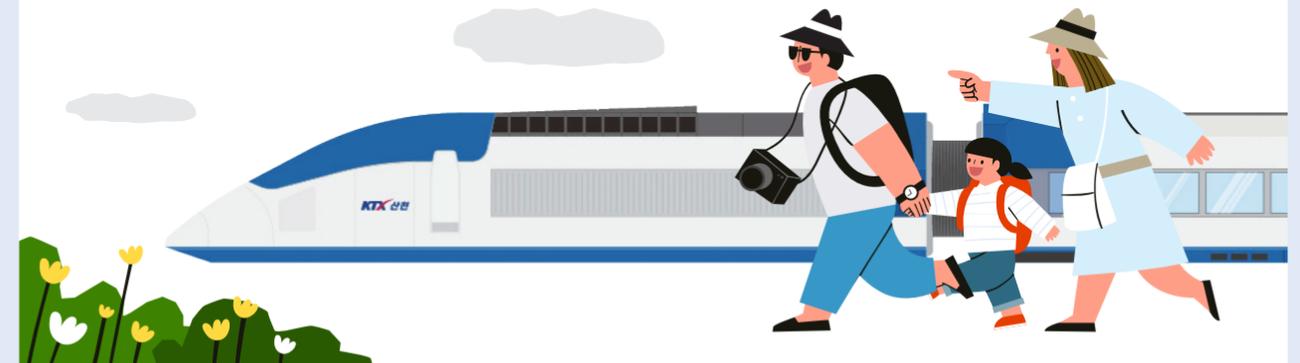
- * 인증 기간은 승차일 포함 7일 이내(관내 소비 기간 동일)
- * 일요일까지 증빙 시 2주 뒤 목요일 지원금 입금
- * 별도 링크를 통해 영수증 및 사진 업로드로 인증 진행

지급방법

인증 완료 고객 대상에게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3만원) 발송

취소 수수료 안내

- * 출발 3일 전: 수수료 0퍼센트 부과(전액 환불)
- * 출발 2일 전: 수수료 10퍼센트 부과(90퍼센트 환불)
- * 출발 1일 전: 수수료 20퍼센트 부과(80퍼센트 환불)
- * 출발 당일: 환불 및 변경 불가



문의 053-940-2223(한국철도 대구권 여행센터) 또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편의 시설

일반 객실

Passenger Compartment

좌석 간격
Seat Space



KTX
930mm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이동통신망
Free Wireless Internet Service



열차 내에서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전용 콘센트 & USB 포트
Socket & USB Port



열차 내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실 서비스

First Class Service

좌석 간격
Seat Space



KTX
1120mm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식음료
Refreshment



특실 이용객을 위한 셀프 서비스
물품은 KTX 3, 4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에 있으며
특실 생수 자판기는 KTX
3, 4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

KTX 미니 도서관
KTX Mini Library



단행본은 KTX 4호차와
KTX-산천 3, 13호차,
잡지·신문은 KTX 3, 5호차와
KTX-산천 3, 13호차 지정
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AMENITIES

편의 시설

Amenities

화장실
Restroom



KTX 1, 2, 4, 6, 8, 11, 13, 15,
17, 18호차와 KTX-산천 3, 5,
6, 8, 13, 15, 16, 18호차와
KTX-이음 1, 6호차와
ITX-새마을 1, 4, 6호차와
ITX-청춘 3, 6호차에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시설
For the Handicapped



전동휠체어석과 장애인용
화장실은 KTX 2호차와
KTX-산천 1, 11호차와
KTX-이음 3호차와
ITX-새마을 3호차와
ITX-청춘 3호차에 있습니다.

수유실
Breast-Feeding Room



유아 동반 고객을 위한 수유실이
KTX 8, 16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와
KTX-이음 4호차와
ITX-새마을 6호차와
ITX-청춘 6호차에 있습니다.

물품 보관소
Luggage Storage Section



각 객차에 위치한
수화물 보관대에
여행용 가방 등 큰 물건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자동심장충격기는
KTX 4, 10, 15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와
KTX-이음 3호차와
ITX-새마을 3호차와
ITX-청춘 3호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동판매기
Vending Machine



음료 및 스낵 자판기가
KTX 5, 9, 11, 13, 16호차와
KTX-산천 2, 6, 12, 16호차와
KTX-이음 3, 4호차와
ITX-새마을 3, 4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

의약품
First-Aid Medicine



KTX 열차 내에
상비약이 준비되어 있어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필요한
약품을 제공합니다.

금연
No Smoking



역 승강장과 열차 안은
모두 금연 구역입니다.
안전한 열차 운행과 건강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열림 버튼
Open-Button(1mins)

1분 열림 버튼 The Button to Open the Door for 1 Minute
각 객실 출입문 위쪽에 위치하며, 누르면 1분 동안 문이 열립니다.

열차 지연 배상 안내

천재지변을 제외한 한국철도공사 귀책 사유로 KTX 및 일반 열차 (ITX-새마을, 누리로, 무궁화호, ITX-청춘)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배상해 드립니다(지연 승낙 승차권 제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지연 발생 시 익일 자동 배상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지연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국 역 또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코레일톡 계좌 이체 신청

KTX 및 ITX-청춘 N카드 이용 안내

모바일 앱 할인 카드인 N카드를 구간과 횟수를 지정해 구입하면 승차권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KTX 및 ITX-청춘을 자주 이용하시는 고객님의 해당 할인 카드도 교통비를 절감해 보세요!

구입 경로 및 이용 안내
코레일톡 앱 → 하단 할인·정기권 탭 → N카드(안내는 ①참고)

* 자세한 사항은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99-787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X 공항버스



6770번, 광명역 ↔ 인천국제공항

운행 시간 오전 5시 20분~오후 8시
(광명역 기준, 30~40분 간격)
소요 시간 (T1 ↔ 광명역) 약 50분, (T2 ↔ 광명역) 약 75분
타는 곳 (광명역) 서편 4번 출구 4번 정류장
(인천국제공항) T1 1층 8B번, T2 지하 1층 45번 정류장
승차권 구입
(인천국제공항 → 광명역) 인천국제공항 버스 매표소
(광명역 → 인천국제공항) 전국 기차역, 코레일톡 등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길라잡이

Rail+

철도 회원이 KTX 승차권을 Rail+카드로
구매 시 1퍼센트 추가 적립,
모바일카드는 KTX 마일리지 전환 사용 가능
교통카드 구매처 편의점(CU,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모바일카드 다운로드 '레일플러스' 스마트폰 앱(Android, iOS)
사용처 전철, 버스, 기차, 택시, 유료 도로, 편의점 등
충전처 전철·기차역, 편의점(CU,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등
* 자세한 사항은 레일플러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종류



railplus.korail.com
QR코드를 스캔하면
레일플러스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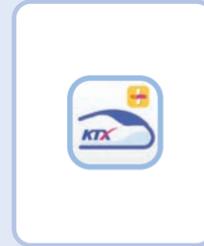
열차 이용 안내

승차권 구입

-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 (코레일톡은 열차 출발 전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결제 금액 5만 원 이상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 결제 후 스마트폰 승차권, 홈티켓으로 직접 발권할 수 있습니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letskorail.com)



'코레일톡'
스마트폰 앱



승차권
자동 발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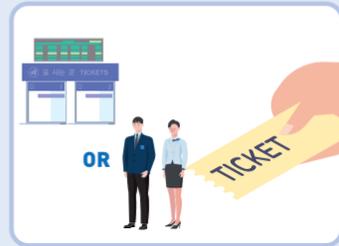
기차역 내 창구
또는 승차권 판매 대리점



'네이버' '카카오'
스마트폰 앱

승차권 분실

- 회원번호, 신용카드 등으로 승차권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금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입석과 자유석 승차권, 분실한 승차권이 변경 또는 반환된 경우, 재발행한 승차권을 반환 또는 변경하거나 도착역 전에 내린 경우 승차권 반환 불가능



역 창구, 열차승무원에게 운임·요금을 다시
지불하고 분실한 승차권 재발급



열차승무원에게 분실 승차권
미사용 확인 요청



역 창구에서 승차권 금액 반환
(최저 반환 수수료 제외)

승차권 반환

- 승차권 반환 시에는 환불 청구 시각, 승차권에 기재된 출발역 출발 시각 및 영수증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구분	출발 전		
	1개월~출발 1일 전	당일~출발 3시간 전	3시간 전 경과 후~출발 시각 전
월~목요일	무료		5%
금~일요일, 공휴일	400원(구입일 포함 7일 이내 환불 시 감면)	5%	10%

구분	출발 후(역 창구에서 환불 신청)		
	20분까지	20분 경과 후~60분	60분 경과 후~도착
월~목요일			
금~일요일, 공휴일	15%	40%	70%

PASSENGER GUIDE

Ticket Booking

- Tickets can be purchased one month in advance and up to 20 minutes before departure (before departure in KORAIL Talk application).
- Installment option available if paying more than KRW 50,000 by credit card.
- Tickets issued as smartphone ticket or home ticket after payment.



Let's KORAIL Website
(letskor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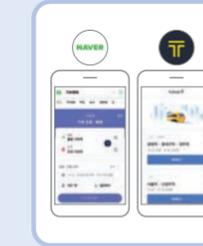
KORAIL Talk
Mobile App



Ticket Vending
Mach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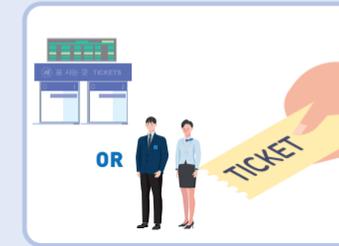
Ticket Booth
or Ticket Retailer



NAVER · KAKAO T
Mobile App

Ticket Loss

- Refunds may be provided for ticket purchases made using the KORAIL membership number or a credit card.
Not applicable to standing tickets, change of lost tickets, change of reissued tickets, and unused sections from alighting before the destination station.



Pay fees at the ticket booth
or to the on-board crew to
reissue your ticket.



Check with the on-board crew that
your lost ticket is unus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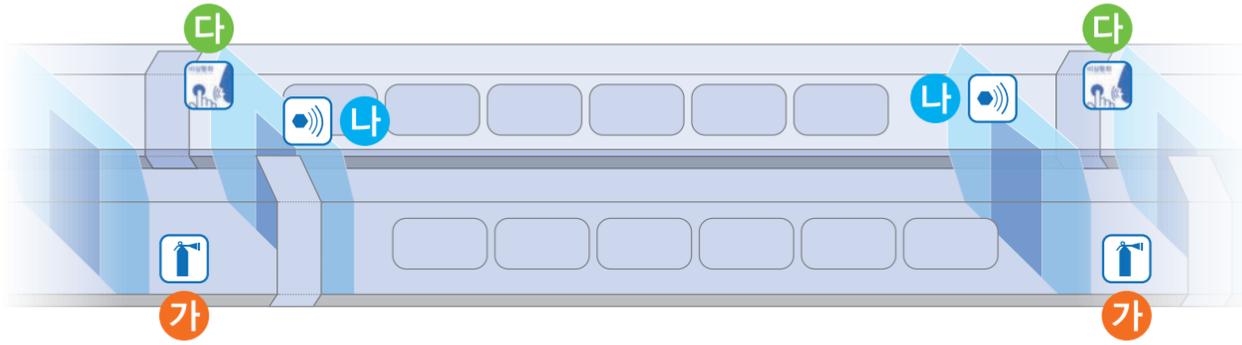
Receive a refund for your lost
ticket at the ticket booth.
(excluding service charge)

Ticket Refund

- Ticket refund value is calculated based on the time of refund claim, departure time specified on the ticket, and original price of ticket on the receipt. Note that a service charge appl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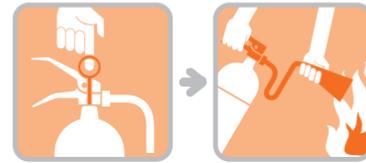
Classification	Before Departure		
	1 month-1 day prior to departure	Day of departure-3 hours prior to departure	3 hours-before departure time
Mon-Thu	Free		5%
Fri-Sun, holidays	KRW 400 (Free within 7 days from date of purchase)	5%	10%

Classification	After Departure (Request refund at ticket booth)		
	Up to 20 minutes	20-60 minutes	60 minutes-arrival time
Mon-Thu			
Fri-Sun, holidays	15%	40%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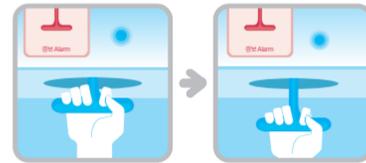
가 소화기 사용 요령
How to Use a Fire Extinguisher

- 승강문 옆 수화물실 아래에 있는 소화기를 꺼내 안전핀을 뽑는다.
Take out the fire extinguisher from the box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pin.
- 불이 난 장소에 골고루 분사한다.
Spray evenly at the area that is on fire.



나 비상 알람 장치
Emergency Ala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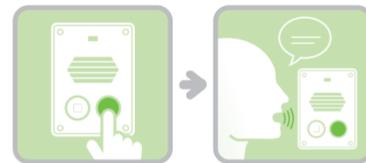
- 객실 내부 출입문 상단의 적색 손잡이를 아래로 당긴다.
Pull down the red emergency alarm handle located at the upper part of the interior door.
- 비상 경보음이 객실 전체에 울린다.
The emergency alarm goes off.



다 승무원 통화 장치
Contacting the Train Cr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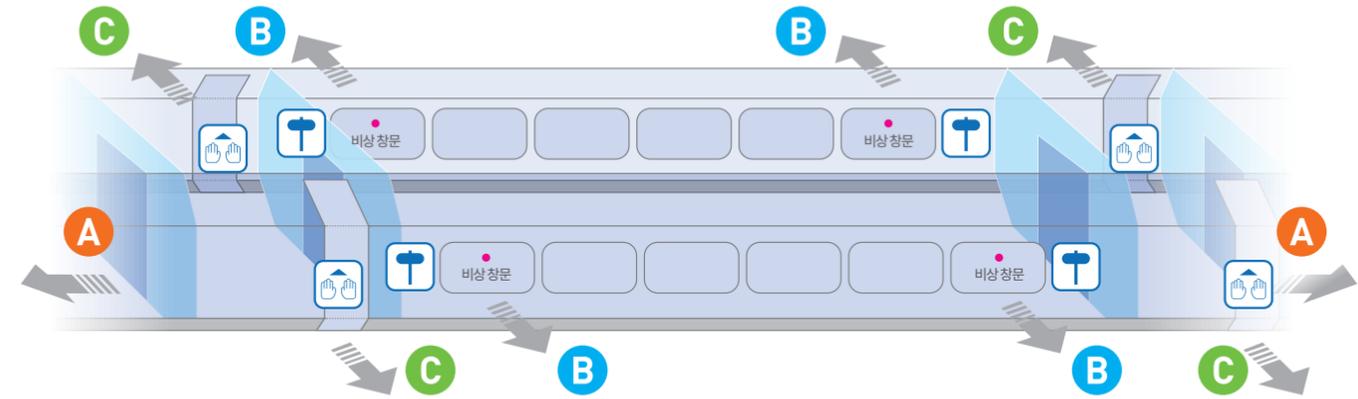
KTX | KTX 산천 | KTX 이음

- 승강문 옆의 버튼을 누른다.
Press the intercom button next to the exterior door.
- 승무원이 응답하면 상황을 알린다.
Notify the train crew of the situation.



ITX 새마을 | ITX 향촌

- 승강문 옆 또는 객실 안에 있는 승객용 비상 호출기 커버를 연다.
Open the emergency intercom box beside at the door or inside the car.
- 마이크를 꺼낸 후 적색 램프가 켜지면 마이크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상황을 알린다.
Take out the microphone. Once the red light is on, press the button on the left of the microphone and inform the situation.



A 다른 객차로 대피
Escape to an Unaffected Car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객차로 안전하게 대피한다. 부상자, 노약자, 임산부가 먼저 피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
Follow instructions of the train crew and move to an unaffected car. Provide assistance to evacuate wounded, elderly people and pregnant women first.

A 터널 탈출 요령
Escape from a Tunnel

터널 내 비상사태 시 자세를 낮추고 비상 유도등을 따라 가까운 터널 입구로 탈출한다.
Follow the emergency exit light to go out the tunnel exit.

A 비상 사다리 위치
Emergency Ladder Location

KTX: 5호차, 14호차 | KTX-산천: 2호차(일부 편성 4호차)
KTX-이음: 1호차, 6호차 | ITX-새마을: 4호차

B 비상 창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mergency Window

- 승강문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객실 양쪽 끝에 있는 비상 탈출 망치의 보호커버를 깨고 망치를 꺼낸다.
If you cannot escape through the exterior door,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hammer box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take out the hammer.
- 양 출입문 쪽에 있는 비상 창문 유리를 망치로 깨고 옷으로 창틀을 덮은 후 그 위로 나간다.
Break the emergency window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exit. Put clothing over the windowsills to protect yourself from broken glass.



C 승강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xterior Door

KT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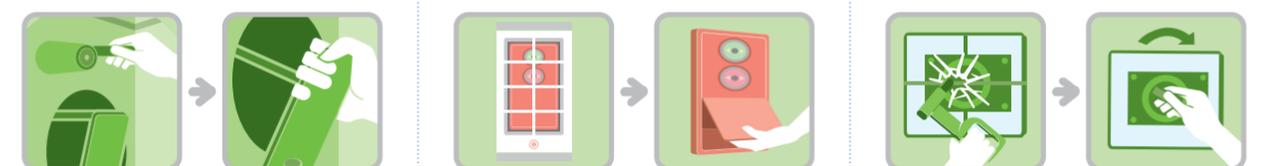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고 위 손잡이를 아래로 돌린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rs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upper handle down.
- 아래 손잡이를 앞으로 당기고 승강문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ower handle down and push the door.

KTX 산천 | KTX 이음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l next to the exterior door.
- 핸들을 2회 당기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handle twice and push the door.

ITX 새마을 | ITX 향촌

- 승강문 옆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emergency door release box.
-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ever to the right. Push door forward and to the side.



Epilogue



<KTX매거진>, 서울역가다

수많은 이가 오가는 주말 오후 서울역, 설레는 마음으로 한복판에 섰다. 기차역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인 시간표 전광판에 사람들 눈길이 머문다. 바로 옆,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멀티비전. 까악! 거기에 <KTX매거진> 홍보 영상이 나오기 시작했다! 멋진 잡지 지면이 연달아 등장하고, 영주·고창 등 여행지 이름이 모션 그래픽으로 재미를 더한다. 한국철도 다른 홍보 영상과 번갈아 송출하기에 기다렸다가 보고, 또 기다렸다가 다시 보고, 사진을 찍고 동영상으로도 담고. 시계를 확인하니 1시간이 지났는데 다리 아픈 줄도 몰랐다. 한국 구석구석 아름다운 풍경과 그곳의 이야기를 깊이 있고 재미있게 소개하려 매달 모두가 영혼을 쏟는다. 30일을 고스란히 바쳐 만든 잡지를 30초에 압축한 영상, 서울역에 가시는 분은 확인해 주실 거죠? K잡지 <KTX매거진>이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뜨는 날을 꿈꾸며. **김현정**



칼국수하면 대전이지유

누군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물으면, 저는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칼국수랑 고기, 단것." 이런 제 대답을 들은 친구가 놀라더니 칼국수를 끓이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하더군요. 어리둥절했습니다. 대전 '얼큰이칼국수'를 모르는 건가? 대전에서 꽤 오래 지내 온 저에게 칼국수는 최고 음식이자 술 푸드였거든요. 속이 알싸할 정도로 맵지만 감칠맛이 깊고, 음식이 나오기 직전 엷은 썩듯 향이 입맛을 돋웁니다. 달걀과 김 가루, 통깨가 들어간 국물 맛은! "크~"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예요(이 글을 쓰는 지금 왜 이렇게 침이 고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극의 칼국수를 맛볼 수 있는 도시, 대전을 저의 첫 '테마 여행' 기사에 소개했습니다. 대전에 가시면 칼국수 꼬옥 드셔 주세요. 제발요! **남혜림**

철도인을 응원합니다

모든 칼럼에 애정을 쏟지만, 한국철도 임직원을 인터뷰하는 '코레일 초대석'은 사심을 담아 공들인다. 더 많은 독자님이 철도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더 많은 철도인 여러분이 자부심을 갖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이달에는 자산운영처 자산운영사업부 오시환 차장님이 부서 대표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기사에 미처 실지 못한 내용을 이 지면에 소개한다. 꿈꾸는 기차 여행이 있느냐 여쭙었더니 돌아온 대답이다. "한국철도 직원 누구나 꿈꿔 봤을 겁니다. 한반도 남북을 연결하는 선로가 놓여, 열차가 대륙을 지나 유럽까지 운행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내일로 상품을 국내에 한정하지 않아도 되니 내일로-유럽 상품을 만들 수도 있겠죠. 모두가 교통수단으로 항공보다 철도를 먼저 떠올리는 날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 내일로-유럽 상품을 기다리며, 철도인을 응원합니다. **강은주**

당신의 별은 무엇입니까

산과 들이 고요하게 잠들고, 불빛 하나 없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 별이 총총 뜬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의 별을 찾는 상상을 해 보았다. 발단은 경남 함안에서 들은 특별한 사연이다. 함안에는 조선이 들어 서던 시기, 고려 사람으로 남겠다고 은거를 택한 모은 이오 선생의 흔적이 남아 있다. 고려동 유적지다. 그는 만발한 자미화에 반해 이곳에 정착했다. 모은이 자미화를 사랑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한다. 예부터 하늘의 별 가운데 자미성은 천자, 즉 왕을 뜻했다. 자미꽃, 그리고 자미성을 바라보며 옛 왕과 사라진 조국을 그리워 했으리라. 묵묵히 밤하늘을 바라보았을 그가 안타깝고, 별을 보면서 그리워했다는 그 정서가 애뜻하다. 비록 별을 발견하기 힘든 오늘날이지만 나의 소중한 것, 소중한 사람을 별로 치환해 늘 생각하고 가슴에 품고 싶다. **육송이**

Puzzle

85쪽 '퍼즐' 정답



시원하게 넘어가다

2023 동강뗏목축제

DONGGANG RAFT FESTIVAL

7. 28(금)-30(일)
영월동강둔치

7.24(월)-30(일)
어린이물놀이장 사전운영